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서울특별시 YWCA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C O N T E N T S

1. 사업개요 — 05

2.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 — 15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 복지분야 · 18
2.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 복지분야 · 20
3. 범죄예방디자인사업 | 안전분야 · 22
4.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 안전/일자리분야 · 24
5. 서울시 일자리 사업 | 일자리분야 · 26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3.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 ——— 28

01 종로구 · 30
02 중구 · 36
03 용산구 · 42
04 성동구 · 48
05 광진구 · 54
06 동대문구 · 60
07 중랑구 · 66
08 성북구 · 74
09 강북구 · 80
10 도봉구 · 86
11 노원구 · 92
12 은평구 · 98
13 서대문구 · 104
14 마포구 · 110
15 양천구 · 116
16 강서구 · 122
17 구로구 · 128
18 금천구 · 134
19 영등포구 · 140
20 동작구 · 146
21 관악구 · 152
22 서초구 · 158
23 강남구 · 166
24 송파구 · 172
25 강동구 · 178

4. 시민활동가들의 젠더거버넌스 활동소감 ——— 186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1

사업개요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추진 배경

성 주류화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제도는 젠더문제를 정책의 관심사로 전환시키는데 얼마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옴

서울시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행정부서간 칸막이 속에서 분절화 된 성 주류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 행정, 시민, 연구자 등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인 협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젠더 거버넌스 주체로서 시민사회 역량강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행정과 대등한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여성시민의 조직과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성인지 관점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점검, 평가하여 개선하는 과정

사업목적

- 민관의 협력적 젠더거버넌스 구축으로 서울시 정책 성 주류화의 기반 마련
- 현장중심의 성인지 정책 개선안 도출로 서울시정의 성인지성 강화와 정책효과성 강화
- 풀뿌리 여성활동가 조직과 연대, 역량강화를 통한 젠더거버넌스의 시민주체 형성

추진방향

- 서울시와 자치구의 3대 핵심분야 사업(일자리, 안전, 복지)의 성인지성 강화
-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풀뿌리여성조직 발굴과 연대
-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의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성인지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시민사회로 확장

사업운영체계

시민주체 형성	성인지 모니터링	성인지 정책개선안 환류
자치구 단위 시민조직 25개 자치구 단위로 풀뿌리여성조직 발굴과 여성시민조직화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시정 3대분야(일자리, 안전, 복지) 중 서울시 5개 사업, 자치구 103개 사업 선정	**서울시 및 자치구 단위 정책제안 간담회** 모니터링 결과공유, 정책개선안 반영협의
성인지정책역량강화교육 성인지,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방법, 예산 등	**현장모니터링** 사업의 전 추진과정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사업모니터링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젠더거버넌스 운영 및 정책개선사례집 발간
심화워크숍 조직활동리더 교육, 모니터링 활동 멘토링	**성인지 정책개선안 도출** 모니터링 결과분석 워크숍 및 성인지 정책개선안 도출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운영** 젠더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협치민관협의체 총괄거버넌스	서울시협의체 분야별거버넌스	자치구협의체 지역별거버넌스
사업 총괄추진 기구	서울시 단위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자치구 단위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서울시** 젠더정책팀, 협치지원관 ·**민간단체**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전문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젠더정책팀, 사업부서 ·**민간단체**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자치구시민활동조직** ·**전문가**	·**자치구** 여성정책담당, 사업담당 ·**시민활동조직** ·**전문가**

세부 실행 내용

1.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력 강화

1) 서울시 및 자치구 풀뿌리여성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기간 : 5월~12월 중
- 대상 : 자치구 기반의 여성주의 활동조직 27개
- 내용 : 지역기반의 활동단체 발굴 및 조직, 네트워킹

서울시 및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참여단체 현황

풀바람 연계	
동작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보라돋보기
마포구	버들바람
중랑구	초록상상
강동구	함께크는우리도서관 벼와보리
서대문구	하늬바람
은평구	살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정감
구로구	더초록
강서구	강서여성모임
관악구	관악여성회
금천구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강북구	강북여성주의모임
도봉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YWCA 연계	
강남구	인투인연구소
광진구	동서울여성회
노원구	노원여성회
동대문구	동대문다움
서초구	나코치(서초나비코치단)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성북구	성북 바람마당
송파구	동서울여성회
양천구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영등포구	영등포여성회
용산구	용산구 여성모임 미르
종로구	종로사랑정책평가단
중구	초록맘리더봉사단
서울시 과제	밸류가든
	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여성주의 조직이 활동해 온 자치구는 약 12개 곳이고,
  최근 1-2년 간 약 5개 자치구에서 여성주의 그룹이 형성되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기반의 여성주의 모임이 새로 조직되었고,
  기존 조직이 신규 조직을 지원하는 등의 연대를 통한 상호성장이 이루어짐

2)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1)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단 양성교육

- 기간 : 5월~9월 중
- 대상 : 시민활동가 200여명
- 교육횟수 : 50회(자치구 별 또는 자치구 연합교육)
- 내용 – 성인지 감수성교육 : 페미니즘 입문교육
  – 모니터링 실전교육 : 지역예산, 성주류화 정책, 젠더거버넌스 등

- 자치구별로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
- 젠더거버넌스를 처음 시작하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예산, 성주류화 정책, 젠더거버넌스 등 활동과 직결되는 주제로 공통교육 진행

(2) 역량강화 심화워크숍

- 기간 : 6월~10월 중
- 운영단위 : 지역조직별로 운영
- 운영횟수 : 총 68회
- 내용 – 지역활동리더 역량강화워크숍 : 조직화방법론, 거버넌스이해, 조직활동가역량, 회의진행법 등
  – 모니터링 실전멘토링 : 모니터링과제 선정,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활동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안 검토

- 25개 지역별 담당 멘토를 중심으로 각 4회기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계함으로써 시민주체들이 성 인지 관점을 견지하고 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시 및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구축

1) 협치 민관협의체(총괄거버넌스)

- 기간 : 4월~12월 중(월 1회)
- 구성 : 서울시(젠더정책팀, 협치지원관), 민간단체(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전문가(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내용 : 사업 총괄추진기구로서 공동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의사결정), 사업평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 연계 분석 평가 등 실시
- 추진현황 : 총 15회 운영(정기협의체 6회, 상시협의회의 4회, 숙의워크숍 3회)

2) 서울시 협의체(분야별 거버넌스)

- 기간 : 4월~10월 중
- 구성 : 서울시(젠더정책팀, 사업부서), 자치구(해당사업부서), 민간단체(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자치구시민활동조직, 전문가(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턴트, 서울시성평등위원 등)
- 내용 : 서울시 단위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안 협의 기구
  - 사전 간담회 : 모니터링 과제선정, 모니터링 방향 및 부서협조 논의
  - 환류 간담회 : 모니터링 활동결과 환류, 정책개선안 논의 등
- 추진현황 : 사전/환류간담회 11회 진행,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상시협의

3) 자치구 협의체(지역별 거버넌스)

- 기간 : 4월~10월 중
- 구성 : 자치구(여성정책담당, 사업담당), 시민활동조직, 전문가(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턴트 등)
- 내용 : 자치구 단위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안 협의 기구
  - 사전 간담회 : 모니터링 과제선정, 모니터링 방향 및 부서협조 논의
  - 환류 간담회 : 모니터링 활동결과 환류, 정책개선안 논의 등
- 추진현황 : 자치구 사전/환류간담회 46회 진행,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상시협의

- 행정과 시민이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일자리, 안전, 복지의 3대 분야사업의 성인지성을 함께 검토하고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젠더거버넌스를 운영
- '협치 민관협의체(총괄거버넌스)'와 '서울시 협의체(분야별 거버넌스)', '자치구 협의체(지역별 거버넌스)'로 운영

3. 성인지 모니터링

- 기간 : 5월~11월
- 내용
  - 서울시 일자리, 안전, 복지 분야의 사업선정
  - 기획, 집행, 평가 등 사업 전(全)단계에 걸친 성인지성 모니터링
  - 담당공무원 면담, 추진현장 방문점검, 주민당사자 및 사업참여자 인터뷰(간담회, 설문 등) 등
  -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환류(현장기반의 정책 개선안 제안)
- 활동주체 : 각 지역별, 분야별 시민활동가
- 대상과제 : 서울시 5개 과제, 자치구 103개 과제

- 선정기준 – 시정 핵심 3대 분야(일자리, 안전, 복지) 중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
  – 자치구 사업과 연계된 사업
  – 주민참여가 높고 주민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예상되는 사업
- 모니터링 내용
  –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점검
  – 서울시–자치구 사업의 연계성
  – 사업의 성인지성 (성인지 정책 방향 제시여부, 성별특성 고려, 수혜자의 성별차, 성별통계여부, 위원회 구성 등)

서울시 모니터링 대상과제

분 야	사 업 명	담당부서
일자리/안전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시민안전팀
일자리	일자리사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안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개발팀
복지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협력팀
복지	서울시혁신교육지구사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지원팀

자치구 모니터링 대상과제

자치구	사 업 명		
	일 자 리	안 전	복 지
종로구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시민안전의식제고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운영)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2.0추진
중구		– 광희동신당동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 우리동네U건강센터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용산구	–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 자율방범대 지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 노인복지시책사업(실버스포츠페스티벌)
성동구	–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만들기	– 구청사 유지관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광진구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운영	–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 생명탄생의 신비~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건강한 성교육 –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동대문구		– 범죄예방디자인사업(안전마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중랑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 – 공중 화장실 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 생활체육교실 운영 – 자전거 안전교실

자치구 모니터링 대상과제

자치구	사업명		
	일자리	안전	복지
성북구		- 삶터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 놀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아동놀이환경 조성) -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건립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강북구		- 안전문화운동추진	- 드림스타트 - 노인돌봄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도봉구		- 재난복구지원체계구축	-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도봉뉴스 제작
노원구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일반주택자 범죄 제로화 사업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은평구	- 청년창업, 취업지원	- 은평둘레길 걷고 싶은 은평길 조성 - 어린이가안전한 도시만들기	- 대사증후군 관리 원스톱 은평건강관리센터 운영
서대문구	- 마을기업 육성사업		-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중등직업실무체험운영
마포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생활안전교육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양천구			- 목공체험장 운영 -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강서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 봉제산 근린공원 편익시설 정비사업
구로구	- 자활근로사업	- 공중 화장실 개선	-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 가족행복드림
금천구		- 마을버스사업	- 자살예방사업 - 찾아가는 심리상담운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영등포구	-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동작구		- 범죄예방디자인사업 - 공중화장실 개선	- 도시재생 - 동네체육시설정비
관악구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안전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 금연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치구 모니터링 대상과제

자치구	사업명		
	일자리	안전	복지
서초구	- 교육지원센터 운영	-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설치	- 관광정보센터 운영 - 기억키움센터(치매예방관리) - 건강부모 키움학교 (2016년 맘스든든 환류점검) - 반딧불 센터 사업(2016 환류점검)
강남구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융합SW 개발인력 양성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 - 방범용CCTV 신규 설치 사업	- 강남평생학습체제 구축 (롱런아카데미프로그램)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송파구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만성질환교실 운영
강동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여성친화마을조성계획 - 공중화장실 관리계획	- 생활권보행자우선도로
소계	18개	28개	57개
총계	103개		

- 서울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의 활동조직이 모니터링의 주체로 참여

4.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 일시 : 12월 1일(금) 10-12시
- 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25개 자치구 시민활동가, 관심 있는 시민 등
- 내용 - 젠더거버넌스 활동결과 및 성과 공유
  - 젠더거버넌스 활동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원탁토론 및 토크쇼
  - 성인지 정책 개선안을 담은 사례집 배포
  - 젠더거버넌스 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부스운영

-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성과와 민-관 협치의 가치를 시민 및 행정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2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 복지분야

2.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 복지분야

3. 범죄예방디자인사업 – 안전분야

4.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 안전 · 일자리분야

5. 서울시 일자리 사업 – 일자리분야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

1. 활동 의의

- 시정협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은 성인지적 관점과 역량을 갖춘 풀뿌리여성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성인지 정책에 관한 논의를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민관의 협력적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서울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동안 풀뿌리여성단위들이 삶의 기반인 기초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의 경험을 시정협치사업을 통해 서울시 광역단위 정책으로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공무원 및 관련기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개입해 오던 광역단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이 제안될 수 있는 기회가 됨

2. 활동 목표

- 2017년 시정 핵심 3대분야인 일자리, 안전, 복지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젠더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서울시정의 성주류화에 기여
- 현장중심의 정책개선안 도출로 서울시정의 성인지성 강화와 구체적 정책효과성을 재고
- 풀뿌리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실질적 정책개선 및 거버넌스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3. 활동 흐름

대상사업 선정	사전간담회	모니터링활동	정책제안간담회
민간주체+ 젠더정책팀+ 소관사업부서	민간주체+ 소관사업부서+ 젠더정책팀	민간주체(+멘토) + 기초활동공유 + 광역자료분석 + 현장모니터링 + 개선방안워크숍	민간주체(+멘토) 젠더정책팀 + 성평등위원등 + 소관사업부서 + 관심 참여자

4.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및 방식

- 기초단위 모니터링 대상사업과 연계하여 모니터단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 일자리, 안전, 복지분야 사업 중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고려
- 민간주체와 젠더정책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

모니터링 대상 선정과제(5개)

분야	사업명	비고
복지	서울시혁신교육지구사업	
복지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안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일자리/안전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일자리	일자리 분야 자치구 과제 종합	

5. 활동 평가

-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마련한 정책제안간담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정책제안간담회를 통해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과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차원의 거버넌스인 성평등위원회가 만나 논의의 교차점을 찾고자 한 방식이 긍정적이었음

- 그러나 일부 대상사업의 경우 서울시 소관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활동이 지연되거나, 소관사업부서의 참여 없이 결과공유회가 진행되기도 함.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젠더거버넌스사업이 칸막이를 넘어 긴밀히 연계된다면 모니터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광역단위 모니터링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시기의 문제, 기초단위 대상사업 선정과의 연계방식 등에 고민이 필요함

- 광역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문가(멘토)와 지역활동가가 대상사업 분야별 젠더이슈 점검,
  기초단위 모니터링 내용 공유, 개선안 마련 등을 함께 논의하는 워크숍이 더욱 의미가 있었음

-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기초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지점에서 한계를 발견함. 서울시가 마련해 제공하는 기준/매뉴얼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함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찾동사업(마을분야) 등 마을단위로 내려갈수록 참여자 다수가 여성임에도 의사결정과정의 여성참여는 확보되지 못하거나, 성인지관점이나 여성대표성에 관한 왜곡된 반문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여전함

- 각 사업별 세부 모니터링 지표 등은 별도로 발행되는 결과보고자료집에서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음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분야	복지
서울시 담당부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지원팀
연계자치구	서초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북구, 구로구, 서대문(8곳)
멘토	장이정수(중랑마을넷 대표), 김선희(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개요

-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2013년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혁신교육지구로 시범 운영되다가, 2014년 '서울시와 교육청의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 공동선언'을 통해 2015년부터 시-교육청-자치구-민관 거버넌스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목표는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 교육 공동체'형성임. 사업의 필수과제로 ① 마을-학교 연계, ② 청소년 자치 활동, ③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④ 지역특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17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개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서울시 92억 원, 시교육청 102억 원, 자치구 128억 원으로 총 322억 원 규모임

모니터링 활동

- 마을-학교 연계사업, 민관학거버넌스와 지역특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8개 자치구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민간주체 구성 지역 중 구로/강북/서대문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지 3년차 이상, 마포/동대문/영등포는 2년차, 서초/용산은 1년차 사업대상지역임
- 서울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간담회와 5차례의 워크숍을 통한 논의를 토대로 정책제안간담회를 개최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성인지정책간담회

일시/장소	10/26(목) 14:00 서울YWCA 다목적실
주관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진행	김연주(서울시 젠더정책팀장)
발표	젠더거버넌스 운영경과보고
	자치구별 모니터링 사례 발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성인지 정책개선안 제안
토론	김현종(서울시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지원팀 주무관)
	박정이(마포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단장)
	목소희(서울시 교육청 성인권정책전문관)
	이현주(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개선안 제안

모니터링결과	– 여성들은 아동청소년 교육의 주 담당자이고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운동의 참여자로서 광범위하게 교육혁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많은 사업들에 묻혀 심하게 소진되거나 갈등상황에 놓여 있었음 – 진정한 마을·학교 공동체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혁신의 내용도 방법도 여성주의적 가치가 없다면 실현되기 어려움
개선안	– **거버넌스에서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 자치구의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실행추진단 구성원의 성별비율은 여성이 많았으나 운영협의회와 실행추진단 민관학 공동대표, 공동추진단장들은 모두 남성이 경우가 많았음 – **마을학교 프로그램 및 사업 담당자와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필요** 수 백여 개의 마을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기본적인 성 평등이나 인권교육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단순 문화 프로그램 비중이 높았음. 성 평등교육이 혁신교육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함 – **혁신교육지구에서 여성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기존 교육정책에서 여성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가 아닌 단순 보조자로 취급되었던 한계를 극복해야 함. 여성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저비용의 마을 방과후 시스템 구축과 형식적인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노력이 요구됨.

서울시 반영의견

–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대표자에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여성과 남성 대표를 각 1인씩 선출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민관협의체이므로 장기적인 검토와 공동 논의가 있어야 함**

–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과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한국YMCA가 협업하여 학생·교사·학부모의 성인지 인권 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141개 학교 46,000여명이 참여하였음**

– **성인지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마을분야)

분야	복지
서울시 담당부서	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협력팀
연계자치구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성동구(7곳)
멘토	서민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박계현(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사업개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리적 공간이자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행정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2015년 7월에 시작되어 복지/마을/건강/여성분야/자치행정 분야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찾동사업에서는 인권/성인지/협치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음
- 찾동의 마을공동체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펼쳐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구 중심의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동 단위 마을생태계로의 확산을 시도함. '주민주도 마을계획'은 주민의 직접 참여와 실질적 권한 부여를 위한 활동으로, 이를 통해 주민자치적 마을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모니터링 활동

- 찾동사업(마을분야)을 광역 모니터링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소관사업부서와의 사전간담회(7/31)를 통해 사업계획과 내용 파악 및 관련자료를 수집함
- 찾동사업(마을분야)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자치구는 1단계는 금천/성동, 2단계는 서대문/마포/동작/동대문, 3단계는 서초지역이며 이중 서초지역만 일부동에서 '주민참여지원사업'을, 나머지는 '마을계획사업'을 실시함
- 4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마을계획사업의 모니터링 방향을 위한 기본점검 목록을 작성하여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함.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은 참여자들의 욕구에 기반 해 찾동사업(마을분야)의 성별 요구도와 성별형평성, 마을계획단 및 거버넌스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성인지정책간담회

일시/장소	11/2(목) 14:00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
주관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진행	박계현(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발표	젠더거버넌스 운영경과보고
	지역별 성인지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안 논의
	을공동체사업의 여성주의 필요성 제안
토론	양윤미(서울시 마을협력팀 주무관)
	김연순(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개선안 제안

모니터링결과	– 찾동사업(마을분야)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된 것은 마을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대표성에 관한 지점이었음. 마을의 돌봄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만을 재생산하는 문제가 크게 지적됨 – 현재 서울시 찾동사업은 '복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에 참여한 상당수의 여성주민들이 마을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음. 서울시는 '인권, 성인지, 협치'를 찾동사업 비전의 주요가치로 제시하고 있고 각종 매뉴얼도 작성되어 있으나, 동 단위 현장에서 "매뉴얼은 힘이 없"었음 – 2017년 찾동사업에는 방문간호사의 안전, 고령여성 역량강화 실버액션단 시범사업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세부사업이 있으나, 모니터링 대상지역에서는 구체적 실행을 파악하기 어려워 모니터링 내용에는 포함되지 못함
개선안	**– 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여성이 남는 시간들을 활용해 자원봉사를 하는 방식이나, 혹은 시간제 일자리가 가졌던 모순들을 마을계획단 사업안에서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있음을 확인함 **– 홍보의 다변화, 의사결정 및 행정구조의 성별 특성 반영** 마을에 필요한 의제가 골고루 선정되려면 그 구성원이 다양성과 의사수렴의 결정권을 가져야 함. 특히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자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래야만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이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마을 활동가 및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와 성별분리통계 확대** 주민을 직접 만나는 마을사업전문가와 담당자, 구추진단 등 마을사업관계 공무원, 민간전문 촉진자 등 마을사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필수적임

서울시 반영의견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마을안에서 여성들이 안전한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고 젠더 임파워링을 위해 찾동 마을사업 프로세스 가이드와 주체별 교육 방안을 모색하겠음

홍보의 다변화, 의사결정 및 행정구조의 성별 특성 반영

– 찾동 마을사업 홍보 시 지역 내 복지관, 초등학교, 유치원, 공원 등과 아파트, 지역 모임, 지역 마을공동체 행사, 동주민센터 내방자 대상 홍보, 예비군훈련교육, 전세대 안내문 발송, 구정소식지, 마을미디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음

– 마을계획은 '마을계획단 운영규칙' 제정과 마을계획단 리더 선출과정, 논의와 합의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적 의사소통을 지향하고 있음

마을 활동가 및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와 성별분리통계 확대

– 찾동 마을계획, 주민참여지원사업 성별분리통계 실시하고 있으며, DB구축과 모니터링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를 통해 내용 공개하고 있음

– 마을계획단은 성별과 연령, 국적 등으로 참여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적 구조임

– 업무매뉴얼과 촉진자가이드북에 성인지분야를 담고 있고 현장 찾동 참여자의 성인지의식 강화교육 방안을 논의중임

3.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분야	안전
서울시 담당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개발팀
연계자치구	서대문구, 양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7곳)
멘토	황은정(이화리더십개발원 연구원), 오나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사업개요

-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예방하는 것을 말함. 서울시는 2012년부터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2017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환경의 열악성 보다는 지역유형별로 범죄예방디자인 모델과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선정함

모니터링 활동

-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서울시 해당부서와의 사전간담회(7/25)와, 2회에 걸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자치구공유회의 참관(7/27, 8/31), 4회의 모니터단 워크숍을 거쳐 성인지정책간담회(11/16)를 개최함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성인지정책간담회

일시/장소	11/16(목) 14:00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주관서울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진행	오나경(서울여성가족재단 과장)
발표	젠더거버넌스 운영경과보고
	지역별 성인지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안 논의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정책개선안 제안
토론	강효진(서울시 디자인개발팀장)
	강은영(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미경(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개선안 제안

개선안	–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기획, 추진,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주민의 성 평등한 참여가 필요**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공모 시 주민동의와 시설물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주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외부 TF팀을 구성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초기에만 운영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주민의견수렴도 주로 관에서 쉽게 접근, 협조 가능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거나, 주민설명회 및 욕구조사 등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짐. 주민설명회 및 욕구조사에서 연령, 성별, 계급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필요함. – **범죄예방디자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계획 수립**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이 필요함. 올해 모니터링 지역에서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예산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후관리 미흡으로 누적한 시설물 방치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남. 서울시가 공모 접수 시 현실적인 사후관리 계획, 예산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 협력과 사업의 방향성 공유**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과 관점의 차이에 관한 부분이었음. 서울시가 범죄예방디자인 패턴과 모델을 찾아 기초를 다지고 유형화하여 표준모델을 배포(지침, 예산지원)하는 것은 유의미함. 또한 자치구는 실제 문제해결로 들어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내야 하므로, 지역성과 현장성에 기반해 철저하게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면 자치구의 경우 사업담당부서와 조직체계가 제각각이라 소통과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이 발견됨. 그 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 효과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음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계 대안 모색**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단순히 디자인 시설물의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유지관리를 더 고민해야하며, 제공한 안전시설물의 활용법 설명을 넘어 주민 스스로 안전의 개념을 깨우쳐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기초단위 모니터링 양천구 신월3동 경인어린이공원 사후관리 사례가 참고할 만 함

서울시 반영의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의 거버넌스와 협업을 검토할 계획임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5년차로 접어들면서 시설물의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 예정임

– 올해 성인지 모니터단으로 활동한 거버넌스의 인력과 조직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과 협업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서울시와 자치구, 부서 협력과 사업의 방향성 공유가 매우 필요함

주관 부서로서 디자인정책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하겠음

4.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사업

대상사업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사업
서울시 담당부서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시민안전팀
민간주체구성	동작, 중구, 도봉
멘토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사업개요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은 서울시민의 1%인 10만명에게 8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위험·위기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인 '안전한 도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 포함되어 〈10만 시민안전파수꾼〉양성 종합대책(2015. 4. 26.)이 제시되었고, 2015년 서울시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됨. 2016년에는 시민자율 위기대응 조직화로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설립됨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 2017년 예산은 566,975천원이며, 2018년 신청안은 407,920천원으로 159, 055천원 줄어들었음. 참고로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예산은 2017년 1,235,707천원, 2018년 신청안은 1,178,397천원으로 57,310천원 줄어들었음

모니터링 활동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이기도 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사업부서의 제안으로 광역 모니터링 대상사업에 포함됨
- 사업계획 및 강사양성계획, 길라잡이 교재 등 관련자료 분석,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과정 참여 현장 모니터링, 시민강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기초단위에서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교육 참여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모니터링 활동 공유 및 정책개선안 워크숍을 진행함

10만 시민안전파수꾼사업 결과공유간담회

일시/장소	11/29(수) 16:30 서울YWCA 다목적실
주관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진행	박신연숙(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운영위원)
발표	젠더거버넌스 협치사업 소개
	성인지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안 논의
	서울시 정책 개선안 제안
토론	서울소방재난본부, 젠더정책팀, 모니터활동가

개선안 제안

개선안	**– 재난안전 소관부서에 재난약자 정책대응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젠더관점에서의 연계**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젠더관점에서의 재난안전 자료들이 급속하게 관련자료가 생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된 「시민안전파수꾼 길라잡이」 교재에는 일반적인 상황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있어 성인지적 재난안전대응지침 등 관련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함 **– 시민안전파수꾼 사업명부터 교육내용까지 젠더관점에서의 보완 필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양성된 시민안전파수꾼은 남성 49.76%, 여성 50.24%(11월15일 기준)으로 성별수혜비율 격차는 크지 않음. 그러나 교사 등 의무교육 대상 외에 일반 여성시민들은 재난안전교육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교육 참관 시에도 '건강한 성인 남성'이 교육대상과 안전의 주체로 전제되어 있어 여성이나 재난약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할수 있는 다양한 설명이 필요함.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 시 성인지에 관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임. 기타 기본적인 재난안전교육과 시민안전파수꾼 사업과의 단계적 배치, 마을활동가나 혁신활동가 대상 교육과의 연계 등 구체적 개선안 제안은 모니터활동결과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함

서울시 반영의견

– 시민안전파수꾼은 재난시 초기대응을 통해 나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은 물론이고 재난약자(여성, 아동, 장애 등)를 위한 재난대응 교육이라고 해도 무방함

–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및 체험과 관련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재난약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상황별 대처방법 및 체험과정에서의 설명을 보강할 예정임

–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의 주체를 재난약자들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하여 재난약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일자리사업

분야	일자리/안전
서울시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연계자치구	종로구, 강남구, 강서구, 중랑구,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송파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은평구(16곳)
멘토	송문이(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사업개요

- 서울시 일자리사업은 주로 청년·여성·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대상별로 편성된 직접·간접사업을 중심으로 함. 일자리사업 2017년도 예산규모는 9,972억원 규모이고 일자리 창출 목표는 323,116개임
-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은 뉴딜일자리/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일자리, 저소득층은 공공근로, 중장년은 사회공헌일자리 등으로 구성됨
- 서울시는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비전을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보장을 통한 경제력 강화'에 두고 있음. 종합계획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 기반확대'와 '일 전망 수립 및 지속고용 지원'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사각지대 근로조건 개선 및 일 지원',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자립 강화',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진입 지원망 구축', '일 경험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 5개 정책 영역을 제시함

모니터링 활동

-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은 각 자치구별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고,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모아진 개선안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가 마련되었으나, 소관 사업담당부서의 참여 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한 민간단위와 젠더정책팀만 참여함

서울시 일자리사업 성인지정책간담회

일시/장소	11/15(수) 14:00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주관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진행	김연주(서울시 젠더정책팀장)
발표	젠더거버넌스 운영경과보고
	지역별 성인지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안 논의
	서울시 일자리사업 성인지 정책개선안 제안
토론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선안 제안

개선안	– **여성 청년 일자리 지원에 성인지성 고려 부족** 서울시비 100%로 운영하는 은평구 '청년 창업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는 청년상인 2명이 모두 여성인데, 모니터링 결과 공간에 대한 안전성, 접근성, 정보성이 취약하여 여성 청년들이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확인됨. 청년 지원 사업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한 공간 환경을 제공하고 입지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맞춤 컨설팅,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 직접 일자리 지원 중심 일자리 사업의 한계** 서울시 일자리사업은 여성과 노인 대상 사업의 경우 절대비중이 직접 일자리사업이고, 청년 대상 사업도 직접 일자리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직접 일자리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널리 확인되고 있는 바, 광역지자체가 선도할 효과적인 일자리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함 **–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 필요** 일자리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이 거의 모든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됨. 당사자인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해결을 위한 방안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논의의 장 마련을 제안함 **– 사회적경제 영역의 여성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노원구 및 마포구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원이 취약한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됨

서울시 반영의견

직접 일자리 지원 중심 일자리 사업의 한계

– 직접일자리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인턴, 창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는 예산 및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간접일자리 ' 부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 필요

– '저출산대책 일자리분과 정책토론회('17. 11. 14.)'를 개최하여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사업장 대표,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를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영역의 여성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

–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해 여성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전문성과 지원 규모가 부족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단의 협동조합지원센터와의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17년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단 협동조합지원센터로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3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종로사랑정책평가단

종로구 민간주체

종로사랑정책평가단

8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있으며, 9년째 구청의 행정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정책평가단활동을하고 있는 팀이다.

활동가 장성희, 이문정, 안순화, 홍미영, 최고운, 윤희순, 이숙희, 김은주

멘 토 장명선교수(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01 종로구

종로구의 젠더거버넌스

종로구는 구민 정책평가단을 운영하며 정책평가와 개선과정에 주민과 함께해왔으나,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인지 관점의 정책모니터링의 경험은 처음으로 서울YWCA와 함께 모니터링 활동팀 구성과 교육, 모니터링 사업선정과 평가 등의 전 과정을 협력하여 운영하였다. 주얼리 관련 일자리창출사업 등 종로구의 특성이 담긴 지역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안전, 복지 분야의 4개 과제를 모니터링 하였다. 젠더거버넌스 전 과정에 여성가족과 담당 주무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일부 사업주체의 경우 성인지 모니터링에 대한 낮은 이해와 거부감, 위탁사업에 대한 행정의 낮은 재량으로 인해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02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지원과	복지
03	**주민행복드림 프로젝트 추진**	사회복지과	복지
04	**시민 안전의식 제고**	안전치수과	안전

01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종로구 |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패션 주얼리 스타트업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자 중 패션주얼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40명 대상
운영기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예 산 100,000천원(정부보조금 70,000천원 , 자치단체대응자금 30,000천원)

모니터링 개선안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필요
귀금속분야 사업이다 보니 여성참여자들이 대다수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어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사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남녀의 성비가 같을 필요는 없으나 특정 직종, 특정 단체에 특정 성별만 접근할 수 있다는 성별고정관념이 특정 성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적극적이고 장기적인(6개월 이상) 취업자 사후관리 필요
여성들이 본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개선 필요
수유실, 여성휴게실 마련 등, 성별욕구에 따른 편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환경 개선 필요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수유실과 여성휴게실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좋겠음

위탁사업 담당자 성인지교육 의무화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업담당자들이 성인지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고 지속적인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함

반영의견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관특성상 참가자 모집이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특정 성별에 집중하여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전체적인 일자리사업 참가자의 성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남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센터에 전달하겠음
- 센터실무자 대상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려하겠음

02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로구 | 복지 | 복지지원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무료목욕탕 운영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예 산 21,000천원(2016년 기준)

모니터링 개선안

운영 위원회 성비 개선
운영위원 8명 중 남성 7명, 여성 1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운영위원회 성비를 최소 남녀동수로 개선해야 함

복지관의 접근성 강화 대처방안 강구 필요
복지관이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해있어 겨울에 눈이오면 미끄럽고 위험하며,
셔틀버스 이용도 불편해 복지관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보행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오래된 셔틀버스 교체
높고 경사진 곳에 위치한 복지관의 이용자 대다수가 고령자로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이나,
이용자 수에 비하여 버스가 작고 노후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 셔틀버스의 교체가 필요함.

남성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대부분의 이용자는 여성임. 노숙인을 위한 사업(수건, 속옷, 비누 등 제공)외 무료 이발소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남성 이용자 수가 많이 늘지 않는 현실임.
남성어르신의 참여가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개선해야 함

반영의견

위탁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이 제한되어 있으나,
모니터링 의견을 전달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03

주민행복드림아카데미(지역특화사업)

종로구 | 복지 | 사회복지과

사업개요

행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인행복실천과제를 매주 진행하고 주관적인 행복의 개념을 객관화하여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종로구 행복지도를 구성하여 이후 종로구만의 행복지표와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는 사업

모니터링 개선안

소수의 참여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교육 특성상 여성이 다수인 점을 적극 고려하여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제안. 이 경우 교육 이후 실천 활동과도 연계가 용이할 것임. 혹은 동일한 교육을 낮 시간과 저녁시간에 2회 진행한다면 참가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기회 확대에도 의의가 있을 것임

남성참여율 확대 방안 필요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의용소방서' 등 남성들이 활동하는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구청에서 문자를 발송하여 홍보하는 것 제안
남성 참가자들이 존재하나, 1회 수업 이후에 다 이탈하여 수료자가 많지 않음. 1회기 진행 후 각 성별로 프로그램을 별도 진행하고, 적응 후에 1~2회 정도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 제안

구체적인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수료 이후 진행되는 설문조사의 내용 자체는 좋으나, 27명의 수료자 중 15명의 응답만 존재. 의무적인 참여로 설문조사 시스템을 변경하여, 다음 사업개선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함. 종로구 전체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야 하며, 참가자들의 지역별, 세대별, 성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반영의견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처음부터 저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보를 접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프로그램 특성 상 활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남성분들이 이에 익숙지 않아 이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방대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이것이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후 실천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다보니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자체보다도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04

시민안전의식제고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종로구 | 안전 | 안전치수과

사업개요

각 지역의 안전위해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방향 지역주민, 시민단체 중 재난안전분야에 역량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모집하여 계절, 시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무를 부여하여 구의 안전을 도모

사업내용 재난징후, 시설물안전,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감시단원들이 감시하고 신고하면 구청에서 즉각 개선

모니터링 개선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제안

2016년에는 성비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여성이 과반수 이상임.
홍보는 잘 진행되었으나 3년째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성 이탈.
여성들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지역 위주로, 남성들은 건물 위주 위험지역을 감시하고 있었음.
내년도에는 여성들은 통학지역 위주로, 남성들은 경사로 등의 위험성을 감시하면 좋을 듯 함.

주간활동에 편중된 점을 보완 제안

감시지역은 각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어떤 곳은 좁고 치안이 좋지 않은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음. 골목이 많고 위험한 곳의 경우 단원들도 야간감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귀갓길 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귀가 사업, 방범대 사업 등과 연계한 활동을 고려하면 좋겠음

반영의견

"시민안전감시단활동가들이 자율적으로 주간에 활동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활동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활동 내용이 도로 파손이나 가로수 훼손 등을 신고하는 재난 안전활동으로, 야간 치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밤길 가로등 점검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논의하여 보고, 다른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초록맘리더봉사단

중구 민간주체

초록맘리더봉사단

친환경비누를 만드는 5명의 여성주민들과 시민활동분야에 관심이 많은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이번에 처음 모이게 되었다.

활동가 양재연, 전화정, 박지은, 김미정, 이주용, 김혜리

멘 토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02 중 구

중구의 젠더거버넌스

중구는 고령화된 지역특성상 풀뿌리여성조직자원이 없어 시민주체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모니터링 과제도 3번이나 변경되는 등 활동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안에 대한 반영이 즉각 이루어져 주민밀착형 공중화장실 개선에 성공한 자치구이다.
중구청 여성가족과도 젠더거버넌스가 처음이라 민관협치에 대한 우려로 초반에는 민-관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주저하였지만, 추진과정에서 서울YWCA와 함께 모니터링 사업 선정과 평가 등의 과정을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여성가족과와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위탁사업은 행정의 재량권이 낮아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모니터링단도, 행정도 첫 시도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모니터링이었다.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신당동·광희동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자치행정과	복지
0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	여성가족과	복지
03	**2017년 참여형보건지소 운영계획 : U건강센터 운영계획**	건강도시과	복지

05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중구 | 복지 | 자치행정과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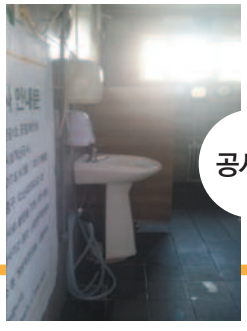
세부사업	신당동·광희동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	남녀화장실 분리공사 및 전면보수(신당동)와 노후된 시설환경개선(광희동)
위 치	다산로 33다길 25, 마른내로 166
예 산	140,000천원(시 주민참여예산)

통장, 공무원, 시설공사 책임자와 시민모니터활동가들이 함께 모니터링 의견을 토대로 화장실 공사 설계도를 변경

모니터링 개선안

신당동 공중화장실
- 주택가에 위치하여 상인 및 주민이 많이 이용
- 골목에 위치한 남녀공용화장실로 여성주민들은 이용에 다소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음.
  화장실 중앙에 설치된 비상벨을 화장실 각 칸마다 설치하여 심리적 불안과 위험 해소 필요
- 화장실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미관을 해침

광희동 공중화장실
- 운전자 및 상인들의 이용이 많음
- 정화조 환기구가 칸마다 설치되어있어 철저한 청소에도
  악취가 심하여 악취원인의 근본적인 제거 필요



공사전

개선안 반영결과

신당동 공중화장실
- 화장실 조도개선 및 밝은 색의 도배 시행
- 위험상황 시 소리를 지르면 비상벨이 울리는 시스템 운영
- 화장실 건물 위 물탱크 철거

광희동 공중화장실
- 악취제거를 위해 화장실 실내의 정화조 환기구를 밖으로 빼도록
  설계 변경하여 공사완료

공사중

0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

중구 | 복지 | 여성가족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복귀 촉진 등

사업대상 만 13세~ 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혹은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운영기관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모니터링 개선안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인 만큼, 학교공부에 거부감이 있는 청소년이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직업체험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전환 필요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청소년들이 센터프로그램에 이탈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며, 이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제안

홍보 강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관시설환경 구성이나 홍보물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매력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홍보물 방법에 변화를 꾀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 센터 내 건의함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음

만족도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조성 필요

센터 이용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제안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설함으로써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제안

청소년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실시하는 보건지소 운영(u-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했으면 함

07

2017년 참여형보건지소운영계획 : U건강센터 운영계획

중구 | 복지 | 건강도시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주민밀착형 건강환경조성으로 만성질환 통합 예방관리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유헬스장비를 활용, 연중운영
약수지소, 황학지소, 다산지소, 필동U건강센터, 청구U건강센터에서 운영 진행중이며 담당간호사 상시배치

사업대상 19세 이상 중구 거주민

예 산 97,000천원(지방비 100%)

모니터링 개선안

1. U-건강센터의 접근성 강화
데스크 높이를 낮추어 주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반영의견] 명패를 이용하고 있음

2. SNS홍보 · 포스터 부착 · 팸플릿 제작 · 소모임 및 주변 직장과 연계 등으로 주민 홍보 강화
[반영의견] 반영진행 중

3. 계약직 간호사 고용 안정화
간호사, 상담사 등 종사자 대부분 여성이나, 고용 불안정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보임
[반영의견] 예산문제로 즉각 반영이 어려우나 반영진행 중

4. 분야별 통계 산출 및 사업평가 시 질적 지표 추가
성별, 연령별, 동별 통계를 산출하여 사업수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신규등록자 수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도 평가 지표에 포함
[반영의견] 반영 확정

5. 중증질환 및 고령 노인 등 센터 방문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반영의견]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며 반영진행 중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 소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 한 가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제로 선정되면서 처음 접하게 된 성인지관점은 개념자체부터 낯설었고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실시한 성인지 교육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은연중에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성인지라는 개념 및 사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에 중구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사업으로도 선정되어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는데 외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평가 받음으로써 추후 사업 운영 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미래도시 용산 Harmonious Yongsan

용산구 여성모임 미르

용산구 민간주체

용산구 여성모임 미르
용산구에서 자원봉사활동과 북카페 운영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지역주민들로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위해 함께하게 되었다.

활동가 박미향, 최순임, 정윤자, 백현숙, 임희정, 홍성희, 송보명
멘 토 서민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용산구의 젠더거버넌스

용산구는 고령의 중산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풀뿌리 여성조직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여성모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자치구이다.
초반에는 행정과의 협력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서울YWCA와 모니터링을 하였지만 중반에 행정이 함께 협력하게 되면서 협치의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하였다.
민관 모두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인지 관점의 정책모니터링은 처음이었지만,민은 성인지교육과 예산교육,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관은 민과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03 용산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청소년자치활동지원	인재양성과	복지
02	자율방범대 활동	자치행정과	안전
03	노인복지시책사업 :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사회복지과	복지
04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08

자율방범대 활동

용산구 | 안전 | 자치행정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2017년도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사업목적	관내 취약지역 방범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도모
지원대상	동자율방범대 18개대
예 산	75,600천원

모니터링 개선안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자율방법활동을 하다보면 야간에 술에 취한 여성들을 부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등을 포함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함

여성가족과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추진하기로 결정!

여성자율방범대원도 모집해야

기존의 방범대원은 80% 이상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방범활동은 우리동네에 애정을 가진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봉사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있으나, 여성대상의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들의 활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기로 함

09

노인복지시책사업-실버스포츠 페스티벌

용산구 | 복지 | 사회복지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용산구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사업목적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들의 특기를 펼치는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및 건강한 생활에 기여
사업내용 공연, 기념식 및 표창, 실버스포츠 경연, 이벤트행사
예 산 15,000천원(구비 100%)

모니터링 개선안

노인복지 기여자표창 선정기준에 성인지성을 추가
성인지성이 결여된 후보자의 경우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에 성인지성 항목을 추가해야 함

표창선정기준에 성인지성을 추가하겠음

참가경연팀의 성별요구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참가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노인들도 댄스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별요구도에 따라 사업을 개선해야함

성별요구도에 따라 사업을 개선하겠음

공무원과 담당자 인터뷰 진행

10

마을기업 육성사업

용산구 |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마을기업육성

사업목적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운영

사업내용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기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예 산 8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모니터링 개선안

성별통계를 바탕으로 성별요구도를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해야함

금년도 분석평가서 작성시 성별통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기업 대표, 종사자 등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마을기업들이 1년 만에 사라져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마을기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간담회시 2년차 이상의 연속사업 대상이나 기존 신청자중 탈락자를 대상으로는 하는 컨설팅 및 지속적 교육을 제안 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되고 또한 용산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

용산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청소년자치활동지원-꿈과 끼를 키워주는 동아리활동지원

용산구 | 교육 | 인재양성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 꿈과 끼를 키워주는 동아리활동지원

사업목적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여 연극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 양성
청소년들이 끼와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도록 지원

사업내용 발성 및 연기연출지도, 자체 기획 공연준비 등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매우 방대하여 특정학교 동아리활동지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모니터링 개선안

교육혁신지구사업 참여자(학부모, 위원, 교원 등)의 성별통계 산출 및 관리 제안
성별통계를 내야만 성별요구도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음

지원조례 마련 필요
다른 자치구 중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지원사업 조례가 마련되어있는 곳들이 많으나,
용산구는 1년차인 만큼 차근차근 조례를 준비하길 바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필요
서울형교육혁신지구 사업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므로, 인터넷,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

관련자료 홈페이지 공개 게시하기
회의록과 회의자료, 사진 등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여, 용산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페미니즘 교육과 동아리 활동지원프로그램 마련 제안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성 평등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연극부 학생과 교사인터뷰

담당 공무원과 혁신교육지구추진위원 인터뷰

성동구

성동구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성동구 민간주체

성동구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성동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는 성동구 내의 여성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제안,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모니터링,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 지역사회의 사업파트너로 활동 하고 있으며 이번 젠더거버넌스에서 8명의 서포터즈 회원들이 모니터링활동을 함께 했다.

활동가 나유숙, 박찬미, 이영주, 신명수, 윤미애, 임현주, 최희순, 김수미

멘 토 서민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04 성동구

성동구의 젠더거버넌스

성동구는 이번 협치사업을 계기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젠더거버넌스를 처음으로 시민모니터링단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와 모니터링과제 선정, 워크숍 등 모든 과정에서 민관이 숙의와 협의과정을 거쳤다. 여성가족과 주무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자료협조, 공문 발송이 원활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간담회에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정책간담회 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환류까지 결실을 이룬 자치구이다.

성인지 정책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처음이었던 성동구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는 교육에서부터 지속적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했다. 모니터링단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키보드자판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쓰는 게 생소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디자인 팀의 경우 범죄예방디자인조성사업지역 주민 45명을 인터뷰하는 등 더운 여름날 발로 뛰며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시민역량강화와 민관협치의 경험, 민관의 신뢰구축,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성동구의 민관 모두 성숙할 수 있었던 시작이었다.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만들기	도시계획과	안전
02	구청사 유지관리	총무과	복지
03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0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공동체 조성)	마을공동체과	복지

12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성동구 | 안전 | 도시계획과

우리 동네 범죄예방디자인, 정말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을까?
용답동과 사근동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주민 45명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설문인터뷰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안하다!

모니터링 개선안 및 반영의견

범죄예방디자인시설물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시설물, 벽화 그려진 장소의 쓰레기 투기 문제 발생 및 흉물스러운 현수막 방치
→ 반영완료

여성안심귀갓길 표식 명시화 필요
사근동과 용답동 두 동의 비교 시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는 바닥에 표식이 용답동에는 있으나 사근동에는 없어 두 동간의 사업추진 편차가 발견됨
→ 반영완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인지도 확대 필요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많았음
→ 반영예정

사업설명회, 수요조사 등 사전, 사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반영예정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추가적 요구사항 – 경찰순찰횟수 증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경찰들의 순찰횟수 증가였음.

반영의견 : (장담할 수는 없지만) 치안강화차원에서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자율방범대'. '안심귀가스카우트'와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음

13

구청사 유지관리

성동구 | 복지 | 총무과

여성의 시선으로 공간의 정치학을 다시 짜다
구청의 화장실과 수유실 집중 모니터링!

모니터링 개선안 및 반영의견

구청 내 수유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 만들기
수유실이 외진 곳에 위치해있어 구청방문 주민들이 수유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함
→ 반영완료

구청 내 수유실에 필요용품 구비 필요
휴지통과 분유를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아이를 눕힐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침대가 필요
현재 있는 침대는 갓난아이만을 눕힐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작음
→ 반영완료

성별요구도 차이를 반영하여 더 넓은 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변경
현재 구청의 1층 화장실 공간은 남자화장실이 더 넓고 변기의 개수도 더 많음.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과 이용시간이 긴 것을 고려하여 1층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를 바꾸어야 함
→ 공사진행 중

여자화장실과 안내데스크에 위생용품 비치
구청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
→ 반영완료

화장실 별로 유아동반자를 위한 유아변기 커버를 비치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공간에 유아변기 커버를 설치하여 유아동반자들을 위한 시설물 개선
→ 반영완료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만들기
위생, 미관상 쓰레기가 누적되어 관리가 쉽지 않은 화장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변기에 휴지를 버릴 수 있는)을 제안함
→ 1층 화장실 시범운영

담당 공무원 의견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 좋네요.
저희 1층에 북 카페 조성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4

희망일자리 센터 운영관리

성동구 | 일자리 | 일자리정책과

불안정한 여성일자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모니터링 개선안 및 반영의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홍보 필요

→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요 장소에 희망일자리센터 홍보 현수막 설치 및 성동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 강화 계획

구직보다 배움터 조성 필요

→ 배움터를 통해서 취업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중. 현재 시행중인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교육, 가죽공예 및 수제화 교실, 영화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디지털 메이커스 과정이 있으나 앞으로 중고자동차 평가사 양성과정, 컴퓨터 코딩선생님 양성과정, 실버바리스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

일자리센터 내부 인력충원 필요

→ 인력충원 문제는 구청 전반적인 인력운영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다만, 보조인력(공공근로 등)의 충원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

여성전용 일자리센터 운영 및 적절한 환경 조성 필요

→ 현 일자리센터에서 여성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있긴 하나 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짐. 다만 상담자들이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보조인력에 대한 응대 교육 및 사무실 환경을 밝게 꾸미도록 계획은 가능

15

찾아가는동주민센터(마을공동체조성)

성동구 | 복지 | 마을공동체과

마을공동체 활동주체는 대부분이 여성,
여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우리동네를 만들 수 있으려면?

모니터링 개선안 및 반영의견

행정과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대등한 협업관계 구축의 필요성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범사업 일정에 따라 주민(이 받아들이는 속도)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음
- 서울시 지원이 종료되고 2017년 7월부터 자체 확대 시행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현황 및 주민 정서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
- 1단계 사업(2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타 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반영예정

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

- 서울시에서 파견한 전문촉진자 활동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 4개동 확대 추진에 따라 「마을계획 역량강화 지원 촉진자 운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별 촉진자가 상시적인 컨설팅, 자문, 교육 등을 진행 중

→ 반영완료

성인지 교육이 필요

- 마을계획단 대표는 성비 보다는, 마을활동 경험이 많고 민주적 리더십을 고려하여 선출되는 경우가 많음(동 상황에 따라 다름)
-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 여성, 주부들이 리더로 많이 등장하고 운영위원회, 실행사업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찾동 사업에서 성인지 관점은 금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추진 예정

→ 반영예정

④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하여 인식 개선 확산

- 직원 중심의 소극적 홍보에서 참여주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홍보 방법들이 증가하고 있음
- 주민 참여적 글쓰기 교육과 마을활동 기록집 발간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참여사례 공유 및 확산으로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반영완료

광진구 | 서울여성회 동서울여성회

광진구 민간주체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광진모임

광진구 모니터링단은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광진팀 소속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여성회는 생활인 여성들의 공동체로, 여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여성회는 3개의 지역지부(노원여성회, 동서울여성회, 영등포여성회)가 있고, 특별지부로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이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성평등교육센터, 언니네작은도서관이 있어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여성주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가 김신옥진, 이경희, 조윤주, 조이다혜
멘 토 박지아(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광진구의 젠더거버넌스

초기 구청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환류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모니터링한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젠더거버넌스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 올해는 첫 교류였던만큼 '민관 협력', '협치'라는 개념이 사업 주체와 대상자 사이에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의 경험은 민관협력을 위한 신뢰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05 광진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2017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02	생명탄생의 신비 –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건강한 성교육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
03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	공원녹지과	안전
04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가정복지과 여성다문화팀	복지

16

2017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광진구 | 일자리 | 기획경제국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지역의 숨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구인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예 산 3,197 천원

모니터링 결과

- 현재 취업정보센터 여성 채용정보에 게시된 일자리는 성역할고정관념 상 흔히 여성의 일로 분류 되는 사회복지(육아, 돌봄), 청소, 음식 업종에 치중. 이렇게 한정된 분야의 일자리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 일자리의 직업안정성 보장 필요함. 여성 채용정보에 게시된 일자리들은 시급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하기 힘듦

모니터링 개선안

01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함**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관행이 드러남.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자리 중에 '미소와 협업으로 일 할 준비가 된 사람', '이력서에 사진부착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없는 이력서는 자동 탈락됨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는 조건이 제시된 경우들이 있었음

02 **일자리 홍보 항목에 대한 성인지적 가이드 라인 제시 및 항목 변경 필요**
직장 내 성희롱 등 환경 취약성을 가진 일자리 분류 불가함. 직장 내 성희롱 등 환경 취약성을 가진 일자리의 경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

03 **성희롱 및 성차별 사례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마련 후 안내 필요**
연결한 일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구와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참여자들에게 안내 필요. 발굴된 일자리가 성인지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

04 **일자리발굴단 자체의 직업안정성 보장 필요**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그 일을 수행하는 일자리발굴단의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가능. 현재처럼 단기 계약직으로는 사업의 체계성, 적극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 우리 사회의 좋은 제도들은 공공에서 시작되어 민간으로 확산되어 왔기에, 일자리발굴단의 노동조건이 좋아진다면 더 좋은 일자리발굴이 가능할 것

05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필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함. 구직자 중 어르신의 비율이 높지만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도 일자리를 필요로 하며, 경력단절여성들 중에는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내 일자리를 선호함

17

생명탄생의 신비~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 건강한 성교육

광진구 | 보건소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사업개요

사업내용 – 보육·교육기관 대상 찾아가는 눈높이 성교육 실시
–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눈높이 성교육 물품 대여
–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개최

예 산 30,000천원

모니터링 결과

성교육 내용과 자료 구성에서 성인지 관점의 일관성이 부족함
교육 내용은 남녀 외모나 역할에 대한 구분은 없다고 하는데, PPT 화면에서 남녀의 옷차림은 치마/바지로 구분됨. 성폭력 예방/대처 관련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따라가면 안 된다." 등 어린이가 위험 상황에서 취해야하는 행동 매뉴얼이 중심인 것은 폭력 경험 시 어린이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몸의 안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손으로 지시는 행동은 자칫 어린이에게 불편함을 줄수도 있음

1회성 교육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음
임신과 출산, 우리 몸과 생식기 명칭,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상황 대처

성교육 메뉴얼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명시적 체계가 없음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전문강사들의 경우 교안을 받기는 하나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 또한 간호대 학생들의 경우 교안 작성을 소속 대학 교수님들이 지도하고 있으나 교안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의 체크리스트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성교육 전문강사 파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없고 비예산 사업으로 기획되어 성교육을 진행하는 간호대 학생들을 포함하여 '실습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는 실습 기회 제공 외에 강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음

모니터링 개선안

01 **성교육 매뉴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명시적 체계 마련 필요**
성교육 매뉴얼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전문가 자문, 성교육 담당 공무원들의 성 인지적 관점 강화 등이 필요함

02 **간호대 학생 '실습생'에 대한 처우 기준 마련 필요**
간호대 학생들의 실습노동이 보건소 사업의 성과 혹은 실적으로 되는 경우, 실습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노동력 제공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실습생의 무급 노동을 당연시 하는 문화를 공공부분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

18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

광진구 | 안전 | 공원녹지과

모니터링 결과

사업계획서나 성인지예산서에 특별히 여성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안전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원 시설 모니터링 결과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이 추가 설치되어 있는 등을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흔적이 보임. 그러나 안전의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음. 사업명이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인만큼 주로 시설 안전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공원에서의 안전 교육은 따로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음

다만 위기시 사용해야 할 비상벨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치되었다기보다는 설치 그 자체에 목표를 둠으로써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여짐. 설치 높이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로 낮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가시성이 떨어지고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평상시 비상벨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안전 계획의 기획, 수립, 수행 등 정책 전반에 성평등한 참여

담당 공무원들의 성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주로 고위직으로 남성들이 분포하고 있어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지 여부는 알 수 없음

모니터링 개선안

01 **눈에 띄는 비상벨의 시각화와 표준화 된 디자인 개선 필요(비상벨 표준형 디자인 참조)**

안전한 어린이 공원은 단순히 여성이나 아동을 위한 안전뿐만 아니라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공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함. 주 양육자로서 여성이 아동과 함께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범죄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대부분의 공원에 갖추어져 있음. (유모차를 고려한 턱이나 보도 폭, 바닥 상태 및 CCTV나 비상벨, 심터 등) 그러나 실제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벨이 확연히 눈에 띄도록 디자인 개선이 필요. (비상벨에 대한 안내문구를 좀 더 상세히 적어놓아야 하며,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개선과 규격화 필요)

02 **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신체 차이를 고려하여 편의시설 보완**

03 **공원의 유지관리 문제 및 인근지역 범죄예방**

쓰레기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원 내 금지행위 게시를 통한 민원해결과 환경 유지관리가 필요함. 시설적 측면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주민들의 공원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적 감시를 높이고, 상업 밀집지역의 공원 환경 유지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또한 보충되어야 할 것

04 **공원 내 편의시설 보완을 통한 주민 활동 지원**

- 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설 보수
- 화장실 내 편의시설(귀저기 갈이대나 수유실)을 강화하고, 문을 상시 개방.
-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된 곳도 성별 구분에 따른 설치를 위하여 공간 확보 필요.
- 휴게시설(화양동) • 놀이터 시설점검 및 모래놀이터의 청결 문제 • 경로당 • 가로등과 CCTV

비상벨 표준형 디자인

19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광진구 | 안전 | 가정복지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개별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사업내용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홍보, 돌보미모집, 교육 등
운영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
예 산 550,000천원

모니터링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수혜자 분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
사업의 수혜자를 아동으로 보고 이용률에서의 남녀아동의 성비를 맞추는 것에 집중함. 잘못된 수혜 분석으로 인해 성인지적 사업의 목표가 잘못 수립되었으며(남성 아동의 이용율 증가) 이는 여성아동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 이 사업이 '취업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실질적 사업 수혜자는 성인 양육자임. 그 중에서도 양육과 일 사이에서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성인 여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모니터링 개선안

01 **수혜자를 성인으로 변경하여 수혜분석을 재고해야 함**

0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에 관한 교육 강화 필요**

03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것**
지역 아동 수, 구민 수 통계치로 형식적인 수혜율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또 다른 수혜자는 아이돌보미임.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0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및 처우개선 필요**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가사노인돌봄, 산모건강관리지원 등)와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적용 필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11조에 적시된 표준계약서 적용을 '근로계약서'로 바꾸고,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서 활동 시간과 기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서울시와 구 차원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한 조정이 필요함

05 **성인지 관점의 분석 내용 성인지예산에 반영**
중장년층의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안정적 일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성인지예산에 반영해야 함

서울의 門 동대문구 | 동대문다움

동대문구 민간주체

동대문다움

동대문에서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청년으로, 부모로, 주민으로, 시민으로 마을의 작은 필요에서, 지역의 큰 과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자신의 품을 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마을은 마을답게, 동대문은 동대문답게, 동대문 다운 길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며 먼저 간 이가 옆을 살피고, 나중 온 사람을 위해 선뜻 자리를 내주고, 넘어진 사람은 쉴 수 있도록 아픈 사람은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성소수자, 길가에 핀 꽃과 지나가는 길고양이까지 세상 어떤 생명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을 안, 큰 울타리를 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며 동대문다움이 출발합니다.

비전

서로 달라 더좋은마을, 배움과 실천이 있는 마을

민주주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마을,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양성,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내는 공론장 운영
성평등	성평등을 통해 모두가 차별 받지 않는 마을, 역할의 구분없는 성평등 교육, 성적 지향, 성정체성의 구분없는 평등한 마을
돌봄	건강한 먹거리,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고민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마을, 생애주기별 서로 돌봄에 대한 실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마을
지속가능	스스로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지역자산화, 활동가의 역량강화와 재생산,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는 마을, 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되살림 쉼터, 마을강사 양성 등 마을 자원 축적

활동가 권기정, 이선화, 최수진, 홍인교, 고선희, 이은숙, 박내현
멘 토 서민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06 동대문구

동대문구의 젠더거버넌스

동대문구는 마을 조직 동대문다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팀이 구성 되었다. 본 사업과 결합하기전 행정과 협의한 4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였고, 일부사업은 환류간담회까지 진행을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안제안까지 나아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민도 관도협치의 경험이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활동반경과 협치의강도를 높여가며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마을분야)**	자치행정과 마을협치팀	복지
0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지원사업**	건축과 디자인기획팀	복지
03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교육진흥과	안전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동대문구 | 복지 | 자치행정과 마을협치팀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교육 필요

모니터링 대상지역 **동대문구 제기동**

모니터링방법

1.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구추진지원단 인터뷰
2. 1개동 마을계획단의 총괄 간사 및 분과장 인터뷰
3. 마을의제를 통해 바라본 마을주민들의 다양성 반영 여부 검토

모니터링단이 생각하는 찾동사업의 주목적

특히 마을계획단 사업은 새로운 주민주체를 발굴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고, 주변의 주민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민자치능력을 높여가는 것

모니터링 개선안

01 **찾동사업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마련할 방안모색 필요**

상당 부분 본래 사업의 취지대로 움직이고 있고, 행정보다는 주민 주도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음. 다만 주요하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인 마을계획단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 구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임
초기 참여했던 마을주민들 역시 현재 점점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고, 이후 주민들이 추가로 발굴되지는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이 필요함

02 **개인주의가 아니 함께 더불어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마을계획단이 향후 주민자치회 등으로 발전해갈 것을 가정하면, 더욱 다양한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고르게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활동의 중심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구가 아닌 마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21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동대문구 | 복지 | 건축과 디자인기획팀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마을교사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모니터링소감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일어나야 기본이 튼튼한 나무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에 귀를 열어야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링방법

1. 혁신교육 실무추진단장 인터뷰
2. 혁신교육 지원단 활동가 2인 인터뷰
3. 마을교사 3인 인터뷰(2017년 양성, 2018년 활동)

모니터링 개선안

01 **지속적이고 질 높은 마을 강사 양성 과정의 필요성**

3년이라는 시한의 문제와 구 차원에서의 사업 시작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 그 중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라 할 수 있는 마을 강사들이 스스로 부족한 면이 많은 강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지속적인 심화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할 필요가 있음. 마을 강사들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02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 구조적 시스템 변화 시급**

시한적인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역에 정말 필요한 혁신 교육이라면 자치구의 의지로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 전달자로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 활동비나 직업으로서의 '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간지원조직자는 여성의 영역이 될(또는 되고 있는)가능성이 높음. 활동가들이 '활동'으로 보람을 느끼고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됨

22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동대문구 | 안전 | 교육진흥과

**협치를 통해 우리동네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으로 서로 간 관계가 형성되어야**

모니터링 대상지역

동대문구 이문2동 신이문역 아래 굴다리(별칭 토끼굴)

모니터링방법

1. 사업계획서 검토, 교육진흥과 공무원 이문2동 해당지역 주민 인터뷰
2. 해당지역 오후(저녁)시간대 방문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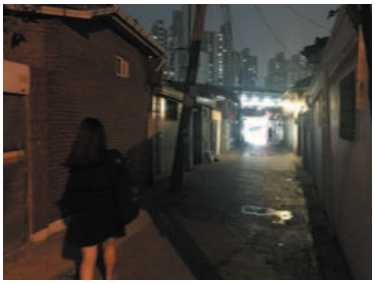
모니터링 개선안

01 | 범죄예방디자인이 유지/확산되기 위해 단계적인 계획 수립,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계획을 필수로 수립해야 함

02 | 시 사업이라도 시와 구의 파트너십이 필요함. 단순한 협조를 넘어 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재량권과 성장의 기회를 시가 제공해야 함

03 | 더 다양한 주민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홍보 채널의 다원화가 필요하며, 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정과 양이 아닌 질적 차원의 평가가 필요함

04 |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사람과 관계가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환경 미화에서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



토끼굴 부근 현장모니터링하는 모습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중랑구 민간주체

초록상상-참여와 행동

초록상상-참여와 행동은 중랑구에서 여성주의, 생활정치에 관심 있는 지역 여성과 초록상상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2013년부터 성 인지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중랑구 정책과 예산을 젠더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행정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에는 참여와 행동으로 정치 학습 모임도 함께 하고 있다.

활동가 김주희, 김성화, 장은숙, 안은선, 오애현, 이지아, 최수진
멘 토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중랑구 모니터링 사업

2017년 신규 사업
- 정신건강증진 사업
- 공중화장실 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골목길 안심디자인 사업

2016년 모니터링 환류 점검 사업
-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
-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

중랑구는 5년차 성 인지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구다. 지역여성풀뿌리단체인 초록상상을 기반으로 지역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관과 젠더거버너스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5년이라고는 하지만 구청 담당자들이 계속 이동하고 지난 경험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모니터링 활동의 경험과 올해 젠더 거버넌스 경험들을 잘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여성들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지역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5년의 경험이 풍부한 자산이며 자원이다.

07 중랑구

중랑구의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교육
- 1강 6/12 여성주의로 만드는 마을공동체 (강사:이숙영/줌마네 대표)
- 2강 6/13 시민이 직접 만드는 민주주의(강사:이진순/와글 대표)
- 3강 6/26 여성의 눈으로 정책 바라보기 (강사:오나경/서울여성가족재단 과장)

모니터링단 사전, 사후 워크숍 :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기획 및 내용,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 1차 5/23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 및 모니터링 활동의 목표 설정
- 2차 6/13 성 인지 정책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및 모니터링 방법 논의
- 3차 7/13 모니터링 활동 내용 중간 평가 및 보완 지점 논의
- 4차 7/27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보고서 작성, 추가 모니터링 내용 공유

행정과 사전 간담회 : 중랑구 여성가족과, 모니터링단
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와 모니터링 대상 사업 논의 및 역할 분담
(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체일자리사업, 공중화장실사업 등 신규 4개 사업과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자전거안전교육사업 등 2016년 모니터링 활동 환류 평가 2개 사업 확정)

성 인지 모니터링 활동 : 7월~8월
사업 자료 분석, 담당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사업 관련 기관 , 주민 등 인터뷰 / 사업 현장 답사

젠더 거버넌스 행정 간담회 : 9월 28일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모니터링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단, 풀바람
- 2017 성 인지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안 제안

23

공중화장실 사업계획

중랑구 | 복지 | 청소행정과

모니터링 결과

개방형 화장실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존의 화장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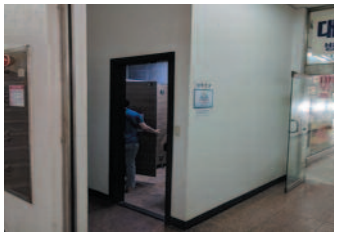
- 기존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라 시설의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함. 선택된 화장실 운영을 위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여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사용에 대한 협조 부족함
- 여성이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구조도 많음.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한 곳 많음
-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담당 직원이 부족함

정보 접근성 낮음.

- 개방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이 있으나 주민들이 알지 못함
- 앱을 사용해도 위치가 올바르게 접속되지 않음

청소 노동자를 아예 여성으로 못 박아 모집하고 있음

모니터링 개선안



- 공중화장실 청소는 사회적으로 질 낮은 노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구청에서 청소 노동자를 아예 여성으로 못 박아 모집하는 것은 관에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만들고 질 낮은 노동에 여성들이 한정되는 구조를 만든다. 향후 청소노동자를 모집하는 문구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빼기를 권함
- 공중화장실 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들을 위해 다른 방식(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구 홍보지 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이 필요함
- 1명의 담당 직원이 구 전체의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구청 직원만으로 어렵다면 주민 조직을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형태라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형 화장실로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이나 사용의 편리성 부분에서 여성들과 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장소 선택이 필요하다

24

골목길 안전 디자인 사업

중랑구 | 안전 | 건축디자인과

모니터링 결과

골목길 안전 디자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주민들의 자발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 기존에 주민 조직이 만들어진 곳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구청에서도 주민을 조직하거나 주민을 만나는 작업이 어려워서 기존의 주민 조민 조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지역이 골목길 안전디자인 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임

지역 주민의 정보 취득 어려움

-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

실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결과 확인의 어려움이 있었음

모니터링 개선안

- **최근 주민 참여형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대부분의 주민 참여 사업은 주민의 자발성이 기초인데 정작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구청에서 만나는 지역 주민들은 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구청 차원에서 지역 사회 다양한 주민 자원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안전한 골목길의 기준이 외적인 시설에만 있는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구청 입장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은 시설과 지역 사회 관계망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 **사업에 대해 좀더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된 다른 지역 사례도 알려서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민들이 알아야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젠더 관점에서 안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사업을 위한 위원회나 주민 참여에 여성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25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랑구 | 복지 | 일자리경제과

모니터링 결과

- 국비, 시비, 구비로 진행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취약 계층이 많은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예산이 부족함
-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타당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구청에서 확인하지 못함
- 담당자가 바뀌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중간에 사업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업의 지속성이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함
- 유사 사업이 이름만 다르게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음
-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예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가 구분되어 있음. 대부분 질이 낮고 저임금인 일자리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음

모니터링 개선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 사업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중복 진행되고 있다. 차별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면 지역 내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지역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하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사업으로 진행되는 일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특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이나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일자리들이 대부분 지속할 수 있거나 또는 향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비전문적인 일자리가 많다

참여자를 모집할 때 이미 남성, 여성으로 구분 지어 참여자를 모집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질낮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여성의 일자리, 남성의 일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관행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좀더 세심하게 대상자를 분류하여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 있는 근무 시간이나 다양한 일자리 확보 및 개발 등을 위해 민과 관의 노력이 필요함

26

정신건강증진 사업

중랑구 | 복지 | 건강증진과

모니터링 결과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 진행하는 사업. 사업 담당자가 구청, 위탁 기관으로 이중이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 구청 담당자가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구청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구청 담당자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구청의 사업 담당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문제들. 위탁 사업이라 지속적이지 못한 사업들, 일자리에 대한 불안, 과중한 업무, 담당자들의 정신 건강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정신건강센터 담당자들은 보건소 사업 담당자가 바뀌거나 보건소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함

모니터링 개선안

- **정신 건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 대부분 여성들이고 늘 위험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 관련 스트레스 매우 높음. 또한 업무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어서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있음**

- **위탁 사업에 대해 구청 담당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진행은 위탁 주체에게 맡기는 형식이지만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자도 알고 있어야 한다**

-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구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구청 담당자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민원 제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건강한 젠더거버넌스를 위해 민과 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27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중랑구 | 복지 | 문화체육과

모니터링 개선안

생활체육교실운영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주민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 후 만족도 조사 및 사전 종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너무 평일 오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참여자들이 제한적이다
- 청소년 체육교실 프로그램의 경우 너무 남자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체육교실 강사들이 성 희롱이나 성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강사들에게 성 희롱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

반영의견

-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긴 하지만 장소나 강사 문제 등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 **강사들의 성 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작년말 개선안을 받은 후에 바로 실시하였다. 다만 올해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
- **장애인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28

자전거 안전교육

중랑구 | 복지 | 교통지도과

모니터링 개선안

자전거 안전교육

-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모두 여성들인데 업무 환경이 여성 강사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담보해 주기 어려운 환경임. 자전거 보관 장소와 수업 장소의 거리, 자원 봉사에 가까운 시급, 인터넷 연결도 안 되는 환경 등 근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 자전거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안전 교육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함. 교육 장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어린아이를 둔 가정주부, 노인들, 수업 시간과 겹치는 학생들 등)을 위해 지역의 거점 장소로 찾아가는 형태의 안전 교실도 운영되면 좋겠다
-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모두 여성들인데 교육에 참여하는 성별을 고려해서 남자 강사도 채용하면 좋겠다. 강사들에게 성 희롱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

반영의견

-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라서 올해 새로운 위탁 계약이 체결되었음.**
- **계약 체결 시 작년의 개선안을 고려하여 강사들의 성별을 맞추라는 권고를 하였고 남성 강사와 여성 강사 비율이 1:2 로 바뀌었다.**
- **강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개선안을 받아들여 올해 말 교육 장소에 인터넷을 설치할 예정이다.**
- **강사비를 현실화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올해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들의 시급을 인상하였다.**
- **성 희롱 예방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반영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고려하겠다.**

sb 성북 | 바람마당

성북구 민간주체

바람마당

'바람마당'이라는 팀명은 성북구 내 지역주민들이 모여 협의하고 토론하는 상징적인 장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함께 모여 우리 성북구를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팀명으로 정하게 되었다. 바람마당은 성북구 젠더거버넌스 위원을 포함한 청년활동가, 지역주민, 서울YWCA정책모니터단들로 구성된 팀으로, 상생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살기 좋은 성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활동가 강명순, 최은숙, 강민진, 송영미, 조혜영, 최지영, 홍선표, 정미경
멘 토 서민순 공동대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성북구의 젠더거버넌스

성북구 모니터링팀은 구성원이 한 번 교체되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끝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최종간담회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의미 있는 과정을 이루어내었다.
성북구의 젠더거버넌스 주민위원 4명이 초창기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팀으로 구성되었으나 2명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주체들이 다시 모여 팀을 구성하였다.
성인지관점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모니터링팀이 서울YWCA와 함께 젠더거버넌스 교육, 워크숍,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성장해나갔다. 지역주민으로서 우리 구의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모니터링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이야기에도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성북구 여성가족과 팀장과 주무관의 노력으로 행정의 협조가 좀 더 수월했고 모니터링팀이 발로 뛰며 지역을 살펴 개선점을 찾아 제안하였다.

08 성북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길음동 복합문화미디어센터 건립계획**	문화체육과	복지
02	**놀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추진계획**	교육아동청소년과	복지
03	**삶터쉼터 안전마을 조성사업**	도시재생디자인과	안전
04	**성북구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건강정책과	복지

29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성북구 | 복지 | 건강정책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맞춤형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인의 건강보호에 기여

사업대상 성북구 거주 직장인

사업내용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비만프로그램,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 댄스 피트니스 교육

모니터링 개선안

성인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내용, 상담, 예방 등에 대한 성별요구도가 다름. 이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려면 성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별요구도, 수혜도를 분석 후 프로그램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음

건강(사회적, 심리적, 육체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과 주체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 변경

- 현재 여성 참여 비율이 80%이상. 남성 또한 비만예방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유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간대에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건강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한 해 총 4기로 운영되고 있는 현 프로그램을 연이어 신청할 수 없어 지속성이 떨어짐. 참여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단절되거나 후퇴되는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고, 운영 횟수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는 참여자들의 강력한 요구 사항)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책자, 비만 극복 사례집 등을 성인지관점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식 확산을 위한 체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담당 공무원 인터뷰 및 프로그램 직접 참여

30

길음동 복합문화미디어센터건립계획

성북구 | 복지 | 문화체육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강남-강북의 문화인프라 양극화 해소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복지기반 구축
사업대상 성북구민 및 동북2생활권 지역주민
대상지역 길음동 1286-8
예 산 25,960,000천원

모니터링 개선안

사업담당자들의 지속적 성인지교육 이수 및 젠더전문가의 자문활용 필요

성별 요구도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조성
샤워실 개수에 있어, 여성의 샤워시간이 남성보다 긴 점을 고려하여,
남성 시설보다는 여성 시설에 더 많은 샤워부스 설치필요

신규홍보물(현수막) 제작 및 적절한 위치에 재설치
전체적으로 낙후된 홍보물이 많음. 현수막 크기 확대, 선명한 밝은색 사용, 위치 변경 등이 필요함

주민참여율 증대 및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방안(성별, 연령별, 동별) 강구
50, 60대 여성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좀 더 다양한 계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인권감수성이 들어간 센터 명칭 고안 필요
새로 건립되는 건물인만큼 초창기에 성인지관점이 들어간 명칭으로 도서관 등의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

인권영향평가단 심사위원 성비 조율 필요
심사위원 남성들이 대부분임. 여성 심사위원 섭외가 필요

"'성인지 관점'이라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정책적 차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우르는 인권적 차원의 관점입니다."

31

성북구 장위동 231일대 경관개선
(삶터쉼터안전마을조성사업)

성북구 | 안전 | 도시재생디자인과

사업개요

사업배경 장위12구역과 13구역은 2005년 서울 최대규모의 장위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11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됨.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삶터쉼터살기좋은안전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

사업내용 도시재생 및 경관개선, CCTV설치, 골목길 정비 등

예 산 1,002,000천원

모니터링 개선안

도시경관개선사업시 철저한 주민 요구도 조사가 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모임을 주도하였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부족. 매번 참여하는 주민 외에 다양한 주민의견을 들어보아야함. 가정방문을 통한 주민요구사항 수렴과 설문지를 통한 참여의 독려를 제안함

지역주민의 다수로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현황이나 요구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반영한 안전마을 설계 및 조성이 필요함.

도로개선사업 후 주민불편사항의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완대책 필요

도로개선사업 후 도로에 차가 빠르게 달려 위험해졌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음. 골목길 차량 운행주의 안내문도 부착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교육이 필요

도시재생사업(삶터·쉼터 안전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마을이 깔끔해지고 좋아졌으나 주민들의 재개발 해제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임. 도시재생사업(삶터·쉼터 안전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소통의 시간 필요

젠더전문가의 자문 필요

사업 기획 및 결정과정에 여성의 의견반영 노력(성별 형평성 및 균등참여 부분을 평가내용에 포함하여 양성의 적극적인 참여 재고 필요)

담당 공무원 인터뷰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

32

아동놀이환경조성

놀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지역특화사업)

성북구 | 복지 | 교육아동청소년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놀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
사업내용 아동친화적 놀이종합계획 수립, 우리동네 놀이터만들기, 놀권리가이드북 제작, 마을놀이촉진자양성교육 등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

모니터링 개선안

아동 청소년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놀 '시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

- '놀이 및 휴식시간의 충분도'에 대해 고등학생 중 16.7%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등 성북구에서도 학업부담으로 인한 놀이 시간 확보 저해 요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본 종합계획의 경우 놀이공간 확보에만 치중되어 있어 공간이 생기더라도 청소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광범위한 청소년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놀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30%이상의 아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 청소년의 휴식권 및 놀권리를 포함한 인권 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 부모교육 사업은 안암동 인권청사 및 놀권리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참여자의 수가 전체 학부모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학교와 연계한 학부모 교육 또한 필요할 것.
- 아동 놀권리 헌장(조례) 제정과 'Play day' 지정 사업의 경우, 단지 매월 하루를 놀이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아동 청소년의 휴식권 및 놀권리를 구민에게 인식시키고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예산과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

놀이공간 및 문화의집 조성에 아동 청소년이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아동청소년 놀이기획단 구성 및 운영'사업을 계획 및 추진할 시, 참여 아동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기획단'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들이 '기획단'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정보 전달과 인권 교육이 구성 초기에 필요함

놀이환경 기반 조성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함

- 여성 아동 청소년과 남성 아동 청소년의 욕구 및 필요가 다를 수 있음. 여성 아동 청소년의 경우 여성 전용 휴식공간, 생리대 자판기, 파우더룸 등의 공간과 공간 주변 환경의 체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놀이환경 조성이 필요함
- 육아가 여성의 일로만 여겨지는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성인 참여 사업에 참여자 성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마을 놀이촉진자 양성교육'등의 과정에서 남성 참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한 책임은 여성(엄마) 뿐 아니라 남성(아빠)에게도 있다는 점을 구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담당공무원 면담

강북여성주의모임

강북구 민간주체

강북여성주의모임

강북여성주의모임은 강북구에서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지역 여성 주민과 활동가들로 구성돼 여성주의 강의, 여성주의 책읽기 모임, 여성주의 영화 모임, 여성주의 수다모임 등을 열고 있다.
2014년 강북구 일자리 사업 성인지 모니터링을 계기로 2016년 새롭게 성인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강북구 정책과 예산을 모니터링 하고 행정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활동가 김미영, 김사랑, 김은미, 김효숙, 배미화, 오경훈, 이선희, 이은해, 임윤정, 최미경, 홍문정
멘 토 김선희(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강북구의 젠더거버넌스

-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 : 페미니즘 입문 교육**
  - 1강 5/24 왜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날까? - 혐오와 폭력,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강사:한채윤)
  - 2강 5/31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쁠까? - 돌봄과 노동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강사:김신효정)
  - 3강 6/7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플까? - 여자라서 아프다+아픔과 더불어살기 (강사:전혜은)
  - 4강 6/14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까? - 공동체와 연대의 정치를 위하여 (강사:장이정수)
- **모니터링단 모집 및 사전 워크숍 : 성인지 모니터링 워크숍**
  - 1차 6/21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와 사례
  - 2차 6/27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선정
- **행정과 사전 간담회 : 6/27 강북구 여성가족과, 모니터링단**
  - 2016 젠더거버넌스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결과 환류
  - 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와 모니터링 대상 사업 확정(안전문화운동, 드림스타트, 노인돌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4개 사업)
- **현장 모니터링 활동 : 7월~8월**
  사업 자료 분석, 담당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사업 관련 기관 , 주민 등 인터뷰
- **모니터링단 사후 워크숍 :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개선안 도출**
  - 3차 8/8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결과 공유와 분석
  - 4차 8/18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사업 개선안 찾기
- **강북구 젠더 거버넌스 회의**
  - 일시와 장소 : 8/22 (화) 오후 2시, 강북구청 3층 회의실
  - 참석자 : 강북구 여성가족과, 안전치수과, 청소년과, 어르신과, 생활보장과 공무원, 강북여성주의모임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단
  - 내용 : 4개 사업 모니터링 결과 공유와 개선안 제안, 행정 반영계획 공유

09 강북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안전문화운동사업	안전치수과	안전
02	드림스타트	청소년과	교육복지
03	노인돌봄지원사업	어르신일자리과	노인복지
0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인터뷰)

모니터링 결과 분석

젠더 거버넌스 회의

33

안전문화운동사업

강북구 | 안전 | 안전치수과

모니터링 과정

7월4일	**안전문화운동 사업 자료 분석**	- 2016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 - 안전문화운동추진 강북구협의회 2016 상반기 총회 실시 결과보고 - 2017 강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자료
7월21일	**안전치수과 담당자 인터뷰**	- 관련 부서 소개 및 세부 사업 안내 - 사업 관련 예산 운용 - 전반적인 운영 및 인력 현황 관련 타구 비교 - 홍보 활동 현황 및 보완에 대한 필요성 인식 - 운영 상 어려운 점

모니터링 결과

안전문화운동 정책방향과 예산

- 안전관련 중심사업 인식 부족, 누락된 안전 분야 점검 필요, 적은 인력과 예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 민관 협업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 여성위원 비율 저조, 사회적 안전요구도에 비해 실천과제 부족

안전문화운동 교육과 홍보

- 주민 대상 안전 교육 부족, 대상자 맞춤형 안전교육 필요, 생활밀착형 홍보 필요, 유용한 제도의 제한적 활용

모니터링 개선안

안전문화운동 정책방향과 예산

- 안전문화운동의 통합적인 계획과 관리 필요, 여성 안전과 미세먼지 문제 등 안전 분야 확대 필요,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안 모색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 지역 중심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위한 소통과 협력 구조 구축, 여성위원 확대, 관련단체 참여확대, 실질적인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안전문화운동 교육과 홍보

-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의 확대, 대상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교육 확대,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 홍보 모색 (포스터, 현수막, 냉장고 자석 등)

34

드림스타트사업

강북구 | 복지 | 청소년과

모니터링 과정

7월4일	**드림스타트 공무원과 전문요원 인터뷰**	강북구 드림스타트 지원 사례와 애로사항, 제도 보완점 등 인터뷰 예산 담당자 : 김OO(담당공무원) 프로그램 총괄 : 이OO(담당공무원) 아동체험프로그램 : 신OO(전문요원)
7월21일	**교육복지지원센터 방문**	강북구 아동복지 상황 전반에 대한이해와 드림스타트 연계기관으로 드림스타트의 의미에 대한 설명
8월14일	**늘해랑인지심리상담소 방문**	강북구 아동과 가족 상담 경험을 통해 본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 지역 아동과 가족의 요구 조사

모니터링 결과

사업 수혜자(유아, 아동)

- 취약계층 아동 대비 수혜자 비율이 18.8%로 매우 낮음, 유아의 비율이 낮음,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의 비율이 높음, 초등 졸업 후 지원 중복 또는 공백기, 다양한 가정의 등장으로 수혜자 범위가 확대, 수혜자 선정에 거부감 표현

프로그램

- 인지학습에 예산 집중,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족, 아버지의 참여율 저조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 일인당 관리 아동 대상자는 75명, 예산의 구성은 프로그램 중심, 드림스타트 업무 교육 및 기관간 교류 저조,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부 지원 부족

모니터링 개선안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자

- 수혜자 발굴과 사례관리 확대,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유아 대상자, 부자가정, 국제이주결혼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사회적 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의 확대 및 장기적인 지원, 부모교육의 필수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 프로그램보다 운영-사례관리 인력 중심 예산 재구성 필요, 센터간 교류 확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부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3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강북구 | 복지 | 생활보장과

모니터링 과정

7월4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인터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 진행상황, 고충 등 인터뷰
7월17일	**강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인터뷰**	강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례와 제도 보완점 등 인터뷰
7월24일	**강북나눔동봄센터 방문, 인터뷰**	강북나눔동봄센터(사회적협동조합)를 통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례들과 제도 보완점 인터뷰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 수급권자 685명 중 실제 이용자 600여명, 직접 내방신청제
  활동지원시간 부족, 발달장애 경우 하루 2~3시간, 나머지는 가족이 부담

활동지원인

- 종사자 90% 중장년층 여성, 최저시급 수준의 노동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사적 공간, 업무 경계 모호로 과도한 노동, 낮은 자존감, 근골격계 질환 산재 불인정

서비스제공센터

- 기관 운영비 예산 없어 인력 어려움, 수급자 이용 교육 어려움 (의무 없음),
  지원인 보수교육과 소모임 등 기관별 편차

모니터링 개선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급여 미이용자 전수조사, 신청과정의 간소화 필요(활동지원급여 확대 필요, 야간순회의 탄력적 이용)

활동지원인

- 서비스 단가의 인상 필요, 구체적인 업무지침 마련, 교육 및 정서적 지원, 여성 돌봄 일자리에 대한 재평가 및 지원

서비스 제공센터, 지자체

- 공적 서비스로서 서비스 운영비(인력, 보수교육 등) 예산 지원 필요
- 수급자(이용자) 교육 제도화, 활동지원 업무 매뉴얼 마련

36

노인돌봄지원사업

강북구 | 복지 | 어르신복지과

모니터링 과정

7월13일	**강북구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인터뷰**	노인돌봄지원 사업 개요, 진행상황, 고충 등 인터뷰
7월24일	**시립강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인터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사례와 제도 보완점 모니터링
8월7일	**강북나눔동봄센터 방문, 담당자 인터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사례와 제도 보완점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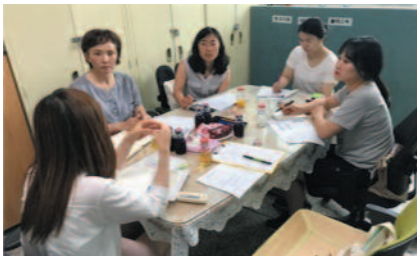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혜 인원 약 1,152명, 성비 남:여=3:7
  2007년부터 매년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만족도조사 실시
- 서비스관리사, 생활관리사 : 1년 단위 돌봄서비스 사업 계약, 계약직 불안정한 고용 형태, 돌봄 어르신 사망 등의 경우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강북구 약 800여명 사업 대상, 신청제로 운영->170명 서비스 이용 중
- 요양보호사 1명 이용자 당 근무시간이 짧음(월 27시간 혹은 36시간)
  교통비, 이동거리 등 부대비용이 큼, 일상생활 전반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이용자의 하대 등으로 낮은 자존감 유발



모니터링 개선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노인 만족도 조사 데이터화, 성별 수요 반영 필요
- 복지기관 3~5년 위탁, 돌봄서비스 사업 1년 계약 개선, 활동지원인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마음돌봄서비스 등 지원 필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 돌봄 일자리에 대한 인권적 측면의 인식 개선 필요(교통비, 이동시간을 서비스 비용에 포함하고 생활임금 수준 급여체계 개선)
-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심리상담 연계와 지원 (주민센터나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기분좋은 문화도시 Variety 도봉 버라이어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구 민간주체

서울동북여성민우회

1992년에 설립된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동북지역 지부로, 여성들의 일상 속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여성운동을 지향하며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세상, 생활자치권이 실현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성평등교육, 성교육,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 등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도봉여성센터, 서울시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곽선숙, 김선주, 김성희, 문지숙, 안정희, 이은자, 임국희, 황선아

멘 토 김선희(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현장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10 도봉구

도봉구의 젠더거버넌스

활동명	일시	내용
모니터링교육	5/24, 5/31, 6/7, 6/14	젠더감수성,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 안전·일자리·복지 정책과 젠더, 예산교육, 모니터링 방법론, 모니터링 실습, 풀뿌리 여성 리더십 등
젠더거버넌스 과제선정회의	5/30	3대 분야(일자리, 안전, 복지) 중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사업 및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선정
모니터링워크숍	5/29, 6/2, 6/13, 7/5, 8/17	- 모니터링 내용 및 질문지 작성, 검토 - 모니터링 결과 분석, 개선안 도출
현장모니터링	7~8월 수시진행	사업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모니터링
행정간담회	8/24, 도봉구청 10층 회의실	- 모니터링 결과 공유, 개선안 제안 - 각 분야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협의, 개선안 환류점검 방안 마련

젠더 거버넌스 간담회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재난안전과	안전
02	**지역아동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교육, 복지
03	**도봉뉴스 제작 발행**	홍보전산과	홍보
04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37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도봉구 | 안전 | 재난안전과

모니터링 과정

7월5일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체험관 체험 진행자, 안전체험 (화재안전체험,심폐소생술, 완강기체험)
7월14일	**도봉구청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교육 담당자 인터뷰 재난안전과 재난예방활동 담당자 인터뷰
7월5일	**창2동 시끌벅적사랑방**	사랑방 대표 김00 재난취약가구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등)

모니터링 결과

- 안전교육이 구청 직원이나 재난안전위원들 위주로 진행됨
-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껴도 시간을 내서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것에 번거로움을 느낌
- 위기탈출 매뉴얼이 어르신과 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전달력이 약함
- 재난 취약가구 방문 안전점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모니터링 개선안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 버스 등 안전교육 접근성 & 홍보 강화
- 어르신, 아동 등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제작
- 여성, 어르신, 아동 등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실시
- 재난 취약가구에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비상지원 방안 모색

38

지역아동센터지원

도봉구 | 복지 | 여성가족과

모니터링 과정

7월17일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지원 담당자 인터뷰
7월28일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생활복지사 인터뷰

모니터링 결과

- 대부분의 종사자가 여성, 과도한 업무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이직이 잦음
- 성교육이 진행되나, 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아동의 성비, 가정환경, 장애 등을 고려한 개별 프로그램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3년간 담당공무원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모니터링 개선안

-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 이용 아동 대상 성평등, 성인지교육 제공
- 교사 대상 생애주기별 성교육과 성인지, 성평등 교육 제공
- 이용아동 통계자료 확보를 통한 개별 아동 맞춤(성비, 한부모, 다문화 등) 프로그램 지원

39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

도봉구 | 복지 | 홍보전산과

모니터링 과정

7월19일	**도봉구청**	홍보전산과 도봉뉴스 담당자
7월25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무실**	도봉뉴스 리포터(여) 인터뷰

모니터링 결과

- 대부분의 기사가 구정행사 홍보와 성과를 다루고 있음
- 부족한 예산으로 한정된 지면에 다양한 소식을 담거나, 글씨 크기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음
-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재함
- 여성의 구정참여를 위한 '여성리포터' 코너가 구정 홍보 기사 위주로 게재됨

모니터링 개선안

- 구정 홍보 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보완(인권, 성평등, 장애감수성 등)
- 노인 등 시각적 약자를 위한 활자 크기 확대
- 제작 관련자(주무관, 편집위원, 기자단 등)를 대상으로 한 인권 & 성평등 교육 실시
- 성별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이미지 사용하지 않기
- 소식지 만족도 조사 실시
- 여성리포터 코너의 리포터 확대 운영 및 명칭 변경(ex,주민 리포터)
- 기사 작성 시, 주민의 비판적 개선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장려

40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도봉구 | 복지 | 문화체육과

모니터링 과정

7월18일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이진환 팀장 이주현 주무관 인터뷰
7월27일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수영교실 담당자, 총무, 참가자 인터뷰
7월28일	**염광교회**	발달장애인 실내체육교실 담당자, 부모 인터뷰
8월3일	**창동게이트볼장**	농아인 게이트볼 교실 강사, 보조강사 인터뷰
8월8일	**대우스포츠센터**	발달장애인 수영교실 이용자 부모 인터뷰

모니터링 결과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부족으로 기존 시설에서 협소하게 운영
스포츠 종목 선정 시 다양성이 제한 됨, 야외 진행 시 날씨에 따른 영향이 큼

협업
장애인 체육교실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되어, 도봉구 장애인 관련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 사업과 연계되지 않음.
담당자가 예산, 장소확보, 강사 섭외 등에 어려움을 느낌.

운영
적은 강사, 보조인력으로 많은 장애 이용자 인솔 어려움.
특정 장애단체 회원만 수업에 참여.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차이 없음
사업관계자 대상 장애이해교육, 성인지 교육 부재.

모니터링 개선안

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기존 시설 장애인 이용시간 할당,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

협업
해당 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과와 노인장애인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

운영
강사 및 보조 인력의 확충 / 여성 강사와 보조인력 확충 /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여성 장애인 체육수업 개설 / 사업 관계자(주무관, 강사, 봉사자) 장애이해교육, 성인지 교육 실시

노원 넘버원

서울여성회 노원여성회

노원구 민간주체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

서울여성회는 생활인 여성들의 공동체로, 여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3개의 지역지부(노원여성회, 동서울여성회, 영등포여성회)가 있고, 특별지부로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이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성평등교육센터, 언니네작은도서관이 있어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여성주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노원여성회는 노원지역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언니와 동생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함께 하는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를 위한 곳이다.

활동가 박미경, 원정하, 이범자, 이지희, 류용희, 신용숙, 조은나, 김영복

멘 토 박지아(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노원구의 젠더거버넌스

노원구청은 이미 자체적으로 젠더거버넌스활동을 운영하고 있어 올 해 본 사업과 관련된 과제선정 및 환류간담회 등 공식적인 과정을 함께하지 않았다. 이에 활동가들이 각 사업별로 행정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사업별 협조 상황이 달라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활히 진행된 팀과 아닌 팀의 차이가 극명했다. 담당 공무원이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경우 상당히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으나, 부서이동이 잦고 여러가지 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특정 사업에 대한 자료 축적이 부족해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자료 확보에서부터 막히기도 했다. 행정의 협력이 젠더거버넌스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행정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 노원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	자치행정과	안전
0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0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04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복지

4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원구 | 일자리 | 일자리 경제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삶의 질 재고

사업대상 노원구민 중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사업내용 노원구의 4개 부서 8개 사업(우리동네 마을마당 및 가로공원 조성 사업,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돌봄 사업등)에 4개월씩 상 • 하반기 2회 파견

모니터링 결과

01 **채용 기준 및 경력단절의 현실에 따른 예방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적극적 조치 부족**
사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사업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 이것은 노동시자에서의 성별불균형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채용 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결혼 및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의 현실에 따른 예방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02 **다른 일자리(직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전문적 업무에 한정**
업무 내용이 다른 일자리(직업)로의 연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전문적 업무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관련 사업에 2번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 연결이 필요하나, 직업훈련 교육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에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단기 일자리 노동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음

03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됨**
참여자 선발 시 지자체 기준 가점 30점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부서에 맡김으로써 공정성의 문제와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됨. 이의 결과로 보육사업에는 여성, 거리청소 등에는 남성을 채용하는 등 세부사업의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

04 **사업축소**
사업예산이 3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의 수혜자가 적으며 점점 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2016년 90명 – 2017년 70명)

모니터링 개선안

01 **선발기준에서의 성별요구 반영 필요**
경제시장에서 겪는 여성의 어려움과 경력단절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사업의 경우 선발기준에서의 성별요구 반영 필요. 또한 장기적 일자리로의 전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02 **선발과정 공정성 확보 및 전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필요**
참여자 선발 시 지자체 기준 가점 30점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서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함. 참여자 선발부터 사업장에 참여자 배치에서도 성별 간 일정 비율을 정하는 등 성인지적관점을 반영하여 진행해야함

03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
사업참여자에게 총 1시간30분 동안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공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관련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운영이 필요함

04 **참여자 의견 반영 구조 마련**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를 통해 차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4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인큐베이팅

노원구 | 일자리 | 일자리 경제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 지역사회 필요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위한 역량개발
-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창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 및 지역사회기반형 창업률 제고

모니터링 결과

01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 상황 등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에 여성의 참여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모집과 육성 및 인큐베이터 사업 전반에 성인지 관점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사업의 기획단계와 집행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음

02 **성비의 균형**
사업의 모집 단계에서 성비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성비 비율이 잘 형성되었음

03 **젠더 교육 및 성별 분리통계 부재**
육성 프로그램 안에서 젠더교육이 적용되어 있지 않음. 성별 분리통계가 작성되지 않음

04 **운영의 적절성**
거버넌스의 입장에서 주체자, 참여자, 멘토단과 자치구의 연계가 잘 되었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발굴하여 참여함으로써 주민 및 지역사회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됨. 또한 사업과정에서도 사업주체자, 참여자, 멘토와 연계로 밀착지원을 하는 등 주민 및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였음. 또한 주민홍보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지와 설문지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홍보하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인지도를 높임

모니터링 개선안

01 **구체적인 일자리 선발기준 및 장기적 일자리로의 전환 방향 제시**
일자리 사업의 경우 경제적 취약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본 사업 또한 마찬가지 임. 그러나 경제시장에서 겪는 여성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이 중요함. 일자리 선발기준이나 혹은 선발된 후의 장기적 일자리로의 전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02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
사업에서 진행되는 필수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 참여자들에게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을 통해 사업이 평등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03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필요함**
사업기획단계에서 참여자에 대한 성별균형 선발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성별균현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이후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필요함

43

행복으로 빛나는 안전마을 노원을 위한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

노원구 | 안전 | 자치행정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개선(일반주택지역 절도범죄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율방법대 순찰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시행. 2017년에는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추진한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 및 범죄율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환경조성

사업내용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마을안전 주민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범죄 예방 맞춤형 관리, 안전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민·관·경 협력 강화,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율적인 주민 감시 환경 조성 및 운영

모니터링 개선안

0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과 성폭력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세부 사업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음. 6대 범죄 중 성폭력 범죄를 보면, 남성 5%, 여성 90%로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임. 노원구청이 2016년 상반기 사업 완료한 49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전(2014년 6~9월)과 사업후(2016년 6~9월) 4개월의 범죄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의 6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방화)가 성폭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02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자문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회의 주기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여성대상 범죄를 위해 여성단체 등과의 협동평가 과정이 필요함

전문기관이 공조 및 자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연말에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범죄 안전 관련 주민의식조사를 진행함. 관 및 전문기관이 공조하며 자문을 구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여성대상 범죄 영역에서 대한 주민요구 조사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44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2017년 학생 진로·창업 한마당

노원구 | 복지 | 평생교육정책관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학생들의 진로·창업 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및 창조경제에 부응한 탐구력 증진
- 청소년들의 창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마인드 형성
- 지역의 소상공인과 연계한 일자리 나눔과 진로에 대한 창업 마인드 제고
-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진로 선택의 중요성 및 창업 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국가창의 인재 발굴

사업내용
- 참가학교를 신청받은 후 신청한 11개 학교가 모여서 올해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함
- 창업희망학교 또는 희망동아리의 창업 유도 및 진로 개발을 위한 필요 경비 등을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 예산을 통해 진행된 활동은 창업한마당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과 공유
- 창업 박람회 : 2017년 10월 27일(금) 노원 근린공원에서 현재 10개 학교 32개 팀이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창업한마당 박람회와 혁신교육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

모니터링 결과

사업의 대상 모집부터 행사진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이 되지 않음.

해당사업 담당자의 인터뷰 결과, 동일한 수의 성 별 참여를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기준에 성별기준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은 성별 동수의 참가가 전부도 아니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별참여인원은 다를 수 있음.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교육이 필요함

모니터링 개선안

01 **성인지적 관점의 계획수립 필요**

창업, 학생동아리, 한마당이라는 특성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예를 들어 창업분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교육할 수 있는 멘토단 운영, 학생동아리 운영에서의 폭력예방교육, 한마당 기획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이 필요함

02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필요**

특정한 몇 학교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지다보니 사업의 취지가 저변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보임.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각 학교별 공문 발송 시 관내 1학교 1동아리 참여로 권장해보는 정책 필요. 특성화고 외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안내와 교사의 지도 아래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해볼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보는 등의 방법이 필요

0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연간 시스템 운영 제안**

참가 대상이 '창업'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인 만큼 창업박람회를 앞두고 두서너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으로는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어려움. 1학기에는 창업 마인드 교육 및 생활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사례를 공부하는 등 이론과 개념 정립으로 소프트웨어적 바탕을 마련해주고 2학기에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하드웨어적 기술과 재주를 발휘하도록 돕는 등 연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보임

green chorus
eunpyeong
북한산큰숲, 은평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감

은평구 민간주체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감

정감은 2017년 4월 은평구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을 계기로 모임을 만들었다. 여성주의 정신으로 평등, 평화, 협동을 지향하며 여성,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노인, 경제적 약자, 이주민, 장애인 등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주의 강의 듣기와 워크숍을 병행하며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고,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안을 제안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을 살피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가 나현희, 손은숙, 이숙향, 정숙경, 정효정, 허은영
멘 토 황은정(이화리더십개발원 연구원)

12 은평구

은평구의 젠더거버넌스

대사증후군 관리운영 사업(건강증진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교통행정과), 은평둘레길 걷고 싶은 은평길 조성(공원 녹지과)청년창업, 취업지원(사회적 경제과)이다. 4~6월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을 4회 참여하였고, 교육을 바탕으로 4번의 워크숍을 하면서, 모니터링 활동지표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더운 여름날 현장 모니터링을 하였다. 또한, 협치 사업인 만큼 구청과의 간담회도 3회 실시하였다.

워크샵

현장 모니터링 – 걷고 싶은 은평길 조성

현장 모니터링 – 청년 창업 지원

구청과의 간담회(08.29)

45

은평둘레길 – 걷고싶은 은평길 조성

은평둘레길 안내체계 및 둘레길 등산로 정비 공사

은평구 | 복지 | 공원녹지과

모니터링 내용

1. 은평둘레길 조성사업 자료 검색 및 검토 분석
2. 사업 담당공무원 인터뷰 :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3. 현장답사 : 봉산일대와 이말산 일대를 직접 걸으며 현장 모니터링
4. 둘레길 이용 주민 인터뷰 : 이말산 주민 1명 인터뷰

모니터링 개선안

01 | **안전을 위해 1구간 봉산길에 산악자전거 금지 푯말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02 | **은평둘레길 안심번호와 서울둘레길 안심번호를 통일해야 한다.**
같은 길인데, 은평둘레길과 서울둘레길의 안심번호가 달라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헷갈리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안심번호를 서울시와 은평구청, 은평경찰서가 같이 하나로 통일하여 정비한다면 더 안전하고 안정된 은평둘레길이 될 것이다.

03 | **은평둘레길 표지판을 개선해야 한다.**
- 표지판의 지도를 가독성 떨어지는 스카이뷰가 아닌 지도로 표시해야 한다.
- 1구간 봉산길에서 은평둘레길 지도를 보면 구간별 지도가 없다.
- 봉산 정상에 있는 표지판 지도가 모두 갈라져서 표지판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도 교체가 필요하다.
- 글자체의 크기를 주로 이용하는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해 크게 해야 한다.
- 성인남녀의 속도표시와 노약자 및 아이동반 속도표시를 따로 표시해야 한다.
- 스탬프 줄이 끊겨 있어 분실 우려가 높다.
- 스탬프 함에 핸드북 지도를 추가로 배치하면 좋다.

04 | **인터넷 지도 사이트에서 은평둘레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현재는 인터넷 지도 사이트에서 은평둘레길 검색이 되지 않는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지도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05 | **기타의견 및 개선점**
- 새로 설치된 표지판 옆에 이말산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 게시판이 있다. 이말산에서 느끼는 감동을 살릴 수 있는 시로 선별하여 게시하기 바란다.
- 이말산의 역사적 가치(내시, 상궁묘 등)를 살린 이야기길로 구성하면 좋겠다.
- 봉산에는 산악기상관측소가 있다. 자세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면 아이들에게 배움에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6

청년창업 · 취업지원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실험공간 조성계획

은평구 | 일자리 | 사회적경제과

모니터링 내용

1. 사업자료 및 청년 창업 관련 자료 검색과 검토 분석
2. 사업 담당공무원 인터뷰 :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3. 사업대상지 방문 : 증산종합시장 방문
4. 사업대상자인 청년상인 2명 및 증산종합시장 내 토박이 상인 1명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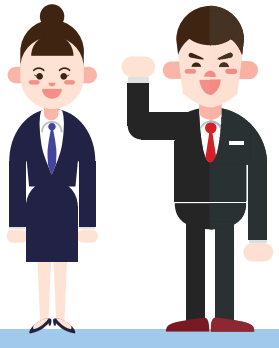
모니터링 개선안

01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 창업지원에 따른 자립기반 구축과 청년 창업자, 구매자 유입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청년창업 실험자들의 업종은 떡케이크와 비건쿠키와 꽃차 등이다. 기존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비하면 부합하지 않는 품목이다. 과연 1년 기한의 단발성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자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사업의 목적 수립이 제대로 되었는지, 적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02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당장은 입지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그에 적합한 컨설팅과 지속적인 관리, 점검, 추가 지원 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세무상담 및 회계, 재정관리 지원은 시급하다.

03 **여성 청년상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불시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등의 시설 보충과 여성 상인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대처 교육과 응대 매뉴얼, 연락망 등이 필요하다.

04 **시장 내 상인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 안에는 기존 상인, 은평구의 지원을 받아 입점한 청년상인,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입점한 청년상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체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은평구와 서울시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단의 행정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장 내에서 청년상인들 사업의 홍보와 입지 구축에 더욱 힘이 가해져야 한다.



47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아마존 조성사업

은평구 | 안전 | 교통행정과

모니터링 내용

1. 사업자료와 관련 자료 검색 및 검토 분석
2. 사업 담당공무원 인터뷰 :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3. 사업대상지 방문 : 사업 기시행 대상지와 대상 예정지 초등학교 9곳과 어린이집 1곳
4. 현장 관계자 인터뷰 : 학교 보안관 2명 인터뷰

모니터링 개선안

01 **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 확대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 아마존'이라는 줄임말로 지은 신선한 이름이, 초등학생 등교시간에 학교 주변에 차량 통제를 통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의 내용을 떠올리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 정책인지도를 오히려 낮추고 있다.

02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마존 대상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의 경우, 등학교 시 차량이 다닐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주민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게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 짓고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방식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의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실행되면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책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3 **보육·육아를 여성의 일로 고착화하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공식 이미지는 여성(치마 입은 이미지)이 아이를 손잡고 가는 그림이다.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은 여성, 엄마만의 목이 아니다. 보육·육아를 여성의 일로 고착화하는 이미지는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04 **기타 의견 및 개선점**
- 아마존 대상 학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 인근 지역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 차량과속 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대상지인 은빛초 현장답사에서 차량과속경보시스템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48

대사증후군 관리 원스톱 은평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수검

은평구 | 복지 | 건강증진과

모니터링 내용

1.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보고서 등 사업자료 분석
2. 사업 담당공무원 인터뷰 :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3. 사업대상지 방문 및 수검 : 구산지소, 토요 열린보건소(응암지소)에서 대사증후군 수검

모니터링 개선안

01 **검진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조기검진 및 토요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
대사증후군 검진은 검사 전 10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평일에도 오전 검진 이용객이 많다. 평일 오후 검진을 줄이고, 대신 조기 검진이나 토요일 검진을 늘린다면 유효 관리대상인 40대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02 **추구관리제도의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03 **운영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04 **문진표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내용 및 편집상 가독성을 증대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05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자가관리 지침서〉 소책자에 대한 의견**
- 성별 이미지 고착화 완화가 필요하다.
- 조기검진 및 토요 검진에 대한 이용법 안내를 삽입해야 한다.
- 검진대상이 왜 만 64세까지 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식단표 예시에는 글뿐 아니라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더욱 다양한 독자를 존중한 방식으로 보인다.

06 **장애인 검진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응암보건지소의 경우, 휠체어는 출입이 불편할 정도로 입구가 좁았다. 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진 장소는 어디인지, 충분한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07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08 **건강생활실천 유도와 연계하면 좋다.**

서대문구 | 하늬바람

서대문구 민간주체

하늬바람

2016년부터 활동한 서대문구 성인지 모니터링 모임인 하늬바람은 앞서 2013년부터 서대문구에서 성인지 모니터링 모임을 해왔던 분들의 노력을 디딤돌 삼아 새롭게 출발한 모임이다.
2016년에는 안전 문화운동,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건의, 공중화장실 개선,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마케팅 등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안을 제출하였다.

활동가 김은화, 변경미, 안혜선, 이지수, 전미옥, 정정림, 허은영
멘 토 황은정(이화리더십개발원 연구원)

13 서대문구

서대구의 젠더거버넌스

2017년 올해는 신규 사업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어르신 복지과)과 연속 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일자리경제과),
중등 직업 실무체험 운영(교육지원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추진 사업(지역활성화과)을 모니터링 하였다.
그 외로, 서대문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찾동 마을분야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도 추가로 모니터링 하였다.

현장 모니터링(인터뷰)

현장 모니터링(인터뷰)

49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추진

서대문구 | 복지 | 지역활성화과

모니터링 개선안

작년 모니터링에서 제기되었던 사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시설 개선 사항(보행약자 배려)
플레이버스 시설 내부가 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외부에 유모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방문객의 성별 및 시간대별 이용통계 추가
⇒ 방문객이 직접 설문지 작성
현재 상근자가 임의로 표시하는 방식이 아닌, 방문자가 직접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입구에 비치하여 작성하도록 요구. (성별, 이용한 시간, 이용시 만족스러운 점, 개선점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함.

반영결과

- 관광활성화자문단 충원 시 여성 자문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및 경력 많은 활동가 등 관광 전문 분야 확대로 올해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 높일 예정
- 홍보물 제작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특정 성에 차별적인 표현 등이 없는지 전문가 검토(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시 참조)
- 서대문구 스토리북 제작시 여성편의 시설 및 치안 돌봄시설 명시(반영 완료)
- 신촌 플레이버스 만족도 조사 및 제안사항 관련 설문지 비치

50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서대문구 | 복지 | 어르신복지과

모니터링 개선안

모니터링 결과

2017년 각 노인복지센터별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남성 및 여성 어르신의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선안

1) 재위탁의 과정의 평가 기준 변경.
   -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치로 평가가 되어, 인기 강좌로만 개설이 되는 아쉬움.
2) 남성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 인문학 강좌, 남성 어르신을 위한 가정식 요리 강좌 등
3) 회원 모집방식을 선착순접수나 기존 회원 접수가 아닌, 추첨제로 변경 건의

반영결과

- 매년 노인복지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 남성과 여성 어르신 모두 여가를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새로운 분야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

바둑·장기 등으로 대변되는 전형적인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과 함께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노년기에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51

중등 직업실무체험운영

서대문구 | 복지 | 교육지원과

반영결과

직업군 성별분석 실시 : 청소년들의 성역할에 대한 선입견 확인 및 양성평등진로교육 필요성 재고

- 강사에게 양성평등진로교육의 취지와 방향성 사전 안내
-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점을 반영하면 흥미위주 체험결과 학생들의 직업 인식 변화가 있었음.
- 사업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양성평등진로교육 활동 전 후 청소년 인터뷰, 활동 등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
- 청소년 인터뷰 및 활동 짧은 영상물을 제작, 양성평등진로직업체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업체험 시행 전 배포하여 홍보를 함.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성별분리통계 지속 실시 및 프로그램별 성별통계 구축**
- **효과가 저조한 양성평등진로특강 대신 양성평등진로체험 위주로 교육 실시**
- **기존의 직업군 성별분석, 만족도·효과성 설문조사 지속 실시**
-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직업군 탐색 및 발굴**

모니터링 개선안

01 | **1년에 2번 실시하는 양성평등직업 체험은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지도를 갖게 되나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사고의식을 가지기는 어렵다. 체험 횟수를 늘려 양성평등의식을 형성시켜야 하므로, 적절한 예산확보 및 인력확보가 필요.**

02 | **여성 직업군과 남성 직업군의 현실반영을 한 직업군도 체험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03 | **정책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교 1학년 위주 체험 학습으로 실시. 다른 학년의 학생 중에도 원하는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04 |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소를 활용하면 좋겠고, 더불어 이 사업을 확산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 컨설턴트가 필요**

52

서대문 마을기업

서대문구 |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

모니터링 개선안1

지원금 지원되지 않는 마을기업까지 포함한 성인지통계 작성이 필요하다

마을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 이전하는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한다

모니터링 개선안2

부모협동조합이며 마을기업인 콩세알어린이집은 보증금 5년 대출지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추가 지원 및 대책이 필요하다

조합원(회원) 출자나 국공립시설로의 전환 등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모니터링 개선안3

마을기업의 지원기간이 1년 혹은 2년에 한정되는데, 선정되는 점수 중 수익성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집약적인 노동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마을기업 특성상 항목 삭제나 점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주요하게 결정한 문제이다

모니터링 개선안4

마을기업의 일상적인 행정서류 및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등에서 상세한 안내와 점검, 지원을 해야 한다

버들바람

마포구 민간주체

버들바람

서울 마포구 젠더거버넌스 성인지 모니터링단 버들바람은 2017년 마포구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을 계기로 새롭게 꾸려진 모임으로, 마을공동체와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여성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활동과 구의회 방청, 페미니즘 책읽기 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활동가 권경희, 박신연숙, 윤영병, 이문자, 정미경, 정애경, 최영자, 한진숙

멘 토 박계현(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지역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관계망

마포지역은 2015년부터 마포여성네트워크의 '마주함께'에서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어린이교통안전사업, 골목길 쏠라표지병 설치 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 하였고, 2017년에도 버들바람 외에 마포여성네트워크의 '나비우리(나로부터 비상하는 우리)'에서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14 마포구

마포구의 젠더거버넌스

기본교육

다른 지역에서 진행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에 참여했다.

성인지 모니터링 워크숍

모니터링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3차례의 모임을 진행해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과제별 젠더이슈와 모니터링 방법론을 토론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활동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의견을 모으고 행정과의 정책간담회도 함께 준비했다.

모니터링 대상사업

- 안전홍보관 체험교육(보건행정과)
- '마포형민관협치'우리마을주민활동가 정책(복지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복지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마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일자리경제과 고용복지지원센터)

모니터링 활동기간 : 현장 모니터링(6월~9월), 활동보고서 작성 및 공유(8월~9월)

행정과 협의과정

- 버들바람 구성원이 마포여성네트워크와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2017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협의하고 공유, 연계하는 효과를 높였다.
- 젠더거버넌스 마포구 성인지 정책 간담회 (9/21 목 2시,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 :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팀, 마을공동체팀, 보건운영팀 공무원, 찾동추진단, 마을지원단장, 마을지원활동가, 마포여성네트워크, 서울시의원,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버들바람 모니터링 활동가들,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해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정책개선의견을 토론했다.

53

안전홍보관 체험교육

마포구 | 안전 | 보건행정과

영유아 및 초등학생과 부모들에게 안전사고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모니터링 과정

- 워크숍에서 사업실행계획서 등 자료를 통해 개요를 파악하고 활동 방향을 설정해 역할을 분담하고 모니터링 진행
- 현장 방문 : 마포보건소 2층 안전홍보관을 직접 찾아가서 '가정/교실 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직접 참관
- 관련자 인터뷰 : (사업담당 공무원)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을 확인
  (참여자) 안전교육 강사, 참여어린이, 인솔교사 인터뷰를 통해 사업 이해 및 만족도, 요청사항 등을 청취

모니터링 개선안

01 **교육 교재(시설) 보강**
교통 안전 교육 도구인 신호등과 횡단보도 모형 등 기본적인 교재 외에 모형 자동차나 교육 동영상 등 시청각 교육 자료가 보강되면 집중도와 흥미를 유발 시킬 뿐 아니라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됨.

02 **교육강사, 어린이 집 교사의 피드백**
사업기획이나 교육내용을 결정할 때, 그리고 향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강사나 어린이집 교사의 피드백이 반영되도록 자체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03 **교육강사 고용 및 계약 개선 및 강사 증원**
교육강사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로 채용되어 보건행정과에 배정되었고 계약기간 5개월의 계약직으로 고용기간이 짧고 고용상태도 불안정함. 매년 강사의 교체로 인한 전문성 결여 및 저소득 단기 일자리라는 고용 불안정 상태는 이 사업이 연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게 하는 됨.

반영의견

새로 건립될 아현보건지소로 안전홍보관이 이전되면 실습교육을 위한 시설 및 도구가 보완되도록 할 예정임.

54

「마포형 민관협치」우리마을주민활동가 정책

마포구 | 복지 | 복지행정과

마포형 민관협치를 위해 도입한 시험적 사업으로 서울시 주도의 협치를 마포에 이식함에 따른 한계를 탈피하고 생활밀착형 거버넌스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목표로 함.

모니터링 과정

- 워크숍에서 조례, 추진종합계획안, 업무 매뉴얼, 워크숍 계획안, 모집공고, 워크숍 출석부, 워크숍 결과보고, 예산계획(총1억 6백만원) 등의 자료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고, 현장모니터링을 병행
- 관련자 인터뷰 : (사업 담당공무원) 구청 및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참여자) 워크숍 참가자(신규 참가자, 직능단체소속 참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이해 및 만족도, 요청사항 확인

모니터링 개선안

01 **긍정적인 면**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맞춤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
- 성비와 세대 간 상호협력을 고려한 젊은 협치리더로서의 신규 주민활동가 발굴
- 생활일자리 창출

02 **부정적인 면**

- 교육의 연결성 미흡 : 우리마을주민활동가 모집인원 선발종료 후 교육까지 두세달, 교육수료 후 발대식까지 두세달의 공백이 있고, 그 사이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아 교육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관심도도 낮아짐.
- 우리마을주민활동가 선발기준과 현실의 괴리 : 선발기준과 다르게 특정 성(여성)의 비율은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참여 연령대 또한 30~40대 비율은 기준치와는 현격한 차이로 밑돌고 있음. 젊은 세대의 동참을 위한 대책이 미흡함.
- 교육시간대의 비현실성 : 이 사업의 모집대상이 80% 이상의 30~40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 주부, 경력단절여성 뿐 아니라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표방하지만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의 시간대에 교육을 실시함.

반영의견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참여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주민과의 소통,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55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마포구 | 복지 | 복지행정과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주체적 주민 발굴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모니터링 과정

- '주민이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추진'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
- 워크숍에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매뉴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보고서 등의 자료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고, 현장모니터링을 병행
- 현장 방문 : 마을계획단 총회 참관
- 관련자 인터뷰 : (사업 담당공무원)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참여자) 사업주체인 마을계획단원, 마을사업전문가, 찾동 추진지원단 인터뷰를 통해 사업 이해 및 만족도, 요청사항 확인

모니터링 개선안

01 긍정적인 점

- 사업 매뉴얼은 진일보 : 인권, 성인지, 협치를 사업의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실행하며 행정은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주민 자치' 실행 방안 제시함.
- 민관 협치 가능한 방안 구체화
- 주민들 사이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고 있음

02 부정적인 점

-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동 현장에서 매뉴얼은 힘이 없다 :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나와 있지만 비혼가구나 청년, 노인들이 마을계획단에 보이지 않는다. 손쉬운 주민발굴의 결과다.
- 매뉴얼에서 핵심가치로 성인지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전부다 : 성주류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이나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
- 마을계획단 내의 역할과 권한이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 : 음식 준비는 여성, 힘쓰는 일은 남성, 대표는 남성, 나누고 돌보는 일은 여성
- 여성이 훨씬 많은데 여성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 라고 할 만큼 사업 주체들의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모호하다. 성인지적관점을 성별 숫자로만 인식하는 정도다.
- 봉사 정신으로 뭉친 무보수 유휴 인력, 동분서주하는 마을사업 담당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 약한 주민인 마을의 중년 주부들이 마을계획단을 지탱하고 있다.

03 정책제안

- 사업 매뉴얼 개선 및 성과 측정 지표 마련
- 사업 주체들, 마을계획단 주민들에게 젠더 감수성 교육 기회 부여
-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56

마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마포구 |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 지속가능성 재고를 목적으로 함.

모니터링 과정

- 지역거버넌스강화, 주체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
- 워크숍에서 사업실행계획서 등 자료를 통해 개요를 파악하고 활동 방향을 설정해 역할을 분담하고 자료분석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
- 현장 방문 : 센터가 사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참관
- 관련자 인터뷰 : (센터 사업담당자) 실질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모니터링 개선안

01 **센터 조직구성 및 운영**
- 마포구 사경 사업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성별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았음.
-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성비구성은 남성이 대다수임. 조직구성은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내에 사경센터가 팀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센터장/팀장/매니저(4인)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성이 다수인 조직으로 여성들이 일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음
- 센터 위탁운영이 연단위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어서 연속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은 한계임.
  센터 활동의 주요 대상인 사경 기업 내부의 성인지 정책 관점을 파악하는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음.

02 **성별관련 통계 생산**
사업참여자 관련 성별 통계 보강이 필요하며, 해마다 하는 기업실태조사에 성인지관련 항목(기업들 내부조직의 성별통계, 사업분야관련 성별참여도, 성별수혜율 등)을 넣을 필요가 있음.

03 **운영의 연속성 강화 및 센터의 자율독립성 보장**
지원의 연속성과 센터사업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운영계약이 필요함. 사경센터의 자율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구성도 필요함.

04 **민관거버넌스 강화**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 꾸준한 거버넌스 테이블을 통해 조례제정이나 마포구 사회적경제 장기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05 **마포구 만의 사회적경제 장기계획 필요**
마포구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조직임에도 예산이 시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자치구에서도 걸맞는 예산 마련이 시급함. 서울시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구인만큼 자치구 별도의 지원책을 보완하고, 풍족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을 한다면 자치구에 새로운 모습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함.
그 외 의견으로 소규모인 사경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노무이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부자문가를 두는 방법을 제안함.

반영의견

- 성별통계를 센터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 조례제정 및 센터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강화는 장기적 과제로 현실화 위해 검토 필요함.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알리기 위해 교육을 진행·계획 중에 있으며 더욱 강화예정임.

양천구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양천구 민간주체

서울남서여성민우회

1995년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었으며,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나와 이웃, 지역을 바꿔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초창기 생협 활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생협 독립법인화 이후 지역사회의 여성, 환경, 교육, 평화, 인권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회원들 중 8명이 이번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서울남서여성민우회의 발자취

- 반성폭력 교육강사 양성 및 지역 아동성교육 실시
- 민우여성학교(여성인권, 여성학, 환경, 정치세력화)
- 쓰레기, 꽃이 되다! (생쓰레기 퇴비화 생활실천 캠페인)
- 보육, 사회적 돌봄으로!
-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백화점 서비스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영화읽기 교육 등
-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성폭력 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활동)
-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기꺼이 불편해지기'

활동가 이경란, 이주용, 채영희, 노정은, 박미향, 김주숙, 이희숙, 김은영
멘 토 장명선교수(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양천구의 젠더거버넌스

양천구는 몇 년간 서울남서여성민우회와 젠더거버넌스를 함께 진행해온 만큼 여성가족과와의 신뢰관계는 두터운 편이다. 여성가족과측에서는 매년 주민입장의 개선안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년도 젠더거버넌스에서는 사정상 대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서면으로만 개선안을 전달하였다.

15 양천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목공체험장운영(평생학습의 활성화)**	교육지원과	복지
02	**어르신상담센터운영**	어르신장애인과	복지
03	**찾아가는 부모교육**	출산보육과	복지
04	**정신건강증진센터**	의약과	복지

57

나무마을 목공방 체험 프로그램

양천구 | 복지 | 교육지원과

사업개요

사업내용 환경친화적인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들이 직접참여할 수 있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DIY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대상 양천구 관내 주민 및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단체

예 산 102,180천원

모니터링 개선안

지원 예산의 장기적 증설 필요
실무자 인터뷰 결과, 공방내의 기계실의 면적과 수납공간이 부족했고, 정해진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작품을 할 수 없거나 작품의 한계가 있었음
참여자 인터뷰 결과, 작품의 다양성과 심화반 운영의 요구가 있었음. 주민이 비용을 본인 부담할 의사가 있음에도 추가 이용이 불가하고, 작품선택의 권한이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함

다양한 접수방법 활용 필요(인터넷, 현장접수 등)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낮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차문제 해결 필요
설문조사 결과,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현대백화점은 주차요금이 비싸고, 목동운동장은 너무 멀어요.”
(주민인터뷰)

58

어르신 상담센터

양천구 | 복지 | 어르신장애인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전문개별상담, 찾아가는 맞춤상담, 집단 상담
전문상담사(법률, 심리 등) 와 상담봉사자(9988봉사단)이 나누어 상담 진행

예 산 50,290천원

모니터링 개선안

어르신 상담센터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로 관리 필요

센터 이용 시 법률지원 등은 주제별로 분석하여 어느 영역에서 법률지원을 많이 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어르신 상담센터의 상담이 전문상담으로 되기 위해서 상담자들의 역량 강화 방안 필요

전문상담사와 9988봉사자들의 성인지교육 실시 필요

59

찾아가는 부모교육

양천구 | 복지 | 출산보육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 취약계층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역할과 자녀이해 및 올바른 양육 지원
- 가족갈등예방, 가족기능 강화, 가족의 문제 해결 지원

사업내용
- 양천구 관내 군부대 및 중소기업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진행
- 자녀 연령대별 발달단계 이해교육 실시
- 부모 양육태도 점검

모니터링 개선안

취약계층부모나 양육자가 최소 연 2회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생업으로 바쁜 취약계층 양육자들은 부모교육사업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사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연간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 부모교육 사업의 결과는 단 시간 안에 확인할 수가 없음. 하지만 미래의 가족,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업
-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목공체험사업- 일억 이상)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부모교육 사업 예산(약 이백만원)이 더 많아야 함.

공무원, 담당자를 위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공무원, 담당자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교육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

반영의견

2018년 찾아가는부모교육 사업 진행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성인지 교육(자체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음

60

양천 정신건강증진센터

양천구 | 복지 | 의약과

모니터링 개선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
- 직원 한명당 적정 담당인원이 20~30명인데 양천구의 경우 90명 이상을 담당
- 업무량이 많아서 대상자 한 명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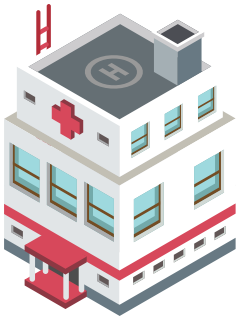
직원들의 여성안전문제 개선
- 상담을 위한 내방 시 기본은 2인 1조여야 하는데 인원부족, 시간부족을 이유로 혼자 내방하게 되는 현실
-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여성직원 혼자 방문할 경우 위험한 일 발생할 수 있음
-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니 2인 1조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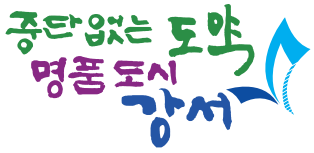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 개선 필요
- '정신건강'이라는 문구로부터 오는 선입견도 있는데, 어둡고 지하인 위치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센터방문에 심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음. 접근하기 편안하도록 위치(지상)와 분위기(밝고 편안함)를 개선해야 함

경직된 상담실 분위기 개선

좀 더 안정감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면 좋을 듯함

홍보 강화 및 가족프로그램 개발
- 전연령대상으로 홍보 진행해야
- 선입견을 없애고 평상시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개발





강서여성모임

강서구 민간주체

강서여성모임

강서 양천 환경운동연합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환경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활동가 공경미, 김명순 , 김미영,, 이홍자, 정미옥, 조명선

멘 토 송문이(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16 강서구

강서구의 젠더거버넌스

1강	5/30	젠더감수성 높이기 (윤정숙_녹색연합대표)
2강	6/ 7	미디어 속 여성 낮설게 보기 (백향숙_한국여 성민우회)
3강	6/13	여성의 눈으로 정책바라보기 (김양희_젠더앤리더십)
	6/14, 22	젠더거버넌스 개념을 알아보고 과제선정
	6/29	워크숍– 모니터링 방향 및 지표 설정
	7월~8월	현장모니터링 및 인터뷰
	9/18	행정간담회 강서구 여성정책과 모니터링 활동 공유 및 개선안 제안

61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서구 | 복지 | 어르신청소년과

모니터링 과정

7월17일	**사업계획서 및 자료분석, 질문지 만들기**
7월26일	**구청담당 공무원 인터뷰**
7월28일	**기본서비스** – 강서어르신생활복지관 **종합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현장 인터뷰
8월16일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사회복지사 인터뷰**
8월17일	**기본서비스관리 생활관리사 인터뷰**
8월18일	**서비스돌봄대상자 방문 주민인터뷰**
9월4일	**보고서작성회의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개선안

- 기관의 운영위원은 남성들 위주이며 종사자분들은 여성이여서 성인지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실무자나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
- 남성분들은 돌봄 대상자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부끄럽다거나 돌봄 자체를 불편해 하심) 남성위주의 교육과 프로그램 필요
- 어르신 교육프로그램 시 남성분들의 참여가 적어 관계 구축망, 이웃의 교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있어 서면으로 대상자가 통보될 때 바깥과 교류가 없는 어르신이라면 문서를 못 읽거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음→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 있음
- 어르신들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함
- 기관이나 어르신서비스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감독 필요
- 현황 조사시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와 고지(우편발송), 통장과의 연계가 되었으면 함

담당공무원 인터뷰 진행

생활관리사 인터뷰

사회복지사 인터뷰 진행

62

지역공동체 일자리

강서구 |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

모니터링 개선안

테마등 달기, 다문화강사, 자전거 수리
성별격차가 심하게 남

성 역할 고정관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공공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성차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담당자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 진행시에는 참여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 운영과 참여자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혜자의 성별 통계자료와 성별영향평가 반영 필요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운영과 참여자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63

봉제산 근린공원 편익시설 정비

강서구 | 복지 | 공원녹지과

모니터링 과정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계획서 분석
- 사업당당 공무원 인터뷰
- 사업장 관리자 인터뷰
- 사업 참여자 인터뷰

모니터링 개선안

-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는 8월초쯤 진행 가능하다고 함(사업관련 심의 중이라 9월이 되어야 시행가능하며 12월쯤 사업이 완료 가능)
- 운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음
- 화장실은 사업계획안에 없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에서 적용배제 함 (여성화장실 개수 부족, 장애인 화장실은 잠겨있음)
-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아 가사시간을 고려할 때 아침, 저녁시간 이후 여성의 공원이용률이 높음
-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강한 근력운동의 운동기구 보다는 유산소운동,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 공간 및 운동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함
- 시설물들의 노후로 파손된 부분들 발견, 정비가 필요 함

64

자전거이용 활성화

강서구 | 안전 | 교통행정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홍보와 안전교육필요

모니터링 결과

- 남녀구분이 있으며 거치대 주변이 잘 정리가 된 모습
- 자전거 앞 바구니, 야광등, 기어, 단말기 등 탈부착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자전거 거치대와 바퀴쪽에 연결고리가 있어 도난예방
- 자전거 고유번호가 있고 자전거에 QR마크도 있음
- 안장높이 조절 가능.(여성도 큰 힘 들이지 않고 높이 조절 가능함)
- 만 14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
- 거치대 옆에 안내간판이 있음.(이용방법, 이용문의 등등 지하철역, 마트, 학교, 시장 등 번잡한곳에 설치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음. 앱에 위치랑 사용법등이 설명되어 있음)
- 안내간판이 있어서 초보자도 이용 쉬움.(결제의 다양성포함)
- 자전거 부속품들의 탈부착이 쉽게 되어 있음.(노후 되었을 시 수리나 호환 가능)

방화역5호선(차양막과 공기주입기설치)

모니터링 개선안

-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충이 시급함.(차량정체를 해결)
- 대여소의 자전거 거치대와 공기주입구비치요망
- 따릉이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안전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장필요.
  (안전사고 위험 늘고 있어 사고 발생시에 대처법, 음주자전거 등)
- 차양막 설치로 자전거 부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액정 안전덮개 필요함)
- 자전거 관리지킴이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확충필요(현재2명)
- 도난, 버려지는 자전거를 개화역 한쪽에서 보관 중,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함.
- 까치뉴스나 구청홈페이지에 따릉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
- 주변에 휴지통 비치하기를 바람(자전거 바구니에 쓰레기버림)
- 관리자 표시 없음〈일반자전거 거치대는 공무원이랑 시민 지킴이가 있음〉
- 아이를 태울 수 있는 뒷 안장 없음〈여성들은 시장이나 마트 갈 때, 아이 데리고 가까운 곳 외출하는 경우가 많음〉
- 50대이상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움.

마곡중학교앞

더초록

구로구 민간주체

더초록

더초록은 마을에서 환경과 생태등에 관심을 가지고 소모임으로 활동하며 2014년9월 여성환경연대 남서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대안생활용품만들기, 캔들나이트, 생태, 환경교육, 밥상모임, 여성주의책모임, 캘리그래피등을 통해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꿈구고 있다. 여성의 눈으로 정책을 바라보는 성인지모니터링은 2014년부터 함께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전, 복지, 일자리를 6명이 함께했다.

활동가 김경아, 권선숙, 정선영, 이미옥, 박양임, 최진옥, 조미순

멘토 송문이(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모니터링단 학습

홍보현수막

행정과의 간담회

17 구로구

구로구의 젠더거버넌스

활동과정

6월8일	행정과의 사전간담회
6/30~6/13	모니터링단교육
	6월 : 중점모니터링 대상사업선정
	가족행복드림, 공중화장실, 자활근로사업, 치매지원센터
7월~8월	현장모니터링활동
8월31일	행정과의 간담회
9월	모니터링활동에 대한 점검및 개선안 작성

65

가족행복드림사업

구로구 | 안전 | 여성정책과

모니터링 과정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담당자, 수혜자, 비수혜자 질문지 만들기
담당주무관 인터뷰	현장모니터링 및 수혜자 인터뷰
회의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후 담당주무관과 간담회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다-교육

사업과제선정중

모니터링 개선안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구로구 대상 사업이었으면 함. 더 많은 대상자 발굴하고 많은 구로구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음**
- **사업자체가 강제성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상담 가능. 다양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필요한 가정은 참여를 원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가졌으면 함**
- **대상자를 몇몇 유관 기관을 통해 발굴하는데 유치원, 학교, 주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으면 함. 문제가 있어 보이면 무조건 신청하고 판단은 상담 진행 후 솔루션 위원회에서 했으면 함**
-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상담사, 대상자,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평등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지침이 필요함**
- **대상자에 대한 가족 중 누구에 의해 신청을 받았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상담가족의 성별, 연령, 지역등 대한 자세한 자료가 정리되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통계를 통한 더나은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됨**

반영의견

- 현재 대상자 발굴시 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는 등 다방면으로 추천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홍보 예정
- 상담사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추후에 고려 가능하나, 교육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온라인교육 수료 후 수료증받는 방법을 고려할 예정
- 대상자(가족)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역등을 통계 분석 예정

행정과의 간담회

66

자활근로사업

구로구 | 일자리 | 사회복지과

모니터링 과정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담당자, 수혜자, 비수혜자 질문지 만들기
담당주무관 인터뷰	현장모니터링 및 수혜자 인터뷰
회의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후 담당주무관과 간담회

담당주무관인터뷰

모니터링 개선안

- 자활근로기간이 최소 3년~5년 이내로 일이 끝나면 갈 곳이 없으므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파견직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가 간혹 발생하는데 파견근로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쉽게 신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인 성폭력, 추행 예방교육과 발생 시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독관 및 각 단체의 대표들에게 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자활에서 새로 유입된 40~50대남성과 젊은 한 부모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가정이 해체되기 전 사전에 부모교육, 부부교육이 필요함
- 참여자의 탈 자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수급비가 적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자활에서 창업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반인에게 적극 홍보와 지원으로 탈 자활이 잘 이뤄지도록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하길 바람
- 자활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사업비가 고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자활담당자 인터뷰

반영의견

- 중장년층 남성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개발방안 검토
- 돌봄사업단 등 파견자활사업 파견인력에대한 교육강화 검토·개인 취·창업 적극 권장 및 자활기업 홍보 지원강화

67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구로구 | 복지 | 지역복지과

모니터링 과정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담당자, 수혜자, 비수혜자 질문지 만들기
담당주무관 인터뷰	현장모니터링 및 수혜자가족 인터뷰
회의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후 담당주무관과 간담회

센터 담당자인터뷰

수혜자보호자인터뷰

모니터링 개선안

- **치매지원센터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므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치매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치매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 **치매지원센터를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많으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치매센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함**
- **치매지원센터 직원은 3년 주기 계약제(고대병원 위탁)인데 정규직전환하여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이 필요함**
- **구로구에는 노인요양기관만 있으므로 치매요양기관도 설립되었으면 함**
- **간호사, 자원 봉사자들의 성인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필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함**
- **치매조기검진을 모든 병원에서 실시 및 홍보가 되어야 함 (예 : 독감 예방 접종 시)**
- **여성의 자원 봉사 참여율이 높은데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국한시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남성 참여율을 높여야 함**

반영의견

- 치매지원센터 2020년 교정시설 이적지 이전 설치 계획임.
- 인식개선관련 교육 및 캠페인 지속적 강화 추진(언론홍보 등)
- 센터직원대상 성인지교육 예정(9/27)
- 봉사자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원으로 남성 봉사자만 참여율을 높이기는 어려움.
- 치매조기검진은 시간이 촉박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경우 검사가 불가하고 비전문인의 검진 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치매센터에서 조기검진 방법을 더욱 다양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68

공중화장실 개선(관내공중화장실및 민간개방화장실)

구로구 | 안전 | 청소행정과

모니터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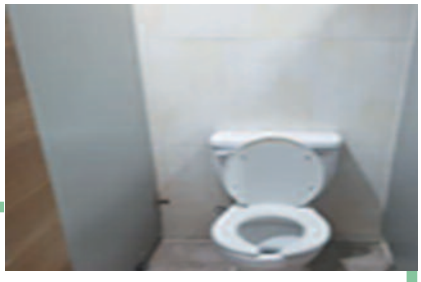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담당자, 수혜자, 비수혜자 질문지 만들기
담당주무관 인터뷰	현장모니터링 및 수혜자 인터뷰
회의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후 담당주무관과 간담회

화장실이 어디?

모니터링 개선안

- **유모차나 자전거를 휴대하는 사람을 위한 시설이 있었으면 함 (예 : 보관함)**
- **장애인이나 아이 동반자들을 위한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음**
-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곳 보다는 경사나 평지가 함께 있는 곳에 위치 했으면 좋겠음**
- **밤에도 주변이 환하고 인적이 있는 곳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음**
- **계단 중간이나 끝 쪽에 노약자나 장애인이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 등이 있으면 좋겠음**
- **세면대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발판이 필요해 보임**
- **남성 화장실에도 노약자를 위한 응급용 비상벨 설치가 필요함**
- **청소상태 점검표에 고장상태 확인란이 추가되었으면 함**
- **위생용품 판매대 설치가 필요함**

계단을 올라가야만 있는 화장실



비좁은 화장실

반영의견

- 전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 비상벨 설치 후 남성 칸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
- 공중화장실 신축 시 눈에 띄기 쉬운 화장실표시를 전면·좌·우측에 부착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개방화장실에 안내표지판 조사 후 부착 예정
- 신축 시 공중화장실의 이용 빈도 및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음.
- 고장상태 확인란을 만들어 기재하기보다 고장 확인 즉시 관계자와의 연락망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우선시 함.
- 유아용 발판이 일부 공중화장실에 비치되어있으며, 점차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위생용품 판매대는 설치와 관련하여 추후 검토 할 예정
- 안양천 고척교 입구 공중화장실(2017. 7월 신축) 좌·우측에 핸드레일을 설치 하였으며, 향후 신축 시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공중 화장실 주변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임

SHINING GEUMCHEON 금천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금천구 민간주체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2014년 3월에 설립하였으며, 전국도시농업협동조합과의 만남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주 화요일 '화요장터'라는 이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주민의 도시농업활성화와 친환경 농작물보급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정책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가 김선정, 김현미, 박영인, 이명란, 오애리, 이나영

멘 토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금천구의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교육(여성주의입문)	1강(5/20) : 더나은 삶에 대하여_에코페미니즘 (강사 김신효정) 2강(5/20) : 성인지감수성과 마주하기 (강사 김은희) 3강(5/27) : 도시공간과 성평등 (강사 장미현) 4강(5/27) : 여성주의와 마을공동체 (강사 윤정숙)
모니터링 워크샵	1차(7/05) : 인사 및 성인지정책모니터링 사업설명 2차(7/07) : 모니터링 과제선정논의 및 워크샵 일정논의 3차(7/21) : 모니터링 과제확정 및 진행방법, 일정논의 4차(8/17) : 모니터링 진행공유 및 추가 모니터링 진행논의 추가모임(9/1) : 모니터링 진행공유 및 개선안 도출
현장 모니터링	7~9월 : 현장모니터링 및 인터뷰, 설문조사
행정간담회	9/28 : 모니터링 활동 공유 및 개선안 제안

18 금천구

모니터링 교육(여성주의입문)

모니터링 워크샵

현장모니터링

행정과의 간담회

69

마을버스

금천구 | 안전 | 교통행정과

모니터링 과정

마을버스 이용주민 설문조사 70명, 마을버스 기사 설문조사 3명, 담당공무원 인터뷰 1명

모니터링 개선안

01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 개선**

- 교통약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좀 더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살펴야 하는데 승하차 안전부터, 버스시설노후, 배차간격 등에 대한 불편이 많음.
- 난폭운전과 불친절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로조건 개선과 증차, 꾸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분위기 조성 필요.
- 수익사업이다 보니 정작 위험하고 걸어가기 힘든 노선에는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곳이 있어 여성들의 밤길 귀가의 위험이 있고, 어르신들도 힘들어 하고 있음. 학생들의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 일시적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

02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수익구조 개선 필요**

- 마을버스 사업자는 마을버스 노선 몇 개 가지고 운영하는 소규모가 많고 지원규모도 시내버스에 비해 적어서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
- 사업자가 마을버스 영업권을 팔아 넘기는 사례도 있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 시내버스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7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과 함께 하는 신통방통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금천구 | 복지 | 복지정책과

모니터링 과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서 분석 및 사업담당공무원, 창업지원센터장 인터뷰.
창업지원센터 현장 방문하여 이용자 인터뷰

모니터링 개선안

01 **찾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홍보와 사업이 더 필요함**

- 주민이 활동가가 되어 찾동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활동가와 주민 개인이 느끼는 차이가 크고 아직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음.

02 **성인지 교육과 근무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

- 여성이 마을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음.
-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7명 중 4명이 여성으로서 차별이나 비하적 언행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 함.
- 마을활동은 주말과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여성 활동가들이 가정 생활과 일을 양립하기가 어렵다고 호소.

71

자살예방사업

금천구 | 복지 | 건강증진과

모니터링 개선안

01 자살은 개인적 접근이나 개별적 추진으로는 자살 예방효과를 높이기가 어려움.
기관별, 부서별 추진 사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음.

02 자살의 동기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예방대책에 대한 연계가 필요함

03 자살 관련 유관 센터의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04 자살동기에 대한 원인 중에서도 성별은 앞서 제시한 다른 요인들과 교차해서 살펴보아도
공통적으로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임.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성별격차와 더불어 성별과 격차를 유발시키는
다른 요인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72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

금천구 | 복지 | 여성보육과

모니터링 개선안

01 |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으며,
외부활동을 위하여 외출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집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분석근거가 나와야 됨.

02 | 방문상담사에 대한 의식향상 교육과 인권교육, 성평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접근방식 필요.

03 | 남성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의 경우 남성 삼담사 활용,
가족단위 위주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04 | 현재 상담취약계층(남성)의 참여율이 더 증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담서비스 사업에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새로운 집단들을 발굴하고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방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 있음.

05 | 상담내용이 성별요구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남성이 필요로 하는 상담의 내용이나 방식과
여성이 필요로 하는 상담의 내용이나 방식이 다르거나, 요구하는 난이도가 다른지 점검.

행복중심 영등포 | 서울여성회 영등포여성회

영등포구 민간주체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영등포구 모니터링단은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여성회는 생활인 여성들의 공동체로, 여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여성회는 3개의 지역지부(노원여성회, 동서울여성회, 영등포여성회)가 있고, 특별지부로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이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성평등교육센터, 언니네작은도서관이 있어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여성주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가 공윤경, 김희진, 윤미영, 이명희, 조민욱, 함송화
멘 토 서민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19 영등포구

영등포구의 젠더거버넌스

영등포구의 경우 담당 주무관과 마을 분과장 등 담당자들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고, 개선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반영의지를 보였다. 각 사업별로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협조가 원활한 편이었으나, 담당 주무관이 자주 바뀌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큰 예산을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느꼈다. 앞으로 성인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부모커뮤니티 사업**	가정복지과	복지
02	**어르신일자리 사업**	어르신장애인과	일자리
03	**공중화장실개선사업**	푸른도시과	안전
04	**혁신교육지구**	교육지원과	복지

73

부모커뮤니티

영등포구 | 복지 | 가정복지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 지원 사업
2017년 영등포구 부모커뮤니티 사업 공모에 참여한 11팀 중 6팀이 선정

사업 관련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

사업의 특성상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 우려지점 + 담당자의 잦은 교체 + 사업지기들과의 소통 필요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안 마련

- **부모커뮤니티의 주 대표제안자 : 여성**
- **혼합모임으로 신청·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
- **'부'와 '모'가 함께 본인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여성 중심으로 운영됨**

+ 6팀 중 처음으로 아빠모임 1팀이 선정되어 참여 중. 이는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선정되었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단기적 해결방법에 불과함

사업 안에서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2016년까지 마을공동체교육으로 진행되던 필수교육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부모교육으로 대체

- **변경 전** 사업지기들이 마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 마을 참여 등에 대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
- **변경 후** 교육 내용의 다수가 부모의 역할에 집중하는 내용(엄마아빠도 위로가 필요해 등)으로 그 외에 본인의 성장에 대한 교육이 부재 +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다수 교육이 3~4회차로 구성되어, 1회차 교육을 이수하는 사업참여자들에게 부적합.

사업지기들 간의 소통을 높이고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입장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 의무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함.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명 변경 (양육자 〉 부모)

지역 내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본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명 자체에서부터 자녀는 부모가 키워야한다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되는 명칭을 사용
주양육자를 부모에 한정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범위로 확장

74

주민 안전을 위한 남녀 공용 화장실 개선 사업

영등포구 | 안전 | 푸른도시과

양남어린이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대림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남녀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양남어린이공원 등 남녀 공용화장실을 남녀구분 및 시설 개선하여 여성,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총체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필요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청결성이 높은 문래 근린공원조차 생리대 자판기, 휴지 등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음.
남녀 화장실 구분없이 기저귀 교환대나 모자실이 설치 되어야 함

01 **공중화장실 지역별 현장모니터링 결과 지역별로 균등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필요**

지역별 공중화장실에도 시설에서 격차가 많이 나타남. 문래근린공원 공중화장실이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청결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공중화장실에 경우, 모든 시설면에서 부족함. 신길동의 고추말어린이공원과 대림동의 두암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중화장실이 아예 없었고, 주변에도 개방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없음. 영등포동의 영등포공원 화장실의 경우 장금장치가 고장나 있었으며, 장애인화장실에 쓰레기를 모아놓거나 수시로 사용하는 청소도구를 두는 곳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태반. 지역별로 고루 환경개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등이 필요

02 **공중화장실을 주민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 필요**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선해야함.

03 **이용 시간에 맞는 안전대책 필요(특히 밤!)**

공원 주변으로 가로등을 밝게 설치하는 등의 대책 필요하며, 인적이 드물어지는 새벽 시간에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마련.

04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획이 늦춰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높고, 문이 좁음(대림 어린이 공원)

입구가 좁고 외진 곳에 있어 위험하며, 공용화장실임에도 안이 무척 좁음. (동심어린이 공원)

장애인화장실 칸의 위생상태 청결하지 못함(대림 어린이 공원)

75

어르신일자리 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사업 만 60세 이상)

영등포구 | 복지 | 어르신복지과

모니터링 결과

01 여성은 돌봄 노동에, 남성은 택배나 교육에 관련된 일에 치우치는 경향이 큼.

02 활동비가 월 22만원 이내로 적어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특히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가 심각한 만큼 여성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대책으로서 일자리 사업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향상이 필요

03 연간 2,4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 시 행정동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함. 영등포구는 동별로 소득차가 큰 지역이므로 (여의도동과 신길동 등) 각 동별로 어르신 참여비율, 성별비율 등을 분석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는 일자리 기획,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04 20여명의 전담인력의 대부분이 여성. 현재 기본급 외에 초과근무 등에 관련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의 양이 많아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그래서 경력을 위해 보다 급여가 높은 곳으로 이직하는 비율(특히 2~30대)이 높은 상태.

모니터링 개선안

-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운영과 참여자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수혜자들의 경제적 상황 및 학력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확장으로 수혜자 확장 및 임금향상 필요
- 수혜자의 동별, 성별 통계자료와 중도포기자의 이유와 성별 통계자료 필요
-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필요

76

혁신교육지구 사업

영등포구 | 복지 |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원사업은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마을-학교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필수과제 사업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마을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청소년 자치 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이 있으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이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 개선안

01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체계 관련**

분과회의 등 기본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운영협의회는 당연직(구청장, 교육청장 등 현재 교육계에서 책임있는 자리)으로 구성되어 남성의 비율이 높음. 이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체계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최종 의결기구가 운영협의회인만큼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업이 결정,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필요

02 **성인지 교육의 확대/강화**

현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부모 및 마을강사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인권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마을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 전반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안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진행해야 할 것

03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현실적으로 사업구조나 진행되는 여건 상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의 참여가 높은 편. 남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고 이후 마을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촘촘한 기획과 로드맵이 필요

04 **학부모를 비롯 주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

다양한 사업과 큰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학교 내 학부모 운영위 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

행복한 변화 동작 사람사는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Good Society Activists

동작구 민간주체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동작지역의 풀뿌리 여성단체입니다 . 단체 내 보라돋보기라는 모임을 통해 동네한바퀴 – 여성 안전마을 만들기를 진행 '여성안심 거울길'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서울전역에 확산 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변화를 이르킬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 동안 멀고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행정과의 만남과 소통이 조금씩 서로을 이해하고 사업을 공유하며 나와 나의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함께할 수 있음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어렵고 변화의 과정은 더디지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다면 마을의 주민과 공공의 행정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들이 생겨납니다.~

활동가 김도은, 김민주, 김희정, 박현숙, 심은선, 이영득, 윤용내, 전귀남, 함경주
멘 토 오나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 기획 및 분석 평가회의

젠더 거버넌스 회의

20 동작구

동작구의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활동 교육 : 낯설게 보기

1강 5/17 – 젠더 감수성을 높여봐요(강사 : 신하영옥)
2강 5/24 – 성인지 정책과 젠더 거버넌스(강사 : 오나경)
3강5 /31 – 관심갖기, 젠더 거버넌스, 그리고 변화 (강사 : 김수정)
4강 6/7 – 공간, 어떻게 바라 볼것인가(강사 : 최유진)

모니터링단 워크숍 : 성인지 모니터링 기획 및 진행과정, 결과보고를 위한 전문가와 활동가 워크샵

1차 5/11 성인저 정책 모니터링 선정 및 팀구성
2차 6/14 모니터링 지표교육 및 과제별 모니터링 분석
3차 7/12 모니터링 점검 및 추가 모니터링 조정
4차 8/10 모니터링 활동 최종 점검 및 젠더 거버넌스 회의 방향 설정

행정과 사전 간담회 : 6/9 동작구 여성가족과, 모니터링단

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및 모니터링 대상 사업 논의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중화장실, 동네체육시설)

현장 모니터링 활동 : 7월~8월

사업 자료 분석, 담당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사업 관련 기관, 주민 등 인터뷰, 현장 방문 모니터링

동작구 젠더 거버넌스 회의 : 9월 15일 (2~4시)

- 동작구 4개사업부서 담당자 및 여성가족과 공무원, 모니터링단, 서울시, 동작구 지역 단체 활동가
- 2017년 성 인지 정책모니터링 내용 공유 및 개선안 제안

77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동작구 | 안전 | 도시전략사업과

모니터링 과정

사업대상지 방문(설명회, 주간, 야간, 보안조처 후)	실직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사업 담당자 인터뷰	
현장 주민 인터뷰	사업 이해 및 만족도, 요청사항 확인
사업자료 분석	사업의 방향, 사업내용, 진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주민인터뷰

아동, 노인, 여성 등 실제 사업수요대상의 욕구는 반영되었는가?
지역주민의 요구도 조사방식 및 만족도 조사방식의 변경필요

깨끗하고 안전한 느낌을 디자인을 이용한 시설물 설치
- 수혜자의 특성이나 배려가 부족한 공급자 중심의 구조물 및 디자인이 여러군데 나타남
- 의자의 높이, 음성인식 비상벨의 위치, 보행자를 배려하지 못한 단차 없는 계단, 설치, 개폐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미니 소화기 등 정책을 기획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위원회인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구성의 성비 불균형
- 17(남성) : 3(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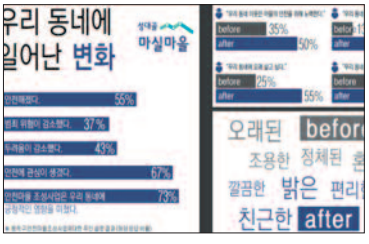
모니터링 개선안

01 **기획단계부터 주민의 참여필요**
안전봉사단 회 실 수혜대상자, 마을주민의 참여 및 의견반영 방식 도입 (주요대상자 위주의 설문조사, 지역단체를 통한 의견수렴 및 참여유도)

02 **작지만 큰 디테일의 배려**
큰 디자인 형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구성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 배려

03 **의사결정권의 균형**
위원회 구성의 성비균형(40%이상) 및 위원회를 통한 결정을 지역주민에 안내

04 **부서간 사업의 방향성 맞추기**
많은 부서가 함께 진행되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무엇을 최우선의 방향으로 잡고 사업지에 각 단위사업을 투여할 것인지 부서간 협력 필요.



자료분석

현장모니터링

78

도 시 재 생

동작구 | 복지 | 도시전략사업과

모니터링 과정

사업대상지 방문 및 교육참여(운영위원회 참관, 설명회, 도시재생대학, 도깨비시장 등 사업지 방문주간, 야간) 사업 담당자 인터뷰	실직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현장 주민 인터뷰	주민이 사업 이해 및 만족도, 요청사항 확인
사업자료 분석	사업의 방향, 사업내용, 진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도시재생대학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써의 역할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는 부족. 주요 참여자 50~70대 여성, 참석인원 및 주제의 다양화 필요

간판보수 등을 통한 깔끔한 시장골목
그러나 여전히 비어있는 상가들 지역경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 외의 방식이 필요

주민과의 의사소통 방식
공청회, 설명회, 주요시설을 위한 의견수렴 설문지 등이 얼마나 실 거주자 및 주요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받고 반영하고 있는가 의문. 일방향의 소통방식의 탈피,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 과 의견수렴 필요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참여 주민의 다양화
현재 도시재생 분과별 운영위원이 여러분과에 중복되어 있고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이 참여하지 못함

현장모니터링

도시재생대학교육참석

사업당당자 인터뷰

모니터링단도시재생사업워크샵

모니터링 개선안

01 **도시재생대학의 활성화 및 성인지적 관점의 공동체 교육 필요**
프로그램별 찾아가는 교육형태로 다양한 계층, 연령의 참여유도와 공동체 활성화 활동 필요 (학부모회, 지역단체, 상인회, 관심분야별 동아리모임 등)

02 **앵커시설에 주요 이용자 의견반영 및 시설이용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앵커시설의 많은 공간은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위한 시설.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등고 반연하는 것이 필요. 공간설계뿐만 아니라 공간을 쉽게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마련과 (현재 마을버스 1개노선 종점) 주변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원스톱 행정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필요

0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
중복되어 있는 운영위원들의 조정과 앵커시설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실제 시설이용자를 대표하거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참여자 등이 다수 사업추진협의체에 포함 되어야 함.

79

동네 체육시설 정비

동작구 | 복지 | 공원녹지과

모니터링 과정

사업대상지 방문 (동네 체육시설 및 신규 설치 기구)	실직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현장 주민 인터뷰	사용의 편리성, 보안사항, 체육시설 설치 장소 등
사업자료 분석	사업의 방향, 사업내용, 진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산림내 위치한 체육시설 – 장시간의 보행이나 보조기구등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불가능한 위치에 체육시설 설치
동네 공원체육시설 – 신체차이의 반영 아쉬움(자전거 운동시설 및 등 운동 시설이 키과 체구의 고려 없이 고정된 높이로 만들어져 있음)

참새공원의 경우 성인과 아동이 함께 마주보며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이 설치

새로 정비된 운동시설 –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신체의 차이, 연령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좋았으나 신규설치개수가 부족하고 기존운동기구를 재 설치하는 형태가 많음

체육시설 설치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설치하는가 – 다수 이용하는 주민의 욕구 반영필요

현장모니터링

모니터링 개선안

01 **산림내 운동시설은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타 부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산책로 정비 및 이동공간 확보 등도 고려해서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노인, 장애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접근방식 필요.

02 **동네 공원내 체육시설**
신체차이에 따른 높낮이가 다른 운동기구 설치필요. 대부분 어린이 시설과 함께 있으나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의 분리로 양육자가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 놀이시설을 마주보는 형태 혹은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시설 설치 요청

03 **가벼운 운동이 필요한 건강위험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설필요**
신체활동이 필요한 대상이 쉽고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

현장모니터링

80

공중화장실 개선

동작구 | 복지 | 청소행정과

모니터링 과정

사업대상지 방문 (교체 이동실 화장실 및 관내 화장실)	실직적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내용 확인
현장 주민 인터뷰	사용의 편리성, 안전, 보안사항 등
사업자료 분석	사업의 방향, 사업내용, 진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환기시설 없는 이동실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 흙과 돌로 이우뤄진 미끄러운 경사면과 동양식 화변기 사용으로 쭈그려 안기 힘든 주민 이용 어려움
- 변기 아래가 뚫려 있는 형태로 안전사고위험과 환기구가 없어 심한 악취 등

관내화장실

- 일부 화장실의 화장실 입구 단차로 휠체어 이동의 어려움.
- 남성소변기가 출입문 바로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프러이버시를 침해하고 있음
- 안전벨, 비상벨들이 많이 설치 되어 있기는 하나 비상벨이 켜질때 주변의 대처 방식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등에 대한 안내가 없고 문구도 작음
- 최근설치 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 출입문 위치의 방향이 다르고 단차없는 출입구, 화장실칸별 비상벨 등이 설치

모니터링 개선안

01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 거동 불편자 이용을 고려한 화장실 출입문 단차제거
- 여성화장실내 아동용 남성 소변기 뿐 아니라 가족 화장실 설치 필요
-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 공간, 손잡이 위치 등의 세심한 배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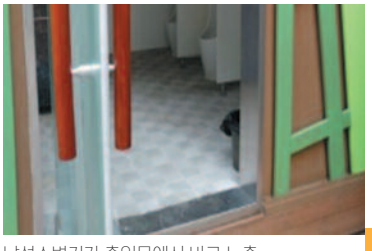
02 **안전의 고려**

- 관내 많은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 되어 있으나 외부 경광등이 울릴 때 주민들의 대처방법 안내가 부족하고 실제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 (경광등이 울리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등 안내가 필요)

03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보장**

- 남자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가 낮거나 화장실 문을 열었을때 외부에 노출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단차가 심한 입구



남성소변기가 출입문에서 바로 노출

따.뜻.한 관악

관악여성회

관악구 민간주체

관악여성회

2014년 10월 창립하였고, 지역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단체입니다.
독서모임, 천연모임, 반찬모임 등 일상모임과 그림책봉사활동, 독거노인반찬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관악구 정책에 대해서 성인지모니터링 활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를 하며,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활동가 박명희, 이은영, 서훈숙, 장순지, 홍은경, 이춘강, 유영단

멘 토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모니터링 교육(여성주의입문)

현장모니터링

모니터링 워크샵

행정 간담회

21 관악구

관악구의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교육(여성주의입문)	1강(5/20) : 더나은 삶에 대하여_에코페미니즘 (강사 김신효정) 2강(5/20) : 성인지감수성과 마주하기 (강사 김은희) 3강(5/27) : 도시공간과 성평등 (강사 장미현) 4강(5/27) : 여성주의와 마을공동체 (강사 윤정숙)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6/1 : 2017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젠더거버넌스회의	1차회의(7/20) : 모니터링 대상과제 논의 2차회의(8/08) : 모니터링 대상과제 담당공무원 미팅 3차회의(8/31) : 모니터링 진행공유 및 행정간담회 일정논의
모니터링워크샵	1차(6/18) : 모니터링 과제 선정 2차(7/15) : 모니터링 진행방법 및 일정논의 3차(8/05) : 모니터링 내용 및 인터뷰 내용논의 4차(9/02) :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개선안 도출
현장모니터링	7~10월 : 현장모니터링 및 사업담당공무원 인터뷰
행정간담회	10/18 : 모니터링 활동 공유 및 개선안 제안

8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악구 | 일자리 | 일자리경제과

모니터링 과정

8/4	**사업계획서 등 자료분석**	
8/8	**관악구젠더거버넌스 2차회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 담당주무관 미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 및 질의
9/22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 담당주무관(새로 부임) 인터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주민 인터뷰	사회적경제과/찾아가는 일자리개척단/관내기업체방문 구인구직활동

젠더거버넌스2차회의- 담당자미팅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터뷰

모니터링 개선안

01 **공익형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 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는 사무직종에 속하는 찾아가는일자리개척단(관내기업체방문 구인구직활동) 사업을 제외하면 자연관찰원조성(토지평탄작업,모종심기 등 재배,경작), 폐자원재생(가전제품,폐건전지,폐형광등 분류), 어린이공원정비(공원잡초제거,청소,시설물관리), 불법광고물정비(불법광고물 전단지,현수막 수거) 등 대부분 힘을 쓰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이며, 전형적으로 공공근로라고 인식되는 일자리이다. 점점 1인여성가구, 한부모가정 등 여성가구가 늘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어서 여성노인도 늘어나는 등 여성빈곤율이 높아지는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라면 지역사회에 공익형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하다.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의 내용으로는 힘을 써야하는 노동보다는 관계 중심적 일자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동화책읽기, 독거노인 말동무하기, 문화활동도우미 등이 가능할 것이다.

02 **참여자 내부 위계질서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필요**

해마다 비슷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선임자가 후임자 상위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라 작업 과정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위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참여자들 내부에 위계질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종료시 참여자의 평가설문을 받는 등 개선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03 **자립·자활의식 교육 필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의 수혜자들이 수혜에 의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서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동형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도 단지 일자리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04 **홍보 접근성 높이기**

대상자들에게 해당 정책이나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언제나 필요한 일이며, 대상자들이 주민센터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주민센터는 일반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복지대상자들에게는 눈치가 보여 발검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복지대상자들에게 주민센터 방문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등 방문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홍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82

안심골목길조성 디자인사업

관악구 | 안전 | 도시재생과

모니터링 과정

7/17	사업계획서 등 자료분석 및 현장모니터링 계획논의	
7/30	현장모니터링	- 2015년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삼성동) - 2016년 신림지역 안심골목길 디자인사업 (대학동, 서원동)
7/31	현장모니터링	2016년 봉천지역 안심골목길 디자인사업 (신림동)
8/8	관악구젠더거버넌스 2차회의	-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팀 담당주무관 미팅 - 안심골목길조성 디자인사업에 대한 개요설명 및 질의

현장모니터링 (삼성동,대학동,서원동,신림동)

모니터링 개선안

01 **디자인에 대한 개선의견**

- 동마다 그린색을 사용한 곳도 있고 노란색을 사용한 곳도 있고 두가지 색을 함께 사용한 곳도 있었는데, 노란색이 가장 눈에 잘 띄었으며, 동마다 색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공통색으로 통일성을 높이는 것이 더 좋겠다.
- 동 입구에 안심골목길을 알리는 전체알림판이 있고 그외 반사경이나 비상벨을 알리는 알림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알림판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알림판의 크기가 크면 좋겠다.
- 〈cctv와 안심골목실 표식 조명〉은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안심을 준다.
  바닥에 비치는 조명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는데 표식 조명이 크면 좋겠고, 한 골목에 2개 정도 설치되면 좋겠다.
- 틈새안전펜스도 유용하다고 생각되었다. 뛰어넘을 수 있지 않도록 높이가 더 높게 펜스를 설치하면 좋겠다.
- 소화기함은 사용법을 명시하면 좋겠고, 두꺼운 비닐등으로 막아서 핀이 녹슬지 않도록 해야겠다.
- 쓰레기무단투기 및 산적하게 쌓여있는 문제는 모든 동에서 나타난다.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가도록 되면 좋겠다.
- 삼성동 담장에 병을 깨서 꽂아놓은 집이 있는데 이런 곳은 펜스를 설치하면 좋겠고, 틈새안전펜스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었다.

02 **유지관리 필요**

안심골목길 표식 조명이 밧데리가 없는지 흐릿하게 나오는 곳, 비상벨의 전선이 끊어진 곳, 비상벨 LED등이 나간 곳, 도색이 퇴색된 곳 등 이미 관리가 필요한 곳이 여러곳 있었다. 유지관리를 잘 하고, 이후 보완되어야 하는 곳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03 **주민참여로 주민의식 높이기 필요**

쓰레기무단투기나 담배꽁초 등은 주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벨 또한 위급할 시 주민들이 대신 눌러줄 수 있어야 한다.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골목길조성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또는 캠페인(디자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한 담장이나 대문 등의 도색작업 등은 주민을 조직하여 주민이 참여하도록 진행한다면 주민의식도 형성될 수 있다. 이후 유지관리에 반영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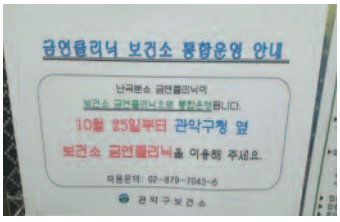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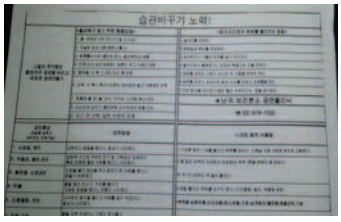
금연사업

관악구 | 복지 | 보건행정과

모니터링 과정

9/2	사업계획서 등 자료분석
10/17	난곡보건분소 금연클리닉 방문 (여성전용해피클리닉)





현장모니터링 (난곡보건분소-금연클리닉)

모니터링 개선안

01 | **여성전용금연클리닉 홍보 필요**

여성흡연자가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고 금연지원서비스의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전용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주민센터에서 금연클리닉 홍보배너를 보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너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전용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안내가 있지 않았다. 함께 안내되어야 한다.

02 | **여성이 금연클리닉 방문 시 상담환경조성 필요**

여성이 금연클리닉을 방문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이다.

여성의 금연클리닉 방문 시 오픈된 곳에서 상담이 진행되지 않도록 배려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03 | **다양한 홍보 필요**

금연환경조성이나 금연서비스 등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구청 앞에서 진행하는 장터나 마을축제 등에서 부스를 운영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활용으로 지역방송을 이용하여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진행도 좋겠다.

04 | **사례 활용**

여성이나 남성이나 금연클리닉 상담을 받았을 때나, 금연서비스를 지원 받았을 때 방문소감 등을 한줄평으로 적도록 하고 그 사례내용을 홍보하여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나 금연서비스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다.

84

방문건강관리사업

관악구 | 복지 | 지역보건과

모니터링 과정

9/2	사업계획서 등 자료분석
10/17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담당주무관 전화인터뷰

현장모니터링 (난곡보건분소-금연클리닉)

모니터링 개선안

01 **대상자 성별 특성에 맞게 사업 진행**

취약계층 특성에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 생활터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경로당 관리프로그램운영과 허약노인 예방관리,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모든 사업내용이 매우 좋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지만 오히려 불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긴 것에 대해 보다 여성대상자에게 맞는 사업이 더욱 잘 보장되면 좋겠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방문건강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해 남성 특성에 맞게 사업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02 **전담인력 여성간호사에 대한 보완책 필요**

이 사업은 전담인력이 대부분 여성간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방문 시 남성어르신 혼자 계신 집은 어렵거나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전담인력으로 남성간호사가 보강되면 더욱 좋겠으나 사회적으로 남성간호사 인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에 있는 우리마을건강지킴이 등과 같은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여성봉사자나 남성봉사자와 함께 남성어르신 가정에 방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전담간호사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동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서초 SEOCHO

NAcoach 서초나비코치단

서초구 민간주체

나코치(서초나비코치단)
서초나비코치단(나코치)은 서초구 여성특성화 사업으로 조직된 나비코치단에서 비롯된 비영리 법인단체로, 코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코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역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활동가 최명희, 임지영, 권정주, 이현주, 이경옥, 백길민, 김은희, 이은옥, 김이선, 권규리

서초구의 젠더거버넌스

몇 해간의 활동경험이 축적되며 서초구의 젠더거버넌스가 단순한 협치가 아닌 성인지관점을 갖춘 활동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의 평가가 있었다. 민간의 개선안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문제들로 인해 개선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려 노력하는 행정의 모습이 고무적이었다. 앞으로 서초구의 젠더거버넌스가 기대된다.

22 서초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서초관광정보센터사업**	문화체육관광과과	복지·일자리
02	**치매예방관리사업 – 서초구 기억키움센터**	건강관리과	복지·일자리
03	**반딧불센터(방배2곳, 양재2곳, 반포)**	교육협력과	복지
04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설치**	안전도시과	안전
05	**건강학교 키움학교(토요출산교실)**	건강관리과	복지
06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 교육지원센터**	교육협력과	일자리

85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설치

서초구 | 안전 | 안전도시과

사업내용

- **공공 및 공중/공원화장실 여성안심화장실 CCTV 및 비상벨 설치**
- **민간화장실 대상으로 여성안심화장실 인증제 운영**
- **설치대상 : CCTV 신설70개소, 교체 134개소, 비상벨신설 128대, 교체 250대**
- **대상지역 : 범죄 취약지역 우선 설치, 주민참여 경찰요청 등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후 심의 확정**

모니터링 개선안

01 **안심벨을 누를경우에 대한 내용표시**
누른다고 해도 출동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불신이 범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른 출동과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

02 **담당자와 상호통화가 가능한 시설**
우범지역이나, 남녀공동 이용하는 민간소유건물의 화장실의 경우 한 방향 비상벨과 함께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시설도 함께 배치(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03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비상벨에 대한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
-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많이 홍보함으로 화장실범죄 예방 효과 기대

04 **안심화장실 인증실시에 따른 명판부착**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우수화장실에 명판을 부착하여,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어둡고 범죄를 우려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경우, 위 문구가 과연 범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지?

86

치매예방관리사업 – 서초구 기억키움센터

서초구 | 복지 및 일자리 | 건강관리과

사업내용

- 치매예방
- 치매조기 진단, 치료와 재활
- 치매관리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치매 중증화 방지
- 치매가족부담 경감

모니터링 개선안

셔틀버스확충

센터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남성 참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부동반 참여시 인센티브제 도입

운영 직원들의 업무량 개선과 인력 보강

87

반딧불센터

서초구 | 복지 | 교육협력과

사업내용

- **시설현황 : 커뮤니티, 무인택배, 공구은행, 공동육아공간, 안심귀가서비스 등**

모니터링 개선안

01 **상주인원 보강**
봉사로만 이루어지다보니, 2명의 배정된 봉사자 중 비상시 활동을 못할 경우 대체 매뉴얼이 부족. 늘 상주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해보임

02 **유모차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된 시설이라 유모차로 이동할 수 없으니 영유아의 놀이시설 제공공간인 만큼 유모차 주차장을 1층에 운영하는 것을 제안

03 **장난감 발달영역별 정리정돈**
장난감 정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양보다는 발달영역별로 정리하여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정리가 필요해 보임

04 **체온관리**
영유아들이 방문하는 시설인 만큼, 전염병(수족구, 독감 등)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체온을 체크하는 관리가 필요함

05 **행동 매뉴얼 마련**
공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빌어간 공구를 훼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공구를 재정비 해 두어야 하는데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함

88

서초관광정보센터 사업

서초구 | 복지 및 일자리 | 문화체육관광과

사업내용

- **서초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느끼는 제공하는 편의성 및 직원현황과 근무환경, 안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

모니터링 결과

운영

센터장 1명 직원 3명 모두 여성이고 로테이션 근무제이며, 서초를 비롯한 서울 관광 홍보와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음. 내방객들의 성비는 여성 : 남성이 6:4 정도의 비율. 주로 가족 단위나 커플 여행객이 많으며, 하루에 보통 평일에는 70~80명, 주말은 1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음.
대부분이 외국인이거나 요즘은 내국인도 많다고. 바로 뒤편의 푸드 트럭이 성황을 이루면서 휴게소로도 이용함.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이 모두 여성임.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고, 보안 업체와 연결되어 자리마다 안전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음.

프로그램

관광객들의 여행 정보 제공, 국내 여행 예약, 인터넷 사용 등, 여러 가지 편의 제공하며, 서초구 관광 지원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연계되어 글로벌 서초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악 체험 프로그램 운영됨.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센터 음악도 국악이고 직원들 의상도 개량한복으로 통일성을 갖춤

모니터링 개선안

직원들의 복지 및 시설 향상 필요

서초 관광 정보 센터는 가건물 형태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열악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몹시 가파르고 위험했으며, 얼마 전 방문했던 버젓한 건물인 강남 관광 정보 센터와는 확연히 비교가 됨. 가건물이다 보니 화장실, 수유실이 없으며, 센터내 운영진은 물론이고 내방객들이 크게 불편을 토로함. 외국인 가족 관광객들이 수유실을 찾는 경우가 많음. 컨테이너라는 점 때문에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방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 있음.

89

건강부모 키움학교(토요출산교실)

서초구 | 복지 | 건강관리과

사업개요

- 교육정원 : 임신부부 50 커플 100명
- 교육시간 : 1,2,4째주 토요일
- 교육내용 : 태교, 신생아 케어, 라마즈 분만 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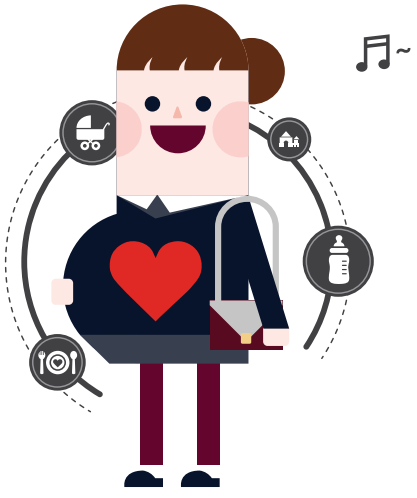
모니터링 개선안

01 | 임산부 중기나 안정기에 요가시간이 낮시간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참여가 어려우니 주말이나 오후 프로그램 개설요청(직장인 배려차원)
담당자들의 주말 수고와 인력확충, 재원마련으로 가능

02 | 업체(홍보상품 치중) 산모교실이 아닌 구청만의 전문 프로그램(산후우울증, 태교, 산모심리 안정 등) 요청.

평가 및 소감

-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가급적이면 구청을 계속 이용해서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와 부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서초모자보건소가 개소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됨



90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

서초구 | 일자리 | 교육협력과

사업내용

- 지역균형 및 특화된 진로체험 제공
-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 인성 교육, 직업체험 및 진학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진로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운영센터 : 양재내곡점, 방배점, 반포잠원점, 서초점

모니터링 개선안

01 | 남성 참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저녁 7시 이후 시간 또는 토요일 시간 개설, 홍보 필요

02 | 센터 위치가 시장 건물 구석진 곳이어서 이용자가 처음 방문할 때 어려움을 겪음.

03 | 센터 앞 홍보 배너가 많이 낡음.

04 | 센터장 협의회 時 고객층 세분화 필요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다른 센터를 홍보, 연계필요

평가 및 소감

- 권역별로 나뉘어 있어 접근성은 좋으나, 센터별로 하는 활동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을 듯 함.
-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여 좋았음.
- 반포/서초/양재/방배 네 군데로 권역이 나뉘어진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어느 권역이 담당인지에 대한 인지가 어려울 듯 함. 교육지원 시설인만큼 너무 노후되고 거부감 들지 않게 시설에 많은 지원이 요구됨.

강남구 GANG NAM GU

인투인 Into-人 연구소

강남구 민간주체

인투인연구소

인투인연구소는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애설계 전문강사 모임이다.

한 달에 1~2회 정기적으로 모여, 생애 주기 별 삶의 특성을 연구하고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삶을 설계하기 위한 지식정보를 상호교류하며 이를 각계각층에 전파하는 학습연구소이다.

활동가 김소원, 김건영, 김진희, 남기인, 박인아, 윤지윤, 최영하
멘 토 장현정(젠더N열린가족연구소 소장)

강남구의 젠더거버넌스

강남구는 행정과 민간 모두 젠더 거버넌스가 처음이라 주체들 스스로도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반 기대반으로 시작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 공무원, 실제 운영자 및 관리자의 협조가 기대했던 것 보다 잘 이루어졌고, 담당공무원 역시 친절하게 협조하였다. 민간주체 역시 '우리가 가치있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충만하였다. 다만 관련 통계자료가 전혀 없어서 모니터링도 깊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통계자료 요청이 해당공무원에게 부담을 줄까봐 마음껏 요청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다. 젠더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23 강남구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	재난안전과	안전
0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역삼 청소년수련관)**	보육지원과	복지
03	**2017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온오프라인 융합(020) SW 개발인력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04	**평생학습체제 구축**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롱런아카데미)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롱런아카데미	복지

91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온 · 오프라인 융합(020) SW 개발인력 지원 사업

강남구 | 일자리 | 일자리정책과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심의 선정된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2개 사업에 대하여 수행기관과 약정 체결, 전문 인력 양성 및 수행기관 채용 연계로의 지원 및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모니터링 개선안

사업선정기준 보완

본 사업은 교육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수자의 취업과 직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신청된 사업이 특정성별에 집중된 직업영역인지에 대한 검토가 사업선정 기준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내용의 지역적합성 → 성별 편향성 여부 → 수행기관의 교육수행능력)

만일 신청된 사업이 성별 편중된 직업분야일 경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브리지 과정을 추가로 마련하여 예비과정으로 개설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해당분야에서 취업이 저조한 성별에 대해 교육생 모집 시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등 본 정책을 통해 해당분야 종사자의 성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훈련생 선발심사 기준 및 교육내용 전문화

구인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교육생을 모집하는 사업구조이므로, 교육의 내용 심화 및 전문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홍보대상범위 확대

홍보 방법 중 하나인 대학교 홍보에 있어서 서울·경기지역 일부 대학에만 홍보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여대 보다 남녀공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홍보를 하는데 있어 어떠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교육 관련 커리큘럼 또는 수업수준. 이 수업을 받기 위해 어떤 교육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음

모니터링 과정 중 개선안을 반영하여 2차 모집 시, 여대에도 홍보하여 현재 진행되는 수업의 수혜자 남녀 비율이 적정해짐.

성인지적 관점기반의 사업기획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했다면 '온·오프라인 융합 SW 개발인력 지원사업'의 해당 정책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요구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사업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이 되었을 것임

취업후 지속적 사후 관리 필요

92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 – 롱런아카데미

강남구 | 복지 |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사업개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학습을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여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모니터링 개선안

프로그램 관련 사항

① 프로그램 운영진의 성 평등 인식에 대한 필요성 이해
② 여성 수강생 비율(91.6%)을 반영한 시간대 조정 및 프로그램 개설
③ 40대, 50대 연령(70.9%)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④ 「아빠요리교실」의 수강생 중 60대 이상(53.8%) 노년층의 활동 시간대를 반영하여 낮 시간대 프로그램 개설

주민 수요와 욕구 파악 관련

① 주민 수요도 파악을 위해 면밀한 수요조사 방법 마련
② 이용자의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점검
③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
→ 강남구에 있는 학습장의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내용 등 평생학습운영의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에 많은 준비와 시일이 필요하고 활동가도 복수의 형태로 각자의 관심분야를 맡아서 진행한 후 통합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

강사관련

① 강사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이해가 필요함
② 강사 선발 시 성인지 교육 수강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 또한 기존의 선발된 강사에게 성인지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성인지 관점을 포함시켜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의 한 축을 담당 하는 강사를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정책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됨

통합적 성인지성 관련 – 평생학습운영에서 젠더적 관점에 대한 이해는 아직 초보단계

① 담당공무원의 젠더 인식이 아직 정립돼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용자 혹은 주변 사람들 역시 평생학습의 어떤 상황과 요소에 젠더적 관점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젠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 활동 필요
② 이러한 모니터링은 모든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할 것

협치 및 소통 관련

① 강남구와 운영단체가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도시가 될 것

학습장이 내부수리중이라는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준비와 충분한 협조체계를 갖춰놓고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큰 아쉬움

93

2017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강남구 | 복지 | 청소년사업팀

사업개요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하여 균형 있는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사업대상 서울시 강남구 거주 취약계층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초등 4-6학년

대상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및 도곡동 일대

운영단체 역삼청소년수련관

모니터링 개선안

청성인지 교육 실시 및 성인지 평가항목 추가 필요

- 아카데미 운영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의 정기적 실시가 필요
- 프로그램 교과 구성 및 운영 시, 성별 수요조사 및 성별 과목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
- 매년 12월 30일자로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강남구청 등 상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성인지 관점에서 모든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었는지 평가 검토할 수 있도록 성인지 평가항목 추가 필요

근거리 방과후 아카데미 추가 건립

- 수요가 많지 않은 역삼동의 지역적인 이유로, 역삼 수련관은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2010년 개원 당시보다 10명 감소)
-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거리에 작은 청소년 아카데미 시범 운영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도입도 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안전한 귀가 지도 필요

- 차량예산이 45만원으로 책정되어 원거리 학생을 위한 차량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귀가 및 하교 후 수련관까지의 이동 수단 부족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포기 사례가 빈번함
- 차량예산 인상 또는 차량 추가구매 등을 통하여 안전한 귀가지도 필요

연계 기관의 필요

- 수련관 졸업 후 중학생이 되면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수련관 앞에서 서성이는 학생들이 있음
- 졸업 후, 취약 학생들을 위한 연계 교육기관 마련이 필요함

94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

2017 상반기 CCTV 설치확대 및 성능개선 추진

강남구 | 안전 |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

모니터링 개선안

CCTV 설치 장소 선정 과정에 관한 개선 필요

민원 해결 차원의 장소 선정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및 여성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및 불안 경감을 위해 설치 장소를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 1) 민원 접수 시 성별, 연령별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혜 대상, 지역을 배분
예 2)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와 연계하여 귀가 동행신청 상황을 파악, 신청이 많은 지역에 CCTV를 설치

민원접수 창구 확대 필요

예 1) 자율적인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과 주민센터 담당자간의 의견 교류프로그램을 만들어 공무원이 파악하기 힘든 민원 발굴
예 2) 심리적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결재라인 공유, 협력회의 정례화 등 연관업무간 소통과 논의가 가능한 통합적인 행정운영시스템이 요구됨

CCTV, 비상벨 운영 및 활용에 관한 개선 필요

- 민원 접수 후 CCTV 설치 여부 알림 시스템 필요.
  (현재, 민원 접수 후 최소 3,4개월의 과정을 거쳐 선정, 채택이 된다하여도 채택, 설치 여부 알 수 없음)
- CCTV 설치장소 안내 지도와 함께 CCTV의 위치와 방향, 대수가 기재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는 주정차 단속, 버스 전용차로 위반 확인을 위한 도로상의 CCTV 설치 장소가 도로명으로 고지되어있음)
- 기기의 설치 장소를 표시한 '안심길 지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홍보
- 비상벨 사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안내 홍보

예)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불안감을 느끼면 비상벨을 누른

- 관제 센터에서 민원인의 경로를 CCTV로 추적하는 무인 안심 귀가 지킴이 시스템을 개발
- CCTV 성능 및 커버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하여 사각지대에서의 범죄를 경계하도록 함

예) CCTV 영상은 30~40m 이내만 완전하게 확인되며 100m 거리는 실루엣만 보임
회전카메라일 경우 몇 초간의 공백이 발생함. CCTV 바로 아래는 사각지대가 발생됨

- 사각지대 및 CCTV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안 필요

예) 조명등, 안전거울, 비상벨, 스피커…

송파구청 | 서울여성회 동서울여성회

송파구 민간주체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송파팀

송파구 모니터링단은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송파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여성회는 생활인 여성들의 공동체로, 여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여성회는 3개의 지역지부(노원여성회, 동서울여성회, 영등포여성회)가 있고, 특별지부로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이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성평등교육센터, 언니네작은도서관이 있어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여성주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가 손민정, 안미영, 최고운, 한윤정, 허윤정, 형윤정
멘 토 서민순(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24 송파구

송파구의 젠더거버넌스

초반에 젠더거버넌스활동에 대한 행정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협조 없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통계자료 혹은 수혜자와의 사업내용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 어려웠다. 중간과정부터 행정이 협조가 이루어졌고 환류간담회까지 진행되었으나, 초반부터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더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올 한해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행정과 시민의 협치가 더욱 무르익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과 노인사회참여팀	복지
02	**만성질환교실**	건강증진과	복지
03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회복지시과 장애인복지팀	일자리, 복지
04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안전

95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송파구 | 복지 | 노인복지과 노인사회

사업개요

세부사업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시장형, 인력파견형 만 60세 이상)
대상지역	송파구 모든 동
예 산	1,904,000천원(국비30%, 시비35%, 구비35%)
운영단체	총 5개 기관(송파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송파지회,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복지센터,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공동작업장 등

모니터링 결과

- 여성은 돌봄 노동에, 남성은 택배나 교육에 관련된 일에 치우치는 경향이 큼.
-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활동현장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만족도 조사 및 담당자 유선연락 등으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참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및「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모니터링 개선안

-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운영과 참여자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수혜자의 동별, 성별 통계자료와 중도포기자 발생사유에 관한 성별 통계자료 필요
- 수혜자들의 경제적 상황 및 학력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확장으로 수혜자 확장 및 임금향상 필요

96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송파구 | 일자리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사업개요

세부사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행정보조업무 수행 가능자
대상지역	송파구 모든 동
예 산	633,698천원(전일제), 76,831천원(시간제)
운영단체	송파구청,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모니터링 개선안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자료 필요

장애인이라는 위치 상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비장애인 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의 피드백이 개인사업장이나 기업에서 고용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과 장애평등교육 필요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동료와 사회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인권평등교육이 사업장 안에서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근무지 시설 개선과 근무지 주변 시설

당장 현장에서 일을하는 수혜자 뿐 아니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체 장애인들도 현장 접근이 어려우므로 시설개선과 확충(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인 의료시설 접근성)에 예산과 계획이 필요

일자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수혜자에 맞는 업무배치

사업을 단순히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 또는 예산에 맞춰 할당인원을 채우는 수준으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업장 안에서 동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각 수혜자에 알맞은 업무배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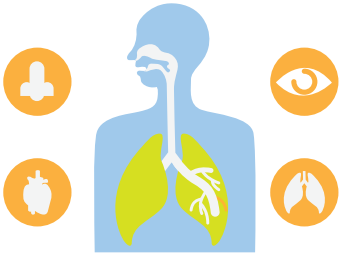
97

만성질환교실

송파구 | 복지 | 건강증진과

사업개요

세부사업	만성질환교실 사업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만30세 ~ 만64세 환자 및 환자 가족
대상지역	송파구 모든 동
운영단체	송파구청 보건소



모니터링 개선안

01 **교육시간 확대 필요**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 개선

02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홍보**

- 문자메세지로만 홍보하는 것은 모든 계층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으며, 처음부터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여부를 물을 때 이 자료가 어떤 곳으로 쓰이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
- 시각장애인, 문맹 또는 글을 읽기 힘든 노인분들, 핸드폰이 없어 문자를 받을 수 없는 구민들을 고려한 음성 서비스 등 다른 형태의 홍보 방법을 찾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함
- 공단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환자 리스트가 보건소로 제공되어 사업의 대상자가 정해진다는 것 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단을 받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된다는 것을 의미.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대상의 범위 확장.
-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송파구 내 지정병원을 조사해 본 결과 송파구 내 13개 동 중에 지정 건강 검진 기관은 총 53개. 그 중 마천동, 가락동, 잠실동이 각각 가장 많은 수인 8개의 지정된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별로 인구의 수가 다르지만 건강검진 기관의 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정보 접근성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수동적인 리스트중심의 문자메세지 홍보 외에도 다수의 정보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의 홍보확대가 필요

반영의견

- **홍보나 교육 시간대, 프로그램 등 특히 송파구에서만 진행하는 건강보안관 제도 등으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 중.**
- **총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정부주도로 5년 안에 만들어질 계획에 있다고 알고 있음. 그렇다면 좀 더 동별, 연령별, 성별 체계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음**

98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송파구 | 안전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사업개요

세부사업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노면표시, 신고표지판 설치)
사업내용 노면표시, 신고표지판 설치, 노후 보안등 개량 및 신설, 비콘 설치
사업대상 송파구 거주자(여성안심귀갓길 조성지 부근 주민)
대상지역 송파구 관내 여성안심귀갓길 10개소 52개 지점
예 산 30,570천원

모니터링 개선안

01 **여성안심귀갓길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시설물관리 보완 (주기적인 시설물 관리와 보수 필요)**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도 다른 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비교적 큰 길에 조성되어 있는 곳 주민들은 골목길이 지정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02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전후 범죄율 통계에 대한 자료**
조성 지역에서의 실효가 나타났지만 주변지역이 조성지역에 반해 상대적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지는 않는지 주변 지역에 대한 범죄율, 거주민 인식 조사 자료가 필요

03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전후 해당 지역에 적극적 홍보 및 안전 관련 담당부서의 교육과 소통 강화**
일에 형식적인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는 이름만이 있는 건 아닌지?

04 **조성지 선정기준과 예산 재검토 필요**
- 조성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
- 비상벨의 시각화와 표준화

서울시 비상벨 표준형디자인

잠실본동의 한 안심지킴이집 점주(여성) 인터뷰

한 여성이 밤중에 속옷차림에 식도를 들고 왔다고 한다. 그 여성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 도망을 왔다고 해서 비상벨을 누른 후 경찰을 기다렸지만 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이 왔다며 '명이 길어서 살았던거야' 라는 씁쓸한 말을 들려주었다.

안전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지킴이집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벼와 보리

강동구 민간주체

벼와 보리

열린사회시민회에서 운영하는 함께크는 우리 도서관의 책모임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월 2회 인문학, 사회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책을 읽고 있다. 어떤 책을 읽느냐 보다 누구와 읽느냐와 책을 자기 삶에 어떻게 가져갈지를 각자, 또 같이 고민하며 꾸리고 있다. 2016년 벼와보리의 멤버 중 3명이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2017년은 5명이 함께했다.

활동가 김설희, 유서향, 이수임, 이은진, 채은순

멘 토 김은희 이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모니터링 교육(여성주의입문)

모니터링 워크샵

현장모니터링

행정 간담회

25 강동구

강동구의 젠더거버넌스

첫해인 작년은 공중화장실관리사업 모니터링에 이어, 올해는 5개 사업을 모니터링하였다. 작년 모니터링이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올해 여성가족과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개선안이 사업의 평가라 여기는 사업담당자들은 아직은 건버넌스가 부담스러운 단계이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길 희망한다.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분야
01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교통행정과	안전
02	**공중화장실관리계획**	청소행정과	복지
03	**여성친화마을 조성계획**	여성가족과	안전
0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가족과	안전
0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니터링**	어르신복지과	복지, 일자리

99

공중화장실 관리계획

강동구 | 복지 | 청소행정과

모니터링 과정

7월3일	사업선정
7월10일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7월17일	사업담당자와인터뷰
7월12일~8월15일	현장모니터링
8월9일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서 작성
9월11일	사업담당자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개선안

관리자가 쉼터 물품 보관 공간 확보

임시 공간 사용 중. 쾌적하고 물품을 놓기 충분한 공간 확보가 절실함.
사람을 중요시해야 공간도 잘 관리 될 거라는 당연한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꼭 처우 개선 요함.

노후 화장실 폐쇄, 신축, 개방 화장실 마련

근거리에 화장실이 확보되어 있는 노후화장실은 적극적으로 폐쇄.
철거 및 신축이 어려운 노후 화장실은 근거리에 개방화장실을 확보하고 노후 화장실 철거.

화장실 진입로 환경 개선

- 휠체어, 유모차가 지나 다니기 어려운 진입로.
- 도로와 과속 방지턱 등 인접한 화장실 안전확보

반영의견

베이비시트, 기저귀 교환대 설치

신축 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에 일부 설치됨. 육아는 여자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남자화장실에도 설치 필요. 기존화장실 2016년 개선요구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 신축 시 주변 환경(장애시설, 노약자 편의시설, 체육공원 등)자원과 이용자를 조사하여 그에 맞춰 설계. 신축 후 담당자는 도로에서부터 화장실까지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화장실을 사용하여 불편이 없는지 최종점검 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개방.

***담당자의 성과공유회 불참으로 보고서만 전달함.**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여 2018년 1월 반영 내용을 공유 받기로 함.

담당공무원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100

여성친화마을 조성 계획

강동구 | 안전 | 여성가족과

모니터링 과정

7월3일	사업선정
7월10일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7월31일	사업담당자와인터뷰
8월8일	현장모니터링
8월9일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서 작성
9월11일	사업담당자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개선안

여성친화마을이라는 말에 맞는 폭 넓은 계획 필요.
차년도 계획이 확정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친화'마을을 사업 타이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내용 필요.
-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안전마을 정도의 명칭으로 변경 예정

사업대상지 선정
암사 1동은 여성 안심 귀갓길, 도시재생지로 선정 되어 다른 마을에 비해 혜택이 많은 경향이 있음.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중심의 거지주를 중심으로사업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형평성을 고려 필요.
- 혜택이 집중된 것은 아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구성
효용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재생협의체에 포함하기보다 여성친화마을에
걸맞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 필요.
- 차기 년도에 반영하겠다.

디자인 용역업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서울시와 타구의 컨텐츠를 취사 선택하여 최적의 콘텐츠 구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 표시 팻말을 눈에 띄게 하여 효과를 높이기.
- 고려하겠다. 팻말은 표시하겠다.

여성친화마을은 관이 주도하여 수립되기는 부족함
모니터링단, 주민협의체 등을 상시 운영하여 실제 의견 제기하고 의논장을 만들어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기.
- 여성친화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내려 놓는다. 범죄예방디자인에 집중하겠다.

담당공무원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10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강동구 | 안전 | 여성가족과

모니터링 과정

7월3일	사업선정
7월10일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7월31일	사업담당자와인터뷰
8월9일	안전지도 확인 예산 확인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서 작성
9월11일	사업담당자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개선안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한두 번(하반기) 회의만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과정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반기회의에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 아동안전지도제작이나 캠페인 활동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하반기에 한 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회의가 있었으면 한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체험학습형 안전지도 제작은 개인적인 학습효과는 있으나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교내 캠페인을 통해 안전지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또한 학생들이 만든 안전지도의 위험 요소가 관내 경찰서에서 만든 스쿨존 위험지도에 반영되어도 좋을 듯 싶다.
사회교과 내의 우리동네 지도 만들기 학습에 안전이라는 요소를 넣어 교과내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상

관내 초교 한 학급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은 소외되었다.

예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예산 7,240,000원 중 참석(자문)수당(3,000,000원)과 간담회비(400000원)가 47% 정도 차지했다. 총사업비에서 회의비 비중이 커보였다.

담당공무원 인터뷰

안전지도 확인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10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니터링

강동구 | 일자리 | 어르신복지과

모니터링 과정

7월3일	사업선정
7월10일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7월17일	사업담당자와인터뷰
7월31일	현장모니터링
8월9일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서 작성
9월11일	사업담당자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개선안

- 일정기간 활동 전·후 활동변화 또는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조사 필요함.

- 예산이 2배이상 늘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목적이 소득보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과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함.

- 참여 대상자 특성에 맞게 교육 참여 활동도 수급활동으로의 인정이 필요함(참여일자리의 성별비율을 볼 때 여성의 가사, 돌봄 이외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소한의 사업연계성과 소통을 고려한 전담인력 고용형태의 고민이 필요함.

-일자리수와 참여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전담자의 역할수행에 맞게 인원배정, 새로운 위탁처 발굴이 필요함(1인당 150여명의 수혜자관리의 어려움 감안)

담당공무원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103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강동구 | 안전 | 교통행정과

모니터링 과정

7월3일	사업선정
7월10일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7월21일	현장모니터링 및 주민 인터뷰
7월31일	사업담당자와 인터뷰
8월9일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서 작성
9월11일	사업담당자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개선안

-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간 스템프식 포장의 차량 속도 감소의 효과가 미미하여 아쉬웠다

-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색디자인의 통일성을 줘서 인식을 쉽게 했으면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인식이 없어 표지판을 세우고 보행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했다

- 차량의 일반통행길의 증가, 도로 폭을 줄이기위해 조경을 조성해 차량 속도를 줄이기를 유도했으면 한다.

- 도로 바닥에 쓰여진 글씨가 어린이 보호구역, 30, 여성귀갓길 안심도로 등 너무 혼잡해 보여서
  차량 운전자의 집중을 해치게 보였다. 한가지 안내에만 집중했으면 한다

반영의견

-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의 가장 큰 고심하는 점이다.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 마을의 특성을 살려 디자인 하는 것은 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운전자를 환기 시키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고려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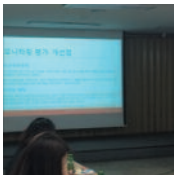
- 도로 사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

- 담당부처가 달라서 통합의 어려움은 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속도제한을 표시하는 형식은
  고려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겠다.

담당공무원 인터뷰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4

시민활동가들의 젠더거버넌스 활동소감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행정사업을 조명하는 **젠더모니터링에 대한 이해가 낮고 선입견 또한 두터워** 행정과 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성인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요"

"행정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협치'라는 개념이 잘 와 닿지 않고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어요"

"모니터링 대상 사업이 위탁사업이라 그런지 담당센터 측의 협조가 수월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인지 모니터링이라고 하니까 낯설어서 그런지 거부감과 반발심이 심하더라구요. 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인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위탁사업 담당자도, 업무관계자들도 협치, **그리고 성인지에 대한 이해 개선이 절실**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민주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사업담당자 인터뷰도 하고, 제안하는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아 끝나고 나니 아쉬움이 남네요."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젠더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느꼈고,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 **우리 삶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었다는 것**, '젠더'를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서울시의 목표인 성인지 정책 논의를 시민사회로 확장하고 시민 공감 정책 개발에 기여 했다는 생각이 들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 주무관이 얼마나 협조를 잘해주는지!!"

"이번 모니터링 활동으로 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마을에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생활 주변에 유용한 공공기관으로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게 되었으며, 플래카드 하나도 다시 읽어보게 되는 등 행정구역상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마을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보는 경험을 통해 동일한 인식과 공감을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정했던 과제가 행정의 요청으로 인해 변경되는 바람에 이중 작업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시민과 행정이 특별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과제 선정 회의 이전에 미리 의견을 조율한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충실하게 한 가지 사업을 들여다보는데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담당분들의 간담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회의 내용과 자료는 여성가족과 담당 주무관이 전달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간담회 이후 사업의 정책반영 등 계획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행정에서부터 젠더거버넌스를 단순한 절차가 아닌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노력임을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젠더거버넌스 사업뿐만 아니라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등을 통해 말씀해주신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을 기획 집행할 때 꼭 신경을 쓰겠다고 한 사업지기를 만났을 때가 이 과정 중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결과로 **정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체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치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구민을 위해 자치구에서 마련한 다양한 정책과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실정이 조금 아쉬웠어요."

"몇 달에 걸친 젠더 관련 교육, 현장 모니터링, 중간보고서 작성, 서면 컨설팅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젠더라는 개념이 생소한 사람도, 성인지 관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좀 더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활동을 계기로 사회현상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요. 전반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파악할 때까지 어찌할 바 몰라 걱정에 싸여있기도 했지만, 모두의 인간성 회복이 작은 한 걸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 **내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 더 애정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젠더거버넌스 활동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안 내용이 정책에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젠더거버넌스에 대해 배우고 모니터링을 하면 할수록 모든 정책에 젠더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인지관점이 사적인 영역에만 적용되고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 사회,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며 문제점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새롭고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국민들이 젠더 거버넌스에 참여하였으면 하고, 이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주의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이상주의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지속적으로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고, 특히 주무관님의 협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땐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모니터링을 할수록 모든 정책에 젠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면서, 성인지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성별 인원수를 맞추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스쿠터타고 공원을 돌고, 사업선정에서부터 개선안을 도출하는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방향을 정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확 바꾸진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나마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자치구 구민으로 살기만 했지 이런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세세하게 보고 읽고 의견을 내게 되어 기쁩니다. 공무원분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자치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타 구에선 협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아 자랑스러웠어요.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개선이 될까하는 고민도 많이 됐었으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지속된다면 모두가 성인지 관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사회가 올 것이라 기대되어 뿌듯합니다."

"바쁜 중에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단체의 회원분들도 모니터링을 같이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해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올해는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활동을 진행했지만, 앞으로 다른 부서들에

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관점이 없는 분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에 젠더 관점이 녹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설득할지 어렵더라구요. 성비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성인지 관점을 접목시킬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젠더 거버넌스, **성인지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젠더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해왔던 모니터링 활동이 체크리스트만 보고 평가하는 활동이었다면 이 젠더거버넌스 활동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다만 즐기려고 시작한 일인데, 비협조적인 상황,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무거운 일이 되어 버린 것은 아쉽습니다. **왜 우리가, 시민이 홀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젠더관점, 모니터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 활동은 여성주의가 주는 아니었고, 지역의제들이 지역문제 혹은 이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역 활동에서의 의제가 여성주의이면 뭔가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번 활동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의 힘이 모아져서 결국 사회적 파장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부와 교육을 한다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 적용되는 것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활동하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할 때 마다 느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젠더나 거버넌스에 대한 전혀 개념이 잘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인식 속에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우리가 젠더거버넌스의 활동과정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이런 모임을 통해 관심사가 통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단지 친목도모 모임이 아니라서 좋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여러 정책을 주의 깊게 보게 되어 뜻 깊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구만이 아닌 다른 곳의 정책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의미있었고요. 원래 관심은 있었지만 **세심하게 보는 눈이 없었는데 관심 없던 것도 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지나가다 쳐다보게 되며 연관 지어서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모니터링 취지를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모니터링의 의미를 행정의 업무를 도와준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끔 모니터링의 입지가 확고해졌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의 부서 변경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현재 자기가 맡은 부서를 이어서 맡게 되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초반에는 젠더 그리고 협치라는 개념이 어려웠지만, 실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다보니 어느새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을 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활동에 애정을 많이 쏟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정말 힘들었었는데 담당자분들, 모니터링단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마을이 깔끔해지고, 안전해지고, 좋아지는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재개발 해제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기획 및 결정 과정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반영, 성별 형평성 및 성별 균등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현황이나 요구를 좀 더 조사하고 노인 분들의 요구도 반영한 안전마을을 설계 및 조성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의 일원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생활 속 문제에서도 젠더와 성인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개선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2차 모니터링과 회의가 진행되면서 어색했던 시도들이 조금씩 쌓여갔고 곧 이어 장점들이 다가왔습니다. 시작은 미비해 보이지만 향후 **성 주류화 정착에 시민 활동가가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젠더거버넌스 활동은 아주 의미있는 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활동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인지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제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활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몰랐던 부분에 대한 호기심,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한 설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뿌듯함 등 만감이 교차**했고,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입니다. 제게 성인지 감수성이란 평생 쌓아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자료를 행정에서 얻을 수 없어서 구청사이트, 카페의 모든 자료를 섭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료를 보고도, 행정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참여자들의 인터뷰와 주민들의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근거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 기본정보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

이 너무 많이 걸렸고 답답했습니다. 모니터링 몇 년 동안 이번처럼 답답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성인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마을에서, 지역에서 그림자노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어요. 충돌하는 권리들 속에서 누군가가 아예 삭제되어 있거나 부차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들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보편이 아니라, 취약한 위치와 조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한 평등이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인지 교육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막상 성인지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하려보니 어렵기도 하고 막막했었는데, 하나하나 성인지를 되새겨보는 과정에서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사회의 통념에 맞춰 살아왔는지 깨닫기도 하며**, 여러모로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력과 체계로 성인지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인지 정책모니터링은 자치구과제의 모니터와 서울시과제의 모니터가 양분해 있어 품과 시간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구주제인 마을기업 모니터링은 용어의 개념이해와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정책으로 잡아야하는 모니터링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기업의 목표설정에 공동체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그 부분은 주로 돌봄, 서비스, 공방 등 여성들이 많이 하는 활동분야였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은 많은 여성들의 희생적 봉사활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들이라는 것과 마을기업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시점에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과 같이 살아남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공간지원과 같은 지원이 절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평구가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은평구 사람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림과 결합해서 건강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장을 여러번 가서 모니터링 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못간 것이 아쉬웠습니다. 몸을 써야 한다는 것을 정감을 통해 배웠어요. 또한 성평등 관점 뿐만 아니라 인권의 시각으로 보면 더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대사증후군 사전 조사용지에 성별 표시 따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지 못했고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바위에 계란 치는 형국이라도 계속 이의제기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았던 점은 지역에서 오래 살고 인생 경험도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작업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많이 배웠다는 점이고, 내년에 또 한다면 모니터링 했던 사업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성인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고

있는 일들의 일정과 겹쳐서 좀 더 꼼꼼하게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다 해보고 나니 전체 일정 중에 처음 한두 달을 너무 허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너무 교육에 의존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딱히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교육, 워크숍, 모니터링, 간담회의 순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밟아 쭉 해본 것이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해봤다는데 의미를 둡니다. 아직까지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들고, 다른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쁜데 '잘해내야지'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심리적으로 힘들었을텐데 그렇지는 않았고 그래서 동료에게 좀 미안했어요. 누가 같이 하자고 하면 하는데, 열심히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초보여성주의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생활 속에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랜 습관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배운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정치나 정책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시작했고, 어렵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라도 계속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업은 근래 불거진 공공 장소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고 싶은 마음으로 모니터링했고,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한 가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제대로 박자를 맞추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맡고 있었고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일이라 해도 현실적인 상황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보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분노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나니 구청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책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 안전 디자인 사업은 담당자가 3년째 성 인지 모니터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활동도 중요했지만 담당자의 변화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2년, 골목길 안전디자인 사업으로 1년, 성 인지 모니터링 사업의 담당자로 모니터링 활동가들과 만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 담당자가 마을 안전에 대해 성과물 위주가 아닌 마을공동체의 관계망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사업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고 여전히 결과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위치상의 한계가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업

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여성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모니터링단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한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서 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담당자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고요. 이 사업도 그렇지만 담당자 한 명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업의 질을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올해 우리 지역모니터링 활동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형태였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본인의 사업이 성 인지 모니터링 대상 사업인지 내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에 대해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업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해 준 사업입니다.

마을계획사업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 모호하기만 했습니다. 모니터링 내내 배우고 질문하고 다른 모니터링 하는 분들과 같이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업 프로세스 진행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교육 모니터링, 단어도 생소하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활동을 통해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구청의 사업과 이슈들이 실은 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들바람이라는 건강한 작은 공동체가 생겼고,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애착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주민모임 시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 고려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있으므로 어느 연령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고, 연령과 성비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성인지 관점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활용, 성인지 교육이 전반적으로 시행되어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인지관점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공부해야하는 것 같고 적극적 활동은 안하지만 모니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잠깐 알고 가는 시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 구의 정책도 궁금하고, 성인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구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편이라 이 주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으며,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박원순

발행처 서울특별시

기획 및 제작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 본 사례집은 2017 협치 서울 의제 사업 결과물입니다.

2017 시민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기반 구축사업

성인지관점의 정책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사례집

· 발행일 | 2017년 11월 · 발행인 | 박원순 · 발행처 | 서울특별시 · 기획 및 제작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 본 사례집은 2017 협치 서울 의제 사업 결과물입니다.